

한국농업박물관 건립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 건립 필요성 및 사례 중심 -

김광언 · 박명도 · 박대순

2006. 10.

농림자료실



0012387



온양민속박물관

ONYANG FOLK MUSEUM

한국농업박물관 건립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 건립 필요성 및 사례 중심 -

김광연 · 박명도 · 박대순

2006. 10.

2006-152

농 립 자 료 실

등록번호: 12387

등록일: 2006 년 12 월 7 일



온양민속박물관
ONYANG FOLK MUSEUM

제 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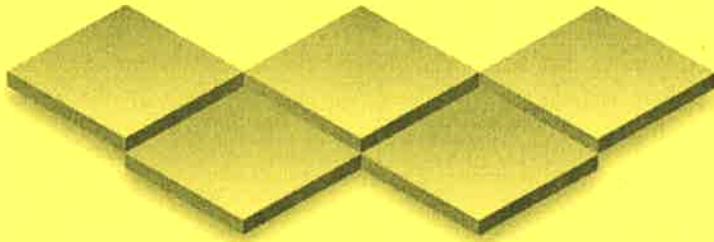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농업박물관 건립 방안연구” 용역과제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제출자 : (재)구정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 관장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요 약

I. 연구배경 및 목적

- 5천여년을 이어온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을 도시민 등에게 홍보하고 보존가치는 높으나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역사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 및 사례 수집, 기본구상 정립
- 농촌지역 전통문화 보전·계승과 농경유물 수집·고증·보존을 통하여 보존가치는 높으나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
- 농업·농촌 관련 역사연구는 사학연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농업의 역사성 홍보
- 과거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농업의 기여, 현재 농업의 다양한 역할 및 발전 필요성, 미래 농업의 방향 등에 대해 청소년, 도시민 등에게 교육시키는 홍보자료로 활용

II. 한국농업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1. 위기를 맞은 우리 농경문화

-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농업을 생존의 바탕으로 삼아 왔으며, 우리 문화는 농업문화를 토대로 성장하여 왔음
 - 농업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젖줄이었으며 또한 생명줄이었음
- 우리 농업이 '7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산업화 물결에 밀려, 오늘날엔 존폐위기의 기로에 와있음
 - 과거에는 인구의 80%를 농민이 차지했으나, 이제는 도시인구가 90%까지 늘어났음
 - 우리 전통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가고 있으며, 농촌문화 또한 사멸의 위기를 맞았음.
- 사라져 가는 농촌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어서, 대대로 물려줄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강구 필요
 -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젊은이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는 뒷날 후손들의 준엄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보전·계승과 농경유물 수집·고증·보존을 통하여 보존가치가 높으나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 보존 필요
 - 새로운 농업박물관 건립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임.

2. 농업문화 부재의 한국 박물관들

- 수천 년 동안 찬란한 농업문화를 가꾸어온 우리가 이제껏 농업박물관을 세우지 않은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함
 - 신라 금관, 고려청자, 조선의 백자 같은 귀족 취향의 값비싼 물품만이 귀중한 보물이라는 우리들의 얕고 천박한 가치관 때문임.

- * 대대로 이어온 품앗이, 고된 노동을 덜어주는 풍물, 힘을 모아 농사를 짓는 두레, 쟁기를 부리는 재간, 세련된 세시풍속 등
- 우리 겨레가 수천 년 동안 갖고 닦아온 보배 중의 보배임.

□ 국내의 220여개의 박물관이 있으나 대부분 과거 귀족문화에 중심을 둔 고고·미술사 중심 박물관임.

-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고 온 농민을 위한 박물관은 2개소뿐임. (농협의 농업박물관, 전남도의 영산호관광 농업박물관)
- * 이들도 농기구 전시에 치중하고 있으며 농업문화를 연구하여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음.
- 야외전시장이 없는데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우리 농업문화의 극히 일부분 만을 전시하였음.

3. 새 박물관 건립의 필연성

- 일부 언론에서 다른 나라에 농업문화 중심의 박물관이 없다고 하나, 내용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오해임
- 중국의 경우 북경 시내 천안문 광장 부근에 일찍부터 대규모 농업박물관을 세웠음.
 - * 세계 고대문화 및 고대 농업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 제공
- 일본은 국가에서 세운 대규모 박물관은 없지만, 현(縣)마다 민속박물관에서 농업문화를 전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마을에도 향토자료관이 있어서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계승·전승해오고 있음.
 - * 인구 4만 명에 못 미치는 대마도의 경우 향토자료관이 15개소임(마을마다 있는 셈)
- 유럽의 경우는 어떤 국가도 수천 년 동안 오로지 농업하나에 매달려온 나라는 없음.
 - * 일찍부터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서 풍요를 누렸음(농업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임)

4. 통일에 대비하는 박물관

□ 우리네 박물관의 대부분은 북한의 문화유산이 제외되어 우리 문화의 반쪽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새 박물관은 북한의 농업문화 유산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겨레가 하나라는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 남북한을 포함해서 한국 농업전반을 다루는 박물관이 필요

→ 미래의 새로운 세대들이 박물관에 와서 보고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독창적인 농업박물관을 세운다면 우리 농업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에 내세울 자랑거리의 하나로 떠오를 것임.

- 박물관은 농경유물 보존뿐만 아니라 농업인 교육 및 농업에 관련된 전시 등 행사장 이용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농경문화의 우수성과 농촌문화를 알리는 관광명소로 발전 시킴

⇒ DDA, FTA 등 개방화로 위축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우리농업의 희망을 주고 중추적인 구심적 역할의 장 마련

Ⅲ.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결과

1. 국내사례

□ 우리나라 박물관은 전체 223개소로 국립 25개, 공립 31개, 사립87개, 대학 80개소임

○ 국내의 223개의 박물관 가운데 농업과 관련되거나, 농경유물을 갖춘 박물관은 18개소임

시	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서	울	60	9	1	27	23
부	산	8		1		7
대	구	5	1		1	3
인	천	3		1	1	1
광	주	5	1	1		3
대	전	10	1	2	3	4
을	산	1				1
경	기	27	2	2	17	6
강	원	15	0	4	7	4
충	청	13	1	2	3	7
충	청	16	3	1	8	4
전	라	10	1	1	2	6
전	라	6	1	2	1	2
경	상	17	1	7	4	5
경	상	17	3	4	7	3
제	주	10	1	2	6	1
계		223	25	31	87	80

자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내용 보완

□ 국내 농업박물관 사례(농기구 소장 중심)

지	역	박물관 및 기관	비	고
서	울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농업관련 유물 및 자료 보존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 수집보존	
		국립중앙박물관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수집보존 및 지원	
경	기	한국 민속촌	민족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소개	
		명지대학교 박물관	고고미술, 서화, 민속자료, 조개무덤출토자료	
		경기대학교 박물관	전국 농기구 수집 및 최초의 농경전문전시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농경유물관 및 자재전시관 등으로 구성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역사관· 잠사과학박물관	전통농기구 및 현대농기구 수집 보존 누에와 관련된 자료 들 수집 보존	

지역	박물관 및 기관	비고
강원권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	산촌 민속전문박물관
	관동대학교 박물관	관동지방의 농기구 및 발굴유물
충청권	온양민속박물관	민간이 세운 국내최초의 대규모 민속박물관
전라권	영산호 관광 농업박물관	전남지역 전통 농경문화 수집·보존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호남지역의 민속자료 및 향토 역사유물 수집보존
	동진수리민속박물관	수리·농경·생활용구 등의 민속품 수집
	벽골제 수리민속 유물전시관	가장 오래되고 큰 저수지인 벽골제 기념
경상권	안동민속박물관	안동댐 수몰지역 문화재와 전통가옥 보존
	경남농업기술원 농경문화관	농기구관련 유물수집보존
제주도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도의 민속문화 발굴 및 수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자연과 함께 전시

2. 국외사례

□ 국외사례로는 일본 4개소, 중국 3개소, 베트남 1개소, 덴마크 1개소의 실태조사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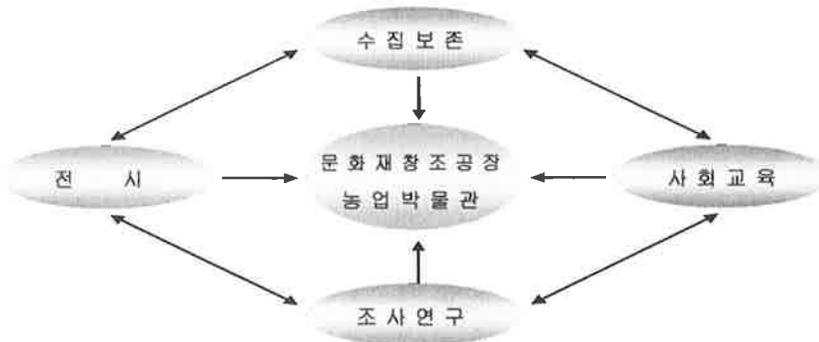
국가	박물관 명칭	비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민족학 조사연구를 통하여 세계 여러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정보제공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요문화재 및 역사자료 16만점 소장·전시
	오사카 역사박물관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 소개
	비와코 박물관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코 연구결과를 관람객과 공유하고 교류
중국	중국농업박물관	국가급 자연과학류 전문박물관
	북경 민속박물관	1997년에 동악묘에 개관하였으며 동악묘 역사전, 생활유물전, 생산도구전 등 전시
	운남 민속박물관	명절문화, 민간미술, 민족복식, 소수민족 사회형태 개혁과 발전, 생업, 민족악기 및 고서, 민간 수공예품, 미술작가 전시실 등으로 구성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54개 소수부족의 생활과 민속, 제례절차 등 25,000점의 가공품과 15,000개이상의 사진 등을 지도와 모형, 비디오로 전시
덴마크	국립박물관	자연사,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민족학 등 인간과 문화와 관련된 전(全) 분야에 걸쳐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약 만 2천년 동안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전시

IV. 한국농업박물관의 기본구상

1. 성 격

농민문화 중심의 박물관

- 한국농업박물관은 농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
- 농업박물관에서는 변모와 동시에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는 농촌의 문화유산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집한 뒤 과학적으로 처리한 후 영구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필요
 - 현재 농업에 관련된 유물을 소장한 박물관 수장고의 대부분은 제습 장치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함
 - ※ 예컨대 쟁기의 보습은 손으로 들기만 해도 쇠 가루가 부슬거리며 떨어지는 상태에 있으며 멍석 따위의 벚짚 제품도 하루가 다르게 부스러지는 형편임.



- 조사연구는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유물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이와 연관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도 병행
 - 조사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정기적 일반 및 전문가에게 제공
-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

농업문화 체험의 박물관

- 현대 박물관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고 스스로 만들어 보며, 그것을 실제로 써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체험을 통해서 문화의 참 모습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체험을 통해서 고취
 - 농사 체험이야말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임
- 또 박물관 부지의 일부를 텃밭으로 꾸미고, 도시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마련한 숙소에 머물며 직접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말 농장 프로그램도 도입 필요
 -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
 - 현지의 농촌 마을에서 체험을 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상도 아주 어린 유아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비롯하여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농업문화 교육장으로서의 박물관

- 초기의 박물관은 모아 놓은 자료를 보관하고 보여주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 함
 - 특히 영국에서 박물관 법이 공포되면서 박물관은 사회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오늘날에는 박물관의 모든 기능을 사회 교육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각 박물관에서 제각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을 끌어 모은 결과, 박물관은 개성이 넘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 사회교육을 위한 행사 마련 예시
 - 농업인을 위한 농업 교실
 - 농업 전문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
 - 농업관계 종사자를 위한 연수 교육
 - 농업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교육
 - 주말 농장 가족을 위한 교육
 - 일반인 대상의 각종 특설강좌
 -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

- 노년층과 유년층을 포함한 짚풀 공예 교실
- 한 해의 세시 풍속에 따른 놀이 마당
- 텃밭에서 체험하는 곡물의 한해살이
- 찾아가는 농업민속박물관 운영
- 외국인을 위한 공예교실
-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풍물 교육
- 장애인을 위한 교육
- 민요 교실

관광 명소로서의 박물관

- 기존의 거의 모든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유물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고 있어 유물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를 극복하려면 일반인들이 농촌 문화를 체험하면서 즐기고, 또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서 현대의 삶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 모색
- 농업박물관에서는 야외 박물관에 굴피집·너와집·귀틀집·삿집·돌기와집·움집·투방 집 따위의 대표적인 산간 가옥을 옮기거나 옛 방식대로 건립
- 야외박물관에 야영장을 설치해서, 방학 중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청소년들은 천막에서 자면서, 박물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의 여름살이를 체험하고, 단체생활의 고달픔과 즐거움도 함께 체험
- 여러 가지 농산품과 공예품을 생산 판매
 - 특히 메주 쭈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등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소재 발굴
- 농업 관련 유적지 순례 등의 관광여행 상품 마련
 -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농업 관광 문화 상품도 개발
 - 중국이나 일본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방문해서, 며칠 동안 농촌 문화를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가능

2. 구 성

역사관

-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농경의 발전 과정과, 농촌진흥사업 변천사를 주 내용으로 전시
- 이 밖에 현대 농업실·미래 농업실·새 기술 전시실을 둠

문화관

- 농사를 지어 나가는 전 과정과 이에 따른 의례를 지역별로 전시
- 이 밖에 의식주를 비롯한 지역별 생업 및 농업문화 전반을 전시
- 공간은 야외박물관을 이용

과학관

- 농촌진흥청 소속의 농업과학관을 박물관에 이관해서 확대 보강
 - ※ 농촌진흥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83년에 세운 이 과학관은, 2002년 11월 15일 현재의 건물로 옮겨옴 (규모는 지상 2층에 지하 1층이며 전시 면적은 823평)
- 전시 주제는 '농업과 인간'으로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알리고 농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시키는 일에 주력

농기구관

-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농기구를 각 지역별(남북한 포함), 시대별, 농사 진행 과정별로 전시
 -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의 재래농기구와 현대 농기구를 통합
 - 특히 북한의 농기구를 수집하거나 복원하며, 중국 및 일본의 중요 농기구도 복원해서 문화의 차이와 교류 과정을 이해

길쌈관

- 현재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누에박물관을 확대 개편
- 누에치기의 전래와 보급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기회 제공
- 누에치기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솜을 타고 베틀에 올려서 옷감을 짜는 각 과정을 보여줌
- 베와 모시의 전 과정도 결들임. 이들의 유통과정과 민속도 아울러 전시하며, 전통적인 물감들이기도 재현

공예관

-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목공예, 칠공예, 한지공예, 초석공예, 옹기공예, 유기 공예품 등을 생산 및 판매
- 특히, 옹기는 관람자도 직접 빚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관

- 전시물에 손을 대지 않고 감상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만지고, 기대고, 올라가서 전시물을 파악하는 'Hand-on' 개념의 전시를 시도
 - 실제로 어린이들은 손으로 만져 보고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원리를 완전히 알 뿐 아니라, 상상력을 기르며 친근감도 더 느낌
- 어린이 전용 박물관을 위한 프로그램은 간단한 물건을 만드는 공작 및 공예교실에서부터, 전통적 죽세공품을 비롯한 공예품과 이를 응용하는 과정으로 구성

체험관

- 벼를 비롯해서 각종 발작물과 과실 그리고 특용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공간으로 꾸밈
 - 전통적인 놀이 및 전통적 혼인 의식 등도 볼거리로 재연
 - 세시 풍속에 따른 전통적인 민속도 계절에 따라 보여주고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야 외 관

- 야외박물관은 미술 박물관이나 고고학 박물관과 달리, 유물을 현장에서처럼 전시해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박물관 개념
- 한국농업박물관에서는 각 지역의 농촌 마을을 재현하는 동시에, 농사를 지어 가는 과정을 보이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마련.
- 또 농업 관계 세시에 따른 여러 가지 놀이(줄다리기, 지신밟기, 두레놀이, 백중놀이, 호미씻이 등)도 펼치는 시설을 갖추
- ※ 전국민속경연대회도 이곳에서 열도록 함

공 연 관

- 각종 홍보와 집회, 농업문화 공연장 등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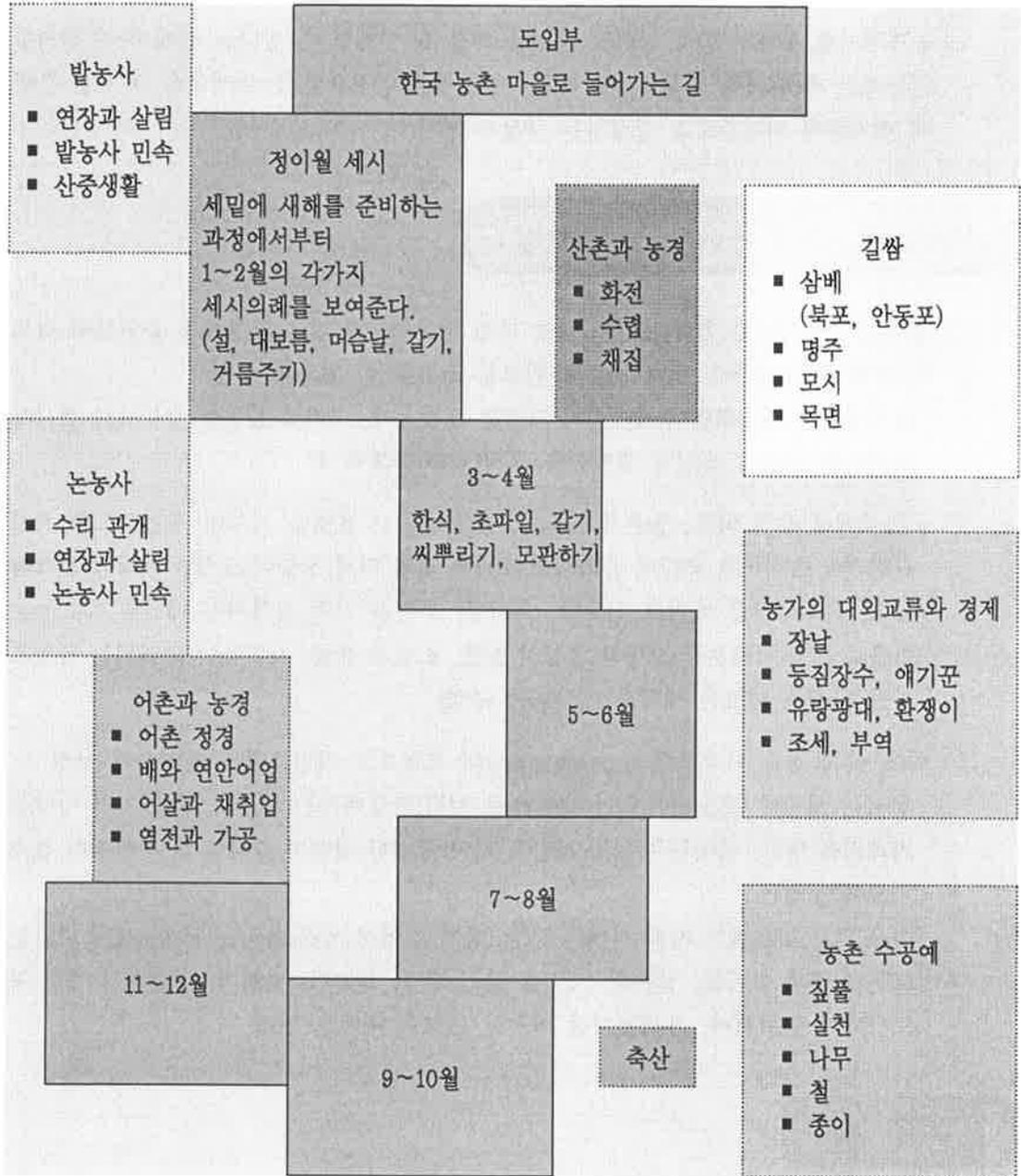
도 서 관

- 현재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농업과학도서관을 , 농업박물관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검토

3. 전시 구상

- 한국농업박물관의 전시는 한국 농업의 역사성, 지역성 및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성
 - 한국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 농업박물관 전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배제된다면 한국 전통문화의 기반으로서의 농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임
 - 현재 한국의 농업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등의 농업분야 전시는 단편적이거나, 규모가 작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한국농업박물관은 성격상 큰 규모의 전시실과 긴 관람동선이 필요
 - 우선 관람시간을 2시간, 1일 적정 관람객을 1만명 정도로 설정
 - 전시 동선상의 충분한 공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곳곳에 안락한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즐거운 관람이 되도록 배려해야 함.

<전시 개념도>



가. 주제와 부주제

1) 주 제

- 농경세시를 통해서 한국 농민과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시를 관통하는 제1주제를 농경세시로 하고, 세부 접근이 필요한 부 주제들을 그 흐름 주변에 배치하여 전시순로를 형성하는 구상을 제시

제1주제 : 농경세시와 농민의 삶

- 실내전시는 이러한 한해 12달의 삶을 마치 백두대간과 같은 흐름으로 풀어가며 필요한 곳에 부 주제들을 배치하여 그 전모를 조감할 수 있도록 구성
 - 전시방법은 역동적인 입체전시와 다양한 패널전시, 그리고 풍부한 실물자료 전시가 교차하며 긴장과 몰입과 편안함을 교직(交織)하도록 함
- 도입부에서 우리 국토, 농촌의 모습을 정감 넘치는 풍경을 거치며 경험하도록 배치
 - 관람객이 움직이는 보도에 올라서면 소나무 숲을 거쳐 장승이 도열한 서낭당 고개를 넘고, 옥수수밭을 헤치고 원두막, 보리밭, 무논을 거쳐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농촌 마을로 진입(약 5분간 모형과 영상의 흐름. 소리와 풍물, 자연음이 교대되는 음향효과로 관객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도록 구성)
- 이어 설 풍정을 시작으로 하는 세시풍속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구성
 - 전시는 세밀에 설을 준비하는 광경으로 시작(마당에서는 남자가 떡을 치면 아낙은 가래떡을 밀고, 아이들은 설빔 자랑을 하며 풍성한 설맞이 준비를 하는 광경이 펼쳐지도록 구성)
 - 설을 맞은 마을에는 차례 지내는 사당, 종가 집에서 세찬 돌리는 모습, 세배 다니는 고운 차림의 아이들, 입춘축, 세화를 붙인 광경,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며, 풍물놀이를 비롯한 대보름 축제로 연결

부 주 제

□ 한국농경문화의 형성과 전개

-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과 그것이 인류의 삶의 향상에 끼친 영향을 분석, 전시

- 마을을 이루어 사회화 하는 과정을 암사동 등 신석기유적을 통해 시연
- 청동기시대의 논, 밭 유적으로 농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고을을 이루고 나라(고조선)를 세우는 것을 유적, 유물을 통해 조명
- 인류의 초기 생산수단인 채집 /사냥 /목축(유목)에 대해 전시

□ 발농사

- 발농사를 주로 하는 북한지역의 농업을 중심으로 산중생활의 여러 모습과 발농사 연장, 살림살이, 그리고 발농사 민속에 대해 전시

□ 논농사

- 서남 평야지대의 농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논농사의 도입과 발달과정을 수리 관개, 논농사 연장과 살림, 그리고 논농사 민속을 통해 전시

□ 산촌과 농경

- 깊은 산촌에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화전 경작, 사냥과 채집생활을 중심으로 전시한다. 또 산촌지역의 특수한 신앙을 비롯한 민속을 조명

□ 어촌과 농경

- 농토가 보이는 어촌 정경을 배경으로 어촌에서의 농사모습과 배, 연안어업, 어살, 채취, 그리고 소금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염장, 젓갈 등 해산물 가공에 대해 전시

□ 길 씬

- 삼베(북포, 안동포), 명주, 모시, 목면 등의 재배, 실내기, 베짜기, 그리고 의생활의 면모를 전시

□ 농가의 대외교류와 경제

- 농촌생활과 장날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명
 -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짐장수, 방물장수나 이따금씩 찾아오는 애기꾼, 유랑광대, 환쟁이 등의 예인들도 농촌의 삶을 다채롭게 조명
 - 이 밖에 조선시대의 조세, 부역 제도에 대한 접근도 필요

□ 농촌 수공업

- 짚풀공예, 실천공예, 나무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등 농가 자체 사용품이나 판매용 공예품에 관하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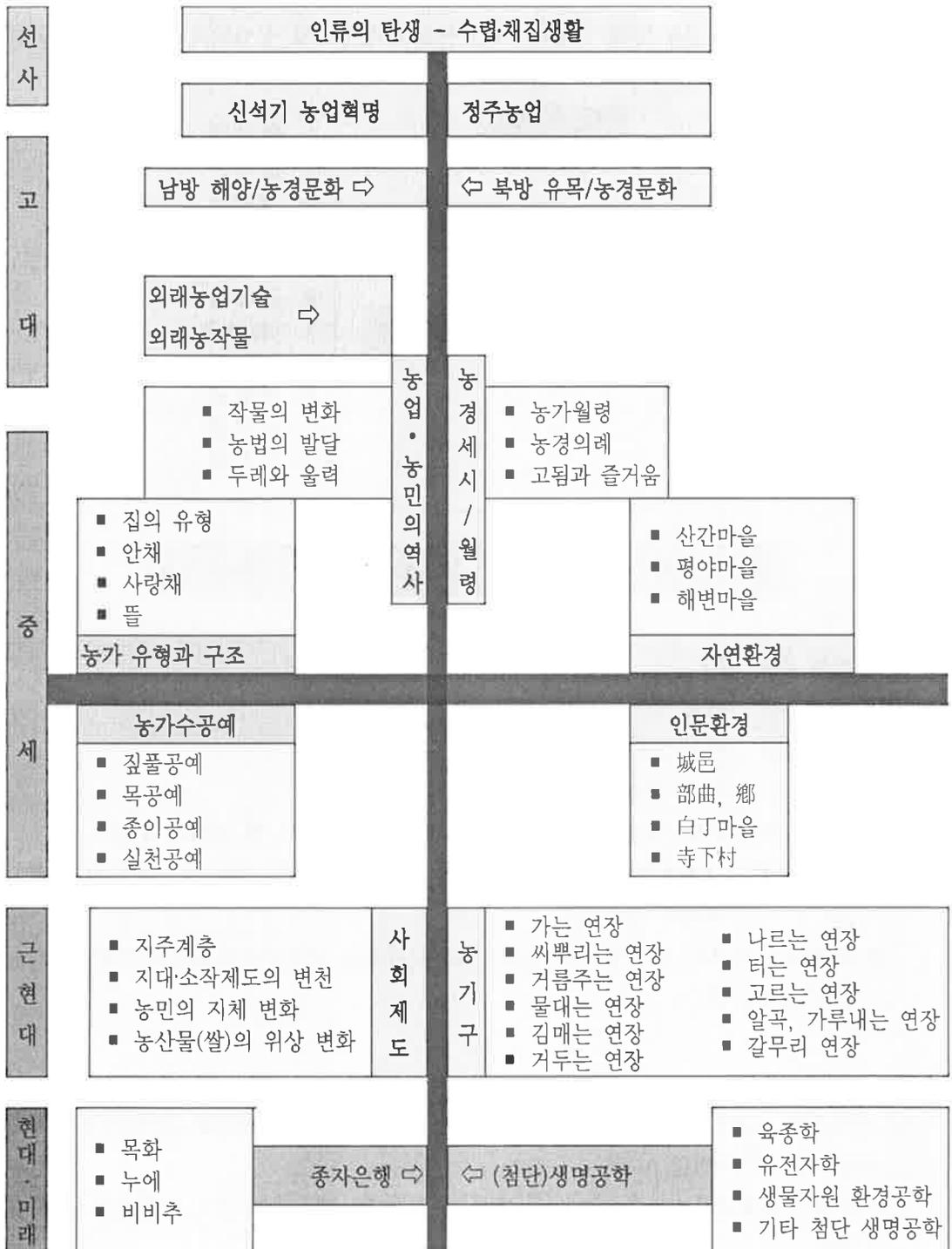
□ 축 산

- 농촌의 가축 기르기와 양봉에 대하여 전시

나. 한국 농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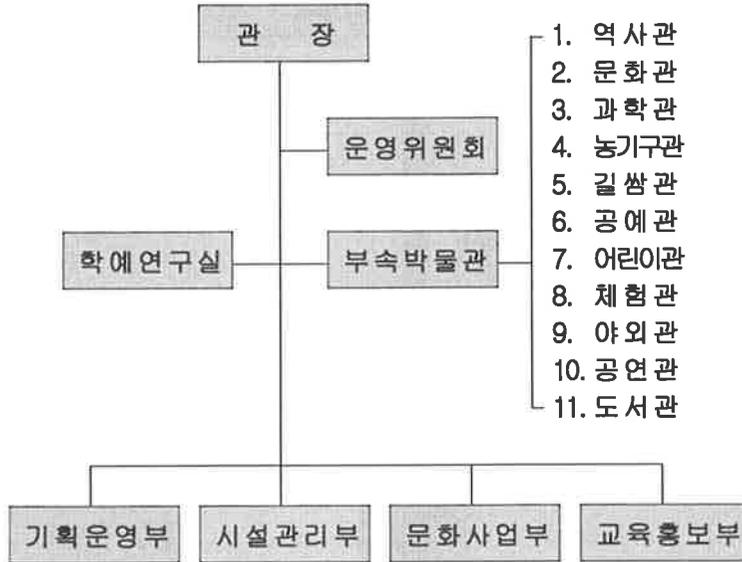
- 한국 농업의 기원과 전개, 고조선시대 이래의 조세제도 등 다른 나라와 비교, 농본의 실체와 역대 왕조의 농업정책, 제도, 기술에 대해 전시하고, 고대~현대 농민의 신분 변화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

<한국 농업사 개념도>



4. 조 직

□ 한국농업박물관은 정부 부속 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 각 부서의 주요 업무 >

- 학예연구실 : 유물 수집· 전시· 보존· 조사· 연구 등
- 기획운영부 : 행정 지원· 인사 관리· 경리 등
- 시설관리부 : 설비· 조경· 차량 운영 등
- 문화사업부 : 숙박· 식당· 매점· 농산물 판매·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
- 교육홍보부 : 사회교육· 홍보물 출판· 신문 및 학술지발간· 국제교류· 후원회· 자원 봉사자 운용 등

※ 박물관의 조직이나 각 부서의 업무는 국내 사례로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을 참고

< 후 원 회 >

- 박물관의 중요한 수입원은 Membership과 회비이며, 각 박물관은 회원 자격을 주는 대신 일정한 회비를 납부
 -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전 예산의 14.4%를, 넬슨 아트킨즈 미술관은 16.7%를 충당

- 이 회원제도는 각 개인이 지역사회 박물관 사업에 동참케 하는 동시에, 재정적 도움도 주는 효과가 있음

〈회비 납부에 따른 등급〉

- 개인 회원·가족회원·기부회원
- 동의(同意)회원- 유지(維持)회원(Sustaining member)
- 법인회원(Associate member) 종신회원(Life member)
- 원조회원(Benefactor) 보호회원(Patron)
- 특별회원(Fellow)

- 고액의 회비는 기금으로 적립하며, 전시품 기증으로 회원자격 부여하며 이들은 박물관 행사나 특별전시회, 강연회, 음악회 등에 초대 받으며 박물관 시설도 이용
- 이 밖에 후원자 그룹을 엮어서 사회적 지위나 명망,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 미국에서는 개인·법인·단체가 박물관에 후원금을 내면, 이에 걸 맞는 세제상의 혜택 부여
 - 우리나라 후원회는 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조직은 박물관 수입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해서도 박물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V. 결 론

- 과업의 목적
- 이 시기에 국립 농업박물관의 건립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한 검토
- 국내외의 유사박물관 사례를 조사하여 앞으로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
- 국립 농업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구상 마련
 - ※ 국립 농업박물관의 명칭은 「한국농업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

1. 한국농업박물관의 건립 필요성

1) 역사적 측면

- 농업이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고 모든 생산, 소비활동의 중심이었는데도 현대 사회는 이를 망각하고 애써 무시함
- 우리 민족문화의 바탕에는 농업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문화에 뿌리 둔 여러 문화 현상이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양식으로 이어짐 -올바른 현대 한국인의 삶을 모색할 기틀
- 그러나 농업문화의 현실은 매우 참담함
 - 5, 60년 동안 공업화를 목표로 지속되어 온 농업 홀대 정책은 농촌 경제를 피폐하게 하였음
 - 농업문화 전반의 고사 현상은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쌓아온 슬기로운 농업기술 멸실로 이어짐
 -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꽃피운 품앗이, 풍물, 두레와 세련된 세시풍속 등 우리 겨레가 수천 년 동안 갖고 닦아온 아름답고 행복한 문화보배들을 빨리 버려야 할 과거의 잔재 짚으므로나 여기게 만듦
-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하여야 하는 농업문화유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음
 - 옛 농촌문화를 알고 있는 80대의 농민들은 후계자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음
 - 급속한 농촌 고령화로 옛 농법 등 역사적 지식 보전을 위한 박물관 추진이 시급한 상황
- 농업문화 전반을 연구하고 알리는 것은 국립 한국농업박물관의 역할

2) 학술적 측면

- 급속한 공업화로 농촌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농경문화가 많이 사라진 시점에서 일부에서나마 농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김

- 전문 농업박물관과 농기구 등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대학박물관이 늘어남
-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농기구를 단순 수집하여 진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농업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시의 수준 까지 오르지 못하는 못함
- 농업사 연구는 역사학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하며, 이 분야의 연구조직이나 지원 체제도 없음
-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농업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이 농업과 농업문화의 가치를 마음대로 재단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음
- 한국농업박물관은 농업문화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며 한국농업사 연구의 중심역할을 해 나가야 함

3) 사회적 측면

- 오늘날 한국 농업의 현실은 제조업 등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산업에 밀려 쇠락의 길을 가고 있음
- 특히 일부 특용작물을 제외하고는 쌀농사를 비롯해 생존을 위한 주, 부식 농업조차 외국의 자본집약적 규모의 농업에 희생당할 위험에 처해있음
- 근대화의 기치를 내 건 이래 공업화를 위한 희생물로 고사의 길을 걸어온 농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정책은 비농업계가 농업계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기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는 인식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애써온 농민들은 농업의 위상에 대한 계속된 평가 절하와, 생존수단 자체를 빼앗기는 이중고에 마음도 몸도 모두 지친 상태에 이르렀음
-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간다면 한국 농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고유문화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말 것임
- 한국농업박물관은 한국 농업의 정체성을 살리고, 끊임없는 희생으로 민족의 젖줄을 대온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일으켜야 함
- 박물관과 함께 한국농업의 발전을 이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기구, 조직이 함께 들어서서 농업계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기능을 해야 함
- 이는 한·미 FTA, DDA 등 개방화로 위축되고 있는 농업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국농업박물관은 FTA로 인한 농업계·비농업계간 갈등 해소와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 한국농업박물관을 농업의 역사적 위상과 현실적 기여, 그리고 현대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해야 함

- 농업과 농업문화에 대한 인식은 비 농업계뿐만 아니라 농업계 자체에서조차 충분히 높지 않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의 장이 되어야 함
- 농업의 위축과 지나친 기업화는 국토를 훼손하고 폐허화하는 큰 요인
- 매년 4mm씩 깎여나가고 있는 우리 땅을 보존하는 방법은 농업
- 한국농업박물관은 일개 박물관에 그치지 않고 민속촌 규모의 야외전시장, 첨단 농업과 학 시험전시장, 그리고 관광과 연계된 시설이 들어서는 종합공원으로 조성
 - 외국 귀빈이나 관광객에게 한국농업 및 한국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장소
 - 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경제 진흥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능 부여
 - 그동안 불가능했던 북쪽의 농업자료를도 포괄하여 남북한 농업의 동질성을 밝히는, 통일에 대비한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함

2. 국내외 유사 사례

1) 국내 사례

- 모두 223개의 국내 박물관 중 전문 농업박물관 7곳을 포함하여 농업과 관련되거나, 농경유물을 갖춘 18개 박물관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 실시
 - 한국농업박물관 건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그리고 사회교육활동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중점 조사
 - 이들 박물관은 대개 농기구를 중심으로 일년 농사의 과정, 농촌생활의 여러 모습, 그리고 농업의 역사를 전시주제로 삼고, 실물전시와 디오라마전시 및 영상전시 및 첨단 전시기법들을 활용
 - 그러나 소장 자료나 연구기능 면에서 이 중 어느 곳도 한국 농업문화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

2) 국외사례

- 국외 사례 조사는 쌀농사 지역인 일본, 중국, 베트남의 박물관들과 덴마크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 중국은 중국농업박물관을 1986년에 농무부 산하 국가급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북경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24개 지역 민속박물관에서 농업관련 전시를 하고 있음
- 일본은 따로 농업박물관을 세우지 않았으나 국립 민족학박물관 및 국립 역사민속박물관

관에서 자국의 농업문화를 연구, 전시하고 있으며, 각 현마다 향토사료관을 짓고 이곳에서 농업문화를 다루고 있음

- 서구에서는 규모를 갖춘 농업박물관을 찾기 힘들지만 대규모 야외박물관에서 농촌 살림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음

3. 한국농업박물관의 기본 구상

1) 성 격

가. 농민문화 중심의 박물관

- 박물관은 기원전 고대에서부터 정복자가 권위의 상징으로 피정복지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자랑삼아 보여주려고 한데서 출발
 - 그 전통은 고급 미술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음
- 현대 박물관에서는 점차 역사의 실질적 담당자인 서민의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음
- 한국농업박물관은 농민문화 중심의 박물관이 되어야 하며, 농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와 그 결과의 체계적 정리·보존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이는 농촌 문화의 복원과 전통 문화의 보존, 그리고 미래를 위한 농촌 문화 건설에 바탕이 될 것임
-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 농업 문화의 유입 전파 관계를 비교 연구하며, 자료도 교환

나. 농업문화 체험의 박물관

- 농촌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 가옥과 마을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 함경북도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평야·산간·해안 지대의 가옥을 알맞은 지형에 세우거나 옮기고 생활문화 전반을 재현
 - 이들 가옥에는 방문자들이 하루 이를 머물면서, 과거의 농촌 및 산촌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
 - 일상생활, 음식, 경작에서부터 세시풍속과 의례에 이르기 까지 농촌문화의 모든 면을 체험

다. 농업문화 교육장으로서의 박물관

- 오늘날의 박물관은 그 기능을 사회 교육에 집중시키는 추세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성이 넘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탈바꿈
- 한국농업박물관이 사회교육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 농업 교육과 강좌 : 농업인, 농업전공 학생, 농업관계 종사자, 교사, 주말 농장 가족, 일반인, 각급 학생 대상
 - 내외국인을 위한 전통공예교실 : 짚풀공예,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
 - 세시풍속 놀이마당
 - 텃밭 체험(곡물의 한해살이)
 - 찾아가는 농업민속박물관 운영
 - 장애인을 위한 교육
 - 풍물, 탈춤 체험과 교육

라. 관광 명소로서의 박물관

- 관람객에게 유물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농촌 문화를 체험하면서 즐기고, 또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서 현대의 삶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 제공
-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야 함
 - 숙박 체험 : 너와집·귀틀집을 비롯한 대표적인 산간 가옥을 옮기거나 옛 법식대로 짓고 어린이를 비롯한 숙박객이 전기가 없는 세상을 체험하면서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먹는 체험
 - 학생야영장 설치 : 청소년들이 천막에서 자면서, 박물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의 여름살이 체험
 - 명품 농산품과 공예품 생산 판매 : 법도대로 생산하여 명품으로 인정받을 상품

2) 구 성

- 박물관의 전시 구성을 분야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특징 있는 전시, 운영계획아래 새로운 개념의 특별한 박물관 건립
 - 역사관 /문화관 /과학관 /농기구관 /길쌈관 /공예관 /어린이관 /체험관 /야외관 /공연관 /도서관

3) 전시 구상

- 한국 농업의 역사성, 지역성 및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시가 되어야 함

- 그러나 이는 한국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
- 전시는 몇 개 주제를 세우고, 그에 딸린 부주제를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계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개
- 한국농업박물관은 성격상 큰 규모의 전시실과 긴 관람동선이 필요
 - 적정 관람시간을 2시간, 1일 적정 관람객을 1만 명 정도로 설정
 - 전시 동선상의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주고, 곳곳에 안락한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즐거운 관람이 되도록 배려

가) 주제

① 제1 주제 : 농경세시와 농민의 삶

- 농경세시를 통해서 한국 농민과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시를 관통하는 제1주제를 농경세시로 하고, 세부 접근이 필요한 부 주제들을 그 흐름 주변에 배치하여 전시순로를 형성
 - 조선시대의 농경세시는 농사를 영위하는 지식의 축적이자 삶의 기본 틀이었음
 - 왕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한해살이가 농경세시에 의거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한국 고유문화의 근저를 이루었음
 - 실내전시는 이러한 한해 12달의 삶을 마치 백두대간과 같은 흐름으로 풀어가며 필요한 곳에 부 주제들을 배치하여 그 전모를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전시방법은 역동적인 입체전시와 다양한 패널전시, 그리고 풍부한 실물자료 전시가 교차하며 긴장과 몰입과 편안함이 교직(交織)되도록 함

② 제2주제 : 한국 기층문화의 이해

- 내외국 관람객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문화의 총체적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기층문화의 여러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함
- 의식주, 통과 의례와 신앙, 음악, 미술, 전통의료(특히 민간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주제로 독립하여 취급

③ 제3주제 : 한국농업사

- 한국 농업의 기원과 전개
- 고조선시대 이래의 조세제도 등 다른 나라와 비교

- 농본의 실체와 역대 왕조의 농업정책, 농업 제도와 기술에 대해 전시
- 고대~현대 농민의 신분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

나) 부주제

① 농경세사와 농민의 삶

- 한국농경문화의 형성과 전개
- 논농사
- 밭농사
- 산촌과 농경
- 길쌈
- 농촌의 대외교류와 경제
- 어촌과 농경
- 축산
- 농촌 수공업

② 한국 기층문화의 이해

- 의식주 : 복식, 음식, 주거
- 통과례와 신앙 : 기자, 돌과 관혼상제, 국가신앙, 마을신앙, 가정신앙, 무교
- 음악 : 농악, 정악, 풍류, 굿음악
- 미술 : 원시미술, 순수미술
- 놀이와 연희 : 줄다리기, 탈춤놀이, 연날리기, 씨름 외
- 전통 의료 : 한의학, 민간요법, 인삼과 약용식물

〈표〉 전시 주제와 부주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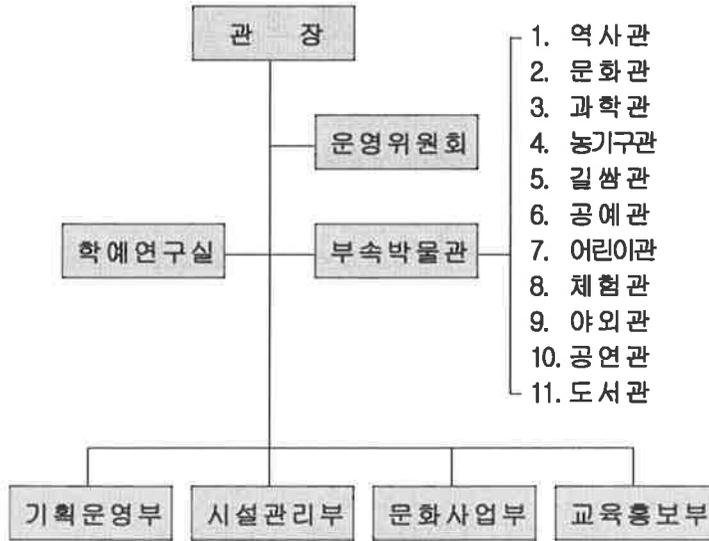
구 분	항 목	내 용	새김
	도입부	한국 농촌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경험하는 정경들(서낭당, 동구나무, 논밭, 개울과 징검다리)	디오라마 가상체험
주제	농경 세시	새해맞이 광경에서 시작하여 12월까지 농촌의 각가지 사 는 모습 전개, 월령과 세시의례, 의식주살림, 통과의례	전시공간을 관통 하는 주제
	한국의 기층문화	의식주, 통과의례와 신앙, 음악, 미술, 놀이와 연희, 전통 의료	별실 전시
	한국농업사		별실 전시
부주제	한국농경문화의 형성과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과 마을생활 • 청동기시대의 농경과 고을생활, 고조선 건국 • 인류 초기의 채집 /사냥 /목축(유목) 	섬 전시
	논농사	수리 관개, 농사연장과 살림, 논농사 민속	
	밭농사	연장과 살림, 밭농사 민속	
	산촌과 농경	산중생활, 화전, 수렵, 채집, 천렵	
	길쌈	삼베(북포, 안동포), 명주, 모시, 목면	
	농촌의 대외 교류와 경제	장날, 조세, 부역 등짐장수, 애기꾼, 유랑광대, 환쟁이	
	어촌과 농경	어촌 정경(살림살이), 배와 연안어업, 어살과 채취업, 염 전과 가공	
	축산	소, 말, 닭, 돼지, 개, 염소	
농촌 수공예	짚풀, 실천, 나무, 철, 종이공예		

4) 조 직

가) 조직 구성

- 한국농업박물관은 정부 부속 기관이나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 기능의 특수성과 학술적 배경의 중요성으로 보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그림〉 조직도 예시



■ 각 부서의 주요 업무

- 학예연구실 : 유물 수집· 전시· 보존· 조사· 연구 등
- 기획운영부 : 행정 지원· 인사 관리· 정리 등
- 시설관리부 : 설비·조경·차량 운영 등
- 문화사업부 : 숙박·식당·매점·농산물 판매·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
- 교육홍보부 : 사회교육·홍보물 출판·신문 및 학술지발간·국제교류·후원회·자원 봉사자 운용 등

나) 박물관 후원회 조성

- 외국 중요 박물관은 멤버십과 회비가 중요한 수입원
 -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은 후원회 회비로 전 예산의 15% 정도를 충당
- 박물관 회원제도는 일반 개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박물관 사업에 동참케 하는 동시에, 재정적 도움을 받는 효과
 - 사회적 지위나 명망,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을 후원자 그룹을 엮어서 재정 지원 유도
 - 미국에서는 박물관에 후원금을 내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 후원회는 재정적 수입뿐 아니라, 자원봉사제도의 활용으로도 큰 도움

4. 맺음말

- 우리 농업은 단순한 생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밑바탕이며 국토의 훼손을 막는 합리적인 수단이기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
- 한국농업의 침체는 농업 자체의 가치가 저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
- 그 때문에 우리 농민이 어렵사리 새로운 길을 마련하더라도 번번이 새로운 장애에 가로막히곤 해 왔음
-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민의 위상 자체가 심각한 훼손을 당하여 참으로 가련한 지경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길은 정책적 배려에 의존하기보다 농업인 자신이 자긍심과 의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
- 한국농업박물관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농업과 농업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농업인의 힘을 북돋고, 나아가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을 가진 방안
-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워야 할 과업

VI. 연구결과 활용 및 조치계획

- 가칭 “국립농업박물관”의 명칭, 성격, 운영시스템 등 설립·운영 기본계획수립에 참고
- 국립농업박물관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관련 법·제도 및 추진 단계별 주요 과제 검토 시 활용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업박물관 건립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건립 필요성 및 사례 중심-

차 례

I. 한국농업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1
1. 위기를 맞은 우리 농경문화	3
2. 농업문화 부재의 한국 박물관들	4
3. 새 박물관 건립의 필연성	5
4. 통일에 대비하는 박물관	6
II.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9
② 국내 사례	
1. 농업박물관	12
2. 영산호 관광 농업박물관	16
3. 한국민속촌	22
4. 국립민속박물관	28
5. 온양민속박물관	50
6. 광주시립민속박물관	54
7. 국립중앙박물관	59
8. 제주민속촌박물관	71
9.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	78
10. 동진 수리 민속박물관	83
11. 안동민속박물관	84
12.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85
13. 관동대학교 박물관	88

14. 명지대학교 박물관	90
15. 벽골제수리민속 유물전시관	91
16. 경기대학교 박물관	93
17. 농촌진흥청 부속 농업과학관	94
18. 농촌진흥청 부속 농업기계역사관·잡사과학박물관	95
19. 경남 농업 기술원 부속 농경문화관	96

㉓ 국외 사례

■ 일본	97
1. 국립민족학 박물관	97
2. 국립역사민속 박물관	101
3. 오사카역사 박물관	105
4. 비와코 박물관	106
■ 중국	108
1. 중국농업박물관	108
2. 북경민속박물관	109
3. 운남민속박물관	110
4. 주요 민속박물관 일람표	111
■ 기타	113
1.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113
2. 덴마크 국립박물관	119

III. 한국농업박물관의 기본 구상

1. 성격	125
가. 농민문화 중심의 박물관	125
나. 농업문화 체험의 박물관	129
다. 농업문화 교육장으로서의 박물관	130
라. 관광 명소로서의 박물관	131

2. 구성	132
가. 역사관	132
나. 문화관	133
다. 과학관	133
라. 농기구관	133
마. 길쌈관	133
바. 공예관	133
사. 어린이관	134
아. 체험관	134
자. 야외관	135
차. 공연관	136
카. 도서관	137
3. 전시 구상	137
가. 주제와 부주제	137
나. 한국농업사	140
다. 한국 기층문화의 이해	142
4. 조직	143
가. 각 부서의 주요 업무	143
나. 후원회	144
IV. 결 론	145
1. 한국농업박물관의 건립필요성	147
2. 국내외 유사사례	149
3. 한국농업박물관의 기본구상	150
4. 맺음말	156

I. 한국농업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I. 한국농업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1. 위기를 맞은 우리 농경문화

우리 겨레는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한 이후 수천 년 동안, 농업을 생존의 바탕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농업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젖줄이었으며 또한 생명줄이었던 것이다. 옛 분네들은 서기전 4~5천년인 신석기시대부터 이미 서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조·기장·피·보리 따위의 밭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서기전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청동기시대에는 대동강·한강·금강 유역에서 벼를 심어 먹었다. 유목을 생업으로 삼았던 우리 조상들은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내려온 뒤, 생존의 바탕을 농업에서 찾은 것이다. 이로써 떠돌이 생활은 불박이 생활로 바뀌었으며, 그 결과 이상적인 새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꿈이 변한 아내와 혼인해서 단군을 낳았고, 그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弘益人間)」 고조선을 세웠다는 신화는 바로 이를 가리킨다. 유목의 부족장인 환웅이 농경 사회를 상징하는 여인과 결합함으로써, 이 땅에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융합되어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가 꽃핀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이 터전에서 대대로 번영을 누려왔다. 그것은 오로지 생업을 사냥과 채집에서 농경으로 바꾼 덕분이었다. 예부터 일러온 “농사짓는 일이 하늘 아래 으뜸가는 업(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도 이에서 나왔다. 따라서 우리 문화는 농업문화의 바탕에서 성장해왔던 것이다.

이처럼 첫 손에 꼽혔던 농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서 점점 시들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존폐의 기로에 서고 말았다. 공업을 일으키기 위한 농업 확대 정책, 그에 따른 농촌 인구의 감소, 영세한 경영 규모, 외국 농산물의 대량 유입 등이 목을 켜 결과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농촌이 텅 비어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인구의 80퍼센트를 농민이 차지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반전되어, 도시 인구가 90퍼센트까지 늘어났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년층만 집을 지키고 있다. 한 농촌 마을에서 60세 이하의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농업의 붕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서구화한 점이다. 저들은 얼굴만 한국인일 뿐, 말이나 행동, 사고방식과 품성 등은 외국인 그대로이다. 입는 옷과 먹는 음식, 사는 집과 즐기는 음악 따위가 모두 서양의 것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들은 매일 매일 서구 문화를 뒤쫓아 가기에 여념이 없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조상이 가꾸어온 전통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결과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전통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가고 있으며, 농촌문화 또한 사멸의 위기를 맞았

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젊은이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농촌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어서, 대대로 물려줄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뒷날 후손들의 준엄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농업박물관 건립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도 적절한 대책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2. 농업문화 부재의 한국 박물관들

수천 년 동안 찬란한 농업문화를 가꾸어온 우리가 이제껏 농업박물관을 세우지 않은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신라의 금관이나 고려의 청자 그리고 조선의 백자 같은 귀족 취향의 값비싼 물품이라야 귀중한 보물이라는 우리네의 얇고 천박한 가치관 때문이다. 지배자의 문화와 상류층의 문화는 하늘처럼 떠 받들어오면서도, 겨레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던 농민의 문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찌 눈에 보이는 고미술품만이 보물인가? 바쁠 때 품을 서로 주고받는 품앗이, 고된 노동을 덜어주는 풍물, 힘을 모아 농사를 짓는 두레, 쟁기를 부리는 재간, 세련된 세시풍속들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보배 중의 보배이다. 우리 옛 분네들은 이러한 문화를 통해 노동의 고달픔을 덜고, 이웃과 도타운 정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누려 왔던 것이다. 금관이나 청자나 백자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만의 이러한 농촌 문화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 찾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아쉽게도 이미 사라져 버렸다. 옛 농법은 물론이고 쟁기를 비롯한 중요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조차도 찾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대학생 가운데에도 맷돌이나 지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더구나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눈에서 자라는 벼를 파인 줄 알고 있다.

국내에 220여 개의 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이 있으나, 대학박물관을 제외한 100개소 가운데 49개소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지역에 분포한다. 그나마 이들의 대부분은 과거 귀족 문화에 중심을 둔 고고·미술사 중심의 박물관이다. 겨레의 생존을 짊어지고 온 농민을 위한 박물관은 단 두 곳뿐이다. 농협에서 세운 농업박물관과 전라남도에서 건립한 영산호 관광 농업박물관이다. 그러나 이들도 농기구 전시에 치중하고 있으며, 농업문화를 연구하여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펴지 못하고 있다. 농업박물관은 야외전시장에 없는데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우리 농업문화의 극히 일부분만을 전시하였다. 더구나 3개 층의 전시실 가운데 1개 층을 농협 홍보관으로 꾸며서 '농협 박물관'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또 영산호 관광 농업 박물관은 영산강에 댐을 지으면서 수몰되는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이름 그대로 영산강 유역의 농업 문화를 관광객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특정 지역(전라남도)의 일부 농업문화를 전시 보존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3. 새 박물관 건립의 필연성

일부 언론에서 다른 나라에 농업 문화 중심의 박물관이 없다고 하나, 내용을 잘 모르는 데에서 나온 오해이다. 우선 중국만 하더라도 북경 시내 천안문 광장 부근에 일찍부터 대규모의 농업 박물관을 세웠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내는 학술 보고서는 세계 고대 문화 및 고대 농업사 연구자에게 중요한 자료 구실을 해 왔다. 일본은 어떠한가? 비록 국가에서 세운 대규모의 농업박물관은 없지만, 농업 관련 고문서와 각종 귀중 자료는 가는 곳마다 산처럼 쌓여 있다. 현(縣)마다 갖춘 대규모 민속박물관에서 농업문화를 전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마을에도 향토자료관이 있어서 전통적인 농업 문화를 고스란히 계승·전승해 오는 것이다. 예컨대 인구가 4만 명에도 못 미치는 대마도의 경우, 향토자료관이 15개소에 이른다. 마을마다 있는 셈이다.

어떤 이는 유럽을 보기로 들지만, 이 또한 내용을 모르는 소리이다. 유럽의 어떤 국가도 우리처럼 수천 년 동안 오로지 농업 하나에 매달려온 나라는 없다. 그들은 거친 자연환경과 척박하고 좁은 농지 때문에 일찍부터 상업과 교역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일찍부터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갖은 풍요를 다 누렸다. 그들에게 있어 농업은 처음부터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낙후 산업에 지나지 않았다. 또 식민지 덕분에 자국 인력을 농업 생산에 투입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농업 박물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이다. 설사 외국에 유사한 박물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어째서 불가한지 묻고 싶다. 세계에 유례가 드문 독창적 박물관을 세운다면, 우리 농업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이 박물관을 통해서 농업 문화 뿐 아니라, 겨레의 전통문화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 박물관이야말로 세계에 내세울만한 자랑거리의 하나로 떠오를 것이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박물관을 세워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하는 의견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 때라고 생각된다.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정부가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부에서 밀어 닦친 파도가 너무나 거센 탓이다. 어디 그뿐인가? 농산물 개방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도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계속 벌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농민이 겨레의 생명줄을 이끌어온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이러한 자긍심에서 출발할 것이다. 농업이야말로 겨레 문화의 바탕이

요 영구히 이어가야 할 생존 대책이라는 사실을 새로 깨달음으로써, 그들은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느낄 것이다. 나아가 농업박물관을 농업인 교육 및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장으로 이용하며,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면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 박물관에 들어설 농민회관은 전국의 농민을 하나로 묶는 중추적인 구심점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농업 박물관 건립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는 확실한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박물관 건립비용을 단시간에 한꺼번에 쓰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부의 추정대로 500억이 든다면(이것도 농림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추산에 지나지 않지만), 한 해 50억이 들어갈 뿐이다. 이 정도라면 우리 경제 규모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2006년에 과학기술부에서 국립과학관 건립 예산 3,275억 원 가운데, 전시 사업비로만 550억 원을 계상한 것에 견주면 아무 것도 아니다. 더구나 과학박물관이 현재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에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건립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과학관의 건립 타당성이나 시기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과학관은 지어야 하지만, 농업 박물관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과학은 중요하나 농업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발상이야말로 큰 문제이다. 실제로 그들은 농업박물관 건립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곳에 무엇을 담으며,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반론부터 제기하였다. 실제로 앞의 문제들은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계층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확정해가야 할 숙제이다. 반대에 앞서 박물관을 어떻게 지으면, 온 겨레가 고향의 품에 안기는 듯한 평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마음을 터놓고 조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규모, 총사업비, 사업 기간 및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벌인다. 이 밖에 외교 통상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한다. 농업박물관 건립 구상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거니와, 적어도 10여 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4. 통일에 대비하는 박물관

우리네 박물관의 대부분은 북한의 문화유산이 제외되어서, 실상 우리 문화의 반쪽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을 포함해서 한국 농업 문화 전반을 다루는 박물관이 필요하다. 미술이나 예술계와 달리 농업문화는 비록 국토는 갈라진 채 지내왔지만, 문화라는 토양은 하나

었던 것이다. 또 과거의 농업문화를 이끌어왔던 세대는 남북을 통틀어 80대에 이르렀다. 우리의 전통적 농업 문화가 영구히 사라지고 말 위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한의 전통적 농업문화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서도 새 박물관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주민은 반세기 이상 단절되어 오는 동안, 언어는 물론이고 가치관과 세계관도 크게 달라졌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말까지 바뀌어서 남북한 학자들이 우리말 사전을 새로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 박물관은 북한의 농업문화 유산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겨레가 하나라는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통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뒷날의 새로운 세대들은 이 박물관에 와서 보고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박물관 건립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별일만한 통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농업 문화 전반을 보여주고, 조상이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전하고 연구하여, 농업 문화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박물관의 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 ‘국립농업박물관’이 아니라, ‘한국농업박물관’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Ⅱ.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Ⅱ.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 국내 사례

다음 표는 우리나라 각 시도별 박물관 현황이다. 모두 223개소로, 국립 25개, 공립 31개, 사립 87개, 대학 80개소이다.

시	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서	울	60	9	1	27	23
부	산	8		1		7
대	구	5	1		1	3
인	천	3		1	1	1
광	주	5	1	1		3
대	전	10	1	2	3	4
울	산	1				1
경	기	27	2	2	17	6
강	원	15	0	4	7	4
충	청	13	1	2	3	7
충	청	16	3	1	8	4
전	라	10	1	1	2	6
전	라	6	1	2	1	2
경	상	17	1	7	4	5
경	상	17	3	4	7	3
제	주	10	1	2	6	1
계		223	25	31	87	80

자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 내용을 보탠 것이다.

국내의 223개의 박물관 가운데 농업과 관련되거나, 농경 유물을 갖춘 다음 18개의 기관을 골라서 실태를 알아보았다.

1. 농업박물관

농협중앙회에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전문 박물관으로, 1987년 11월에 개관하였다. 한국농업관련 유물과 자료를 보존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한국농업사와 농민문화를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직은 박물관장, 부관장, 학예 연구직(2명)을 비롯하여 5명의 행정직으로 구성되었다. 관장은 농업협동조합의 지도부장이 겸직한다. 경비 및 청소 등의 경사관리는 별도의 용역단이 맡는다.

전시실은 농업 역사관(1층), 농업 생활관(2층), 농협 홍보관(지하 1층)의 셋이다. 각 전시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 역사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발달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청동기 시대 주요 농경유적의 축소모형과 삼국시대의 논 등 각 시대별 농경문화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양하고 풍부한 각종 농경유물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발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초기농경의 시작(신석기시대)
- 2) 정착농경의 시작(청동기시대)
- 3) 농업 생산력의 증대(철기시대)
- 4) 대량 생산 농경의 시대(삼국시대)
- 5) 전통농경의 발달(고려·조선시대)
- 6) 근·현대 농경(근·현대)

나. 농업 생활관

계절별로 논밭의 변화상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대형 논밭을 모형으로 조성하였다. 논을 유리로 덮은 통로 아래에 설치해서 걸어가며 벼의 생육상태는 물론이고 물방개 따위가 노는 모습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이색적이다. 이 밖에 전통적인 농가의 일상과 옛 장터의 모습도 재현하였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1) 논밭의 사계

- 2) 농경의례
- 3) 전통 농가의 삶
- 4) 전통 장터



중 앙 흘



농 기 구 실

다. 사회교육

- 1) 부모님과 함께하는 농경문화 체험교실
 - 일시 : 2006년 1월 10일~12일
 - 장소 : 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
 - 내용 : 쌀 포장지 만들기, 전통 저울로 쌀 무게 달기, 말·되·흙 등의 전통 계량 도구로 쌀 무게 재보기 등, 쌀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높이는 체험교실이다.
 - 인원 : 초등학생과 학부모 150명

- 2) 일반인을 위한 농경문화 교실
 - 일시 : 2006년 1월 19일
 - 장소 : 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
 - 내용 : 교사와 일반인 대상의 농경 역사 강좌, 유적지 답사 및 농산물 유통센터를 돌아본다.
 - 인원 : 일반인 80명

- 3) 농촌 문화 체험
 - 가) 주록리 마을 딸기 체험
 - 일시 : 2006년 5월 2일

- 장소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 내용 : 일반인 대상의 농촌문화 체험 행사이다.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영농 및 농촌체험을 한다.
- 인원 : 부모와 어린이 80명
- 일정
 - 09 : 00 농업박물관 관람
 - 10 : 00 농촌체험 장소로 이동
 - 11 : 30 마을 현황을 듣고 딸기 수확을 체험한다.
 농약을 쓰지 않은 딸기를 맛보고 한 상자씩 가져간다.
 - 12 : 30 농가의 점심을 먹는다.
 - 13 : 30 전통적인 천연염색을 해본다.
 - 14 : 30 인절미를 직접 쳐서 만들어 현장에서 먹는다.
 - 15 : 30 서울로 출발

나) 용달샘 꽃누름 마을

- 일시 : 2006년 6월 8일
-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 내용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문화 체험 행사이다.
- 인원 : 일반인 대상 80명

·일정

- 09 : 00 농업박물관 관람
- 10 : 00 농촌마을로 이동
- 11 : 30 오리방사 체험,
 오리 방사 후 정미소 견학
- 12 : 30 농가의 점심
- 13 : 30 야생화 생태체험 및 우리 야생화 바로알기
- 14 : 00 쫄떡 만들기 체험
- 15 : 00 양초 공예 체험
- 16 : 30 서울로 출발

4) 함께 듣는 박물관 이야기

- 일시 : 방학 중

- 내용 : 학예사와 함께 농업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전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 인원 : 학생 및 일반시민 20명

5) 박물관 교실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놀이문화 체험교실이다.

- 일시 : 8월 16~18일
오전 10시~오후 3시(3회)
- 대상 : 보호자를 동반하는 초등학생
- 인원 : 1회당 50명(25 가족)
- 강사 : 이철수 선생님
- 내용 : 전래 놀이 기구 만들기

· 일정

- 10 : 00~12 : 00 전래 놀이 기구 만들기
- 12 : 30~13 : 30 점심
- 13 : 30~14 : 30 함께 듣는 박물관 이야기
- 14 : 30~15 : 00 영상물 관람

6) 2005년 문화교실 7회 개최

- 가) 개관기념 짚풀 공예 전시회 및 공예 제작 체험(7월 1일~3일)
: 박물관 관람 어린이
- 나) 초등학생 대상 전통 공예 제작 체험(7월 15일)
: 초등학생 70명
- 다) 유치원생 초청 농장 견학 및 박물관 관람(9월 15일)
: 유치원생 40명
- 라) 초등학생 대상 전통 놀이기구 만들기 체험교실(9월 23일~26일)
: 초등학생 160명
- 마) 웰빙 우리 콩 한마당 잔치(10월 20일)
: 초등학생 70명
- 바)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농업 이해 교육 및 박물관 관람(10월 26일)
: 초등학교 교사 80명
- 사) 우리 잡곡으로 만든 「풍년 기원탑」 설치(12월 22일)

7) 2006년 특별전

가) 이색 농기구전(4월 25일~31일)

: 독특한 이름, 용도, 형태의 농기구 50여 점 전시

나) 제주 농경 유물 특별전(7월 3일~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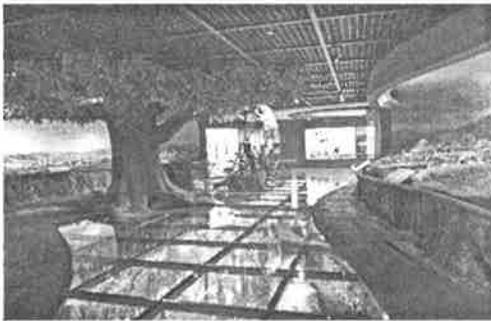
: 제주 농기구 50여 점 전시

다) 농촌사랑 전국 어린이 글그림 전시(8월 3일~31일)

: 농촌사랑 어린이 글그림 잔치 수상작 59점 전시

라) 제15회 농업인 서예대전 전시(9월 1일~30일)

: 농업인 서예대전 수상작 19점 전시



바닥에 꾸민 논 모습



마을 모습

2. 영산호 관광 농업박물관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07
전화	061) 462~2795
부지	9000평
연건평	1250평
개관	1993년

이 박물관은 전라남도 지방의 농업 특성을 살려서, 현대화의 물결 속에 소멸되어가는 전통 농경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여 우리 삶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려는 목적으로 세웠다. 전시는 전통적인 농기구, 농경문화의 발전, 사계절의 농사 전경, 현대의 농업, 옛 농촌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중요 전시 공간은 본관, 농업관, 야외 전시장 등이다.



전경(오른쪽 본관)



농 기 구 실

가. 전 시

본관은 제1·제2·제3 전시실 및 생활 용품실로 이루어졌다.

1) 제1 전시실

선사 및 역사시대의 농경, 남도문화의 형성, 봄과 여름 농사를 보여준다.

선사시대 농경 공간에는 반달돌갈, 돌도끼 따위의 선사시대 농경유물과 농경관련 중요 사실을 알리는 농업연대기를 늘어놓았다. 신석기시대 생활 모습을 보이는 대형 유화와 벼농사의 정착 단계인 청동기시대 농경 모습도 디오라마로 재현하였다.

역사시대 공간에는 우경(牛耕) 및 철제 농구가 보급된 삼국시대, 휴한법에서 벗어나서 연작법으로 넘어가는 고려시대, 이앙법이 퍼지는 조선시대 농경 등 각 시대에 따른 농경 모습을 설명문과 사진 그리고 고농서와 함께 보여준다.

남도문화 형성 공간에는 영산강 유역의 전형적 농촌 마을인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의 100년 전 모습을 모형으로 복원하였다. 이에 관련된 영상물은 남도 농사의 특성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된다. 봄 농사 공간에는 김매기·씨레질·모내기 등 봄 농촌의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하였다. 이 무렵에 쓰는 쟁기·따비·괭이·쇠스랑·장궁·거름통·삼태기·번지 등도 볼거리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에도 실물을 복제한 소와, 농부 차림의 마네킹이 씨레질 하는 모습이 눈을 끈다.

여름 농사 공간에는 김매기·장원질·물대기·윈두막 등 여름 농촌 전경을 펼쳐 놓았다. 이때 쓰는 살포·도롱이·삿갓을 비롯하여, 두레 쓴 장구·북·징·팽과리·상모·고깔 등을 전시하였다. 이밖에 보리타작 모형과 흙통·두레·용두레·맞두레 등 물대는 연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의 호미와 낫도 보인다.

2) 제2 전시실

농산제조 도구를 비롯하여, 주로 가을농사와 겨우살이 기구를 늘어놓았다.

농산 제조도구 공간에는 가마니틀·새끼틀·자리틀·국수틀·기름틀·두부틀·누룩틀을 전시하였다. 가을농사 공간에는 보리 파종과 가을의 농촌 정경을 펼쳐 놓았다. 개상질·홀태질·벼 베기 등의 모습도 모형으로 재현하였다. 농기구는 용도에 따라

터는 연장(나무칼·개상·도리깨·홀태 등),

고르는 연장(부뚜·바람개비·채·키·드림부채·풍구 등),

말리는 연장(도래방석·명석·고무래 등),

알곡 및 가루내는 연장(절구·확·맷돌·매통·풀매·토매 등)을 전시하였다.

이 공간 맞은편에는 주루막·달구지·바구니·지게·망태기·쟁기지게·어린이지게·광주리·거지게·발채·다루개·물지게·또아리·길마·옹구등 나르는 연장을 설명문 및 사진과 함께 전시하였다. 겨우살이 공간에는 겨울 농촌풍경을 모형으로 복원하고, 씨앗통·뒤옹박·떡서리·독뒤주·감자통·김칫독·채독·중태·떡둥구미·계란망태·등 갈무리 도구를 놓았다. 외다리방아와 저울·흙·되·말 등 도량형기, 물레·씨아·두부통·화로·등잔·다리미·도시락 떡살·인두·홍두깨 등 생활용품도 눈에 띈다. 새끼 꼬는 모습의 마네킹이 있는 사랑방에는 가마니틀·신틀·빛자루 만드는 틀을 진열하였다.

3) 제3 전시실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 과정을 보인다.

개발 전의 영산강 모습, 영산강 5단계 개발사업, 완성된 영산강 개발 모형도, 개발후의 영산강유역, 영산강 하구둑 공사모형도, 담양·장성·광주·나주호 댐 공사, 물대기 및 수문의 발전 모형도 등의 코너가 있다. 특히 물바가지·물흙·맛두레·두레·물풍구·용두레·무자위·양수기 등에서 수문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이는 모형 전시는 특이하다.

1999년 2월에 마련된 생활용품전시실에는 민속자료 300여 점이 있다. 특별전이 열리는 기간 외에는 언제나 전시한다. 전시품은 등잔·화로·요강·다듬이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에서부터 집 안팎 살림도구, 어로, 사냥, 오락, 전통혼례, 학습용구 등이다. 이들 가운데 버선코를 세우는 버선 코잡이, 글씨 연습을 한 분판, 갓집 등이 돋보인다.

4) 농업관

농업관은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과 현황을 이해하고, 과학영농을 위한 정보제공 및 농업 장래에 대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하였다.

1층에는 전라남도 각 시·군의 특산품, 전라남도의 농업, 벼농사, 밭농사, 채소, 특수작물, 과수, 전라남도의 세계화 전략품목, 양잠, 농업 유전공학, 축산, 농산물 가공유통 등을 모형

또는 판넬로 전시하였다. 이 밖에 현대 영농기구 및 시설원에 자재, 관수자재, 피복자재, 육묘 자재 등을 전시한 코너도 있다.

2층에는 과수·채소·논·밭작물 등에 생기는 병충해 표본 및 방제 약제, 과학 영농에 관한 책자 등을 늘어놓았다.

5) 야외전시장

약 9천 평의 부지에 자연학습장과 텃밭, 전통약초 전시포, 조류 및 토끼 사육장 등을 배치하였다. 박물관 입구에 돌장승(실물 복제) 20기를 좌우에 세웠으며, 목장승·허수아비·숫대·남근석·돌탑·원두막·물레방아·통방아·디딜방아·나라두지·모정·장독·절구·맷돌·확 등을 곳곳에 늘어놓았다. 또 체험관에서는 그네·투호·연자매·지게·널뛰기·들돌·웃놀이·줄다리기 등을 즐길 수 있다.

300평의 자연학습장에는 발벼·보리·밀·유채·목과·매밀·팥·콩·녹두·조·고구마 등 농작물 20여 가지를 심었다. 이 밖에 인동초와 별개미취를 비롯한 야생화 21종 1천여 그루, 장미·백합·맨드라미·봉선화·백일홍·분꽃·채송화 등 일반 꽃 17종 1천여 그루, 배추·무·생강·파 부추 등 채소류를 재배한다. 이 공간은 배사과자두·포도·복숭아·유자나무 등 각종 과수와 갖가지 채소를 기르는 40여 평 규모의 텃밭 옆에 마련되어서, 자연을 익히기에 알맞다.

온실 앞에 자리한 70평 규모의 전통약초 전시포에는 우리 조상들이 먹거나 약으로 쓴 토종 식물 50종 1천여 본을 심었다. 온실 뒤편에는 희귀 조류 및 토끼 사육장이 있다. 10여 평 규모의 조류 사육장에는 공작·원앙·앵무·금계·백한·백자보·바둑자보·염주비둘기 등 10여 종 30여 마리를 먹인다. 이 곳 옆 언덕에 마련한 토끼 사육장에서는 흰색·검은색·회색·회백색 등 갖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토끼 100여 마리를 놓아기른다.

나. 사회교육

1) 설·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체험

- 목적 : 명절분위기 조성과 놀이문화 체험 및 추억거리 제공
- 기간 : 2006년 1월 28일~2월 12일(휴관일 제외 16일간)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농경문화 체험관
- 내용 : 웃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13개 종목
- 대상 : 어린이, 학생, 일반 관람객
- 예산 : 600천원

2) 벼의 한 살이 체험

- 목적 : 전통농경 재현 및 학생들에게 관찰학습 기회 제공

- 기간 : 2006년 4월 11일~10월 22일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논(약 45평)
- 내용 : 전통방식에 의한 모내기, 김매기, 수확 등 체험
- 대상 : 어린이, 학생, 일반 관람객
- 예산 : 4,000천원

3) 보리타작 체험

- 목적 : 관람객들에게 옛 농경체험 및 추억거리 제공
- 기간 : 2006년 6월 6일~6월 8일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전통초가, 농경문화 체험관
- 내용 : 보리 베기, 보리타작, 보리 볶아먹기 체험 등
- 대상 : 어린이, 학생, 일반 관람객(학생단체 참여 유도)
- 예산 : 2,000천원(2006년 추경예산 요구)

4) 봉숭아물들이기 체험

- 목적 : 전통 풍습 재현과 옛 문화 이해 및 추억거리 제공
- 기간 : 2006년 8월 1일~8월 20일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모정
- 내용 : 손·발톱에 봉숭아물들이기 체험
- 대상 : 박물관 입장 관람객
- 소요예산 : 2,000천원

5) 개관 13주년 기념 전통혼례 시연

- 목적 : 관람객 볼거리 제공 및 어려운 지역민 돕기
- 기간 : 2006년 9월 24일 10:00~12:00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모정(혼례마당)
- 내용 : 전통 혼례식 및 각종 공연(길놀이, 학춤, 풍물굿 등)
- 사회복지단체 등 추천, 대상자 무료 혼례식
- 대상 : 어려운 미혼 동거부부 1~2쌍
- 예산 : 2,000천원

6) 농촌사랑 학생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 목적 : 농업의 중요성과 옛 농경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간 : 2006년 9월 24일 13:00~16:00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일원
- 내용 : 농촌사랑을 주제로 한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 대상 : 전남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 시상 : 각 부문별 수상자 선정, 상장 및 상품 지급
- 예산 : 5,000천원

7) 한가위 송편 만들기 체험

- 목적 :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전통문화 이해의 장 제공
- 기간 : 2006년 10월 4일~10월 7일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전통초가
- 내용 : 갖가지 송편 만들어 찌떡기
- 대상 : 어린이, 학생, 일반 관람객
- 예산 : 2,000천원

8)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 목적 :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 기간 : 2006년 10월 15일 10:00~15:00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일원
- 내용 :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경연대회)
- 대상 :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
- 예산 : 3,000천원

9) 전통 짚공예품 만들기 체험

- 목적 :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농경체험 기회 및 볼거리 제공
- 기간 : 2006년 10월 26일~10월 28일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농경문화체험관
- 내용 : 짚공예품 전시 및 만들기 시연, 체험지도 등
- 대상 : 어린이, 학생, 일반 관람객
- 예산 : 2,000천원

10) 동지 죽 쑤어먹기 체험

- 목적 : 전통 풍습 재현 및 관람객들에게 추억거리 제공

- 기간 : 2006년 12월 22일 10:00~15:00
- 장소 : 박물관 야외전시장 전통초가
- 내용 : 관람객들이 직접 새알을 빻어 동지팔죽 쑤어먹기
- 대상 : 어린이, 학생, 일반 관람객
- 소요예산 : 2,000천원



몰레방아(왼쪽)와 몰방아간



체 험 관

3. 한국민속촌

한국 민속촌은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학생교육을 위한 현장학습장 조성 및 일반관람객들을 위한 전통문화 소개 등을 목적으로 1974년 10월에 개관되었다. 30여 만 평의 부지에 상하 각 계층과 각 지역의 초가 143채와, 기와집 132채를 재건하였다. 남부·중부·북부 및 도서(島嶼) 지방의 가옥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양반가를 비롯하여 특수 목적의 서원, 관아, 서당, 사찰, 무당의 집 등도 이견하였다.

목기·도기·옹기·농기구·가구 등의 각종 민속자료 2만여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각종 생활 모습과 세시풍속이 재현되어 우리네 전반적인 민속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옛 장터에서 각 지방의 전통적인 음식을 맛보고, 상가에서 각 지방의 토산·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공연장에서는 하루에 두 차례씩 농악, 널뛰기, 외줄타기 등을 보이며, 봄·가을과 명절에는 전통 놀이와 세시풍속, 그리고 관혼상제 등을 재현한다. 또 버들·싸리·죽세공·자수·매듭·한지·직조 등 민속공예의 제작기법을 보이는 점도 특징의 하나이다.

이 밖에 야외에서 보고, 듣고, 배우기 어려운 민속과 민족문화의 정수는 민속관과 박물관·미술관·세계민속관(개관 예정)에서 즐길 수 있다. 또 전시가옥과 마을 공터에서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벼·보리·밀·목화·인삼·고구마·감자·무

· 들깨 따위의 농작물을 옛 방식 그대로 경작하며 파종에서 갈무리까지의 전 과정에 함께 참가할 수 있다. 민속관에는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4대 한 가족이 겪은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민속놀이, 관혼상제 등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전시장 입구



농기구 전시실

다음은 시설 내용이다.

편의시설 지역	정문, 매표소, 분경수석집, 기념품 판매장, 한국관, 특별 전시관, 길목집, 찻집, 농특산물 판매장, 사무실, 고향집, 안내소, 양반장, 방송실
민속경관 지역	연자방아, 도자기·옹기공방, 남부지방 농가(버들공방), 남부지방 소농가 2채, 북부지방 민가, 북부지방 민가(무명 베틀집), 남부지방 대가 2채, 남부지방 중농가(죽기공방), 한약방, 남부지방 농가, 중부지방 농가(명주 베틀집), 금련사, 그네 터, 효자문, 남부지방 농가(점술집), 남부지방 농가(동고리공방), 남부지방 민가 3채, 중부지방 농가 2채, 양반가(전통혼례식장), 중부지방 도회민가, 술도가(양조장), 북부지방 민가(한지공방), 도깨비집, 관아, 내삼문, 물레방아, 중부지방 민가 5채, 제주도 민가, 전통 민속관, 울릉도 민가, 선비집, 충현서원, 박물관, 공연장, 남부지방 민가(서당), 효열각, 대장간, 농기구 전시장, 유기공방, 도자기·옹기판매장, 목기매장, 서낭당, 낙화집, 피향정, 장터
가족공원	패밀리코스타, 바이킹, 유적익스프레스, 회전목마, 회전바구니, 범퍼카, 원더힐, 순환열차, 보트라이더, 시뮬레이터, 피스톨마운틴, 3D입체영상관, 세계민속관, 미술관, 유스호스텔, 컨벤션센터, 사극영상관
장터	공방거리(매듭·자수·혁필·악기·탈·부채·유기·옛·담뱃대) 저자거리(죽공예품·칠기공예품·목공예품·농특산물·한복) 먹거리(순대국밥·된장찌개·칼국수·순두부·장국밥·추어탕·인절미·비빔밥·삼계탕·파전·순대·모듬·도토리묵·굴전·고추전·더덕구이·빈대떡·참쌀 동동주)

가.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세 부 현 황
전 시 시설	전시가옥 270여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별 민가 이건 또는 복원 - 지방별 양반 가옥 이건 또는 복원 - 울릉도 및 제주도 가옥 이건 - 서원건축 복원 전시 - 관아 복원 전시 - 초정 및 와정 이건 또는 복원 - 서낭당 복원 전시
	전통공예품 공방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기공방, 죽기공방, 한지공방, 유기공방, 초류공방, 버들공방, 부채공방, 무명베를공방, 명주베를공방, 짚신공방 - 전통공예품 제작과정 재현
	생활도구 16,000여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기류 4,800여 점 - 도자기류 5,000여 점 - 철류 2,000여 점 - 초류 1,100여 점 - 지류 1,100여 점 - 석류 700여 점 - 농기구류 600여 점 - 기타류 900여 점
	민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전시실에 전통 생활모습 재현 세시풍속 및 관혼상제 중심 전시
	도깨비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설화를 도깨비 작동 모형으로 재현
	전래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내 경작지에 전래작물 약 100여종 식재
	영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장면 모니터링, 방송3사 및 영화 대표작 영상 및 대표작 패널 전시 - 방송3사 사극의 역사를 대표하는 장면과 영상 전시, 대표의상 및 소품, 유명사극 명장면 영상과 포스터 전시 - 융상 체험, 효과음 체험, 폐가 체험, 옥사 체험 등 체험 전시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기념 - 세계의 예술 흐름과 한국의 예술적 관념을 비교하는 공간

구 분	시 설	세 부 현 황
전 시 설	조각공원	- 전통과 현대의 교감 - 이탈리아의 스타치올리, 쿠르즈디에즈, 레오폴드 말레르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 설치 - 김정숙, 민복진, 전리진, 최만린 등 국내 조각계 중진 20여 명의 작품 설치
	박물관	- 국내외 다양한 희귀 유물, 골동품, 예술 작품 전시
	세계민속관	- 5대양 6대주에서 수집한 3000여 점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8개의 전시관으로 구성
	공연장 5개소	- 민속촌 야외 공연장 1개소 500여명 수용 - 가족공원 야외 공연장 3개소 200여명 수용 - 줄타기 공연장 1개소 300여명 수용 - 동문무대 볼케이노 광장 수변무대
고 편 시 설	편의시설	- 의무실, 방송실, 유모차 대여소, 물품 보관소 - 화장실 15개소 - 휴식용 정자 약 30개소 - 관광안내소, 미아보호실, 휠체어 대여소 - 오디오가이드 대여소, 환전소, 고객 불편 처리실, 물품 보관소
	음식점	- 상가지역 한식점 3개 업소 - 전통찻집 2개소 - 장터 식음음식점 12개소 - 매점 8개소
	기념품점	- 특산품 판매장, 도자기판매장, 목기판매장, 민예품 판매장 - 장터 특산품 판매장, 민예품 판매장
가 공 족 원	놀이시설	- 바이킹 외 놀이기구 11종 - 컴퓨터 게임장 2개소 - 눈썰매장 - 유아 물놀이장
	음식점	- 중식당, 한식당, 양식당 - 단체 급식장
유 스 호스텔	숙식시설	- 5개동 541명 수용 - 단체식당 2개소 - 매점 1개소
	교육시설	- 대강당(500명 수용) - 상림옥 산책로 - 예절 교육장, 택견 수련장

나. 연중 행사

구분	행 사 명	기 간	장 소
1	여름나기 민속 체험	2006년 7월 14일~2006년 8월 20일	촌내 전역
2	연꽃 축제	2006년 7월 21일~2006년 8월 20일	양반집 앞
3	2006년 단오 세시풍속 체험	2006년 5월 27일~2006년 5월 31일	촌내 전역
4	2006년 어린이날 특별 행사	2006년 5월 5일~2006년 5월 7일	촌내 전역
5	2006년 야생화 축제	2006년 4월 28일~2006년 5월 14일	촌내 전역
6	정월대보름	2006년 2월 11일~2006년 2월 12일	촌내 전역
7	2006년 구정행사	2006년 1월 28일~2006년 1월 30일	촌내 전역
8	새해맞이 신년행사	2005년 12월 31일~2006년 1월 1일	촌내 전역
9	초가집 이영도 엮고, 궁뎡이도 잡고!	2005년 10월 20일~2005년 11월 6일	촌내 전역
10	가을민속체험 한마당 축제	2005년 10월 8일~2005년 10월 23일	촌내 전역
11	추석맞이 특별행사	2005년 9월 17일~2005년 9월 19일	촌내 전역
12	마상무예 특별공연	2005년 8월 6일~2005년 8월 31일	촌내 전역
13	여름나기 민속체험	2005년 7월 20일~2005년 8월 28일	촌내 전역
14	'세계로 향하는 우리의 향기와 소리' 공연	2005년 4월 17일~2005년 5월 22일	야외 특설 공연장
15	한가위 특별행사	2004년 9월 25일~2004년 9월 29일	촌내 전역
16	여름 농경체험 한마당	2004년 6월 12일~2004년 6월 13일	촌내 전역
17	단오 맞이 특별행사	2004년 6월 19일~2004년 6월 22일	촌내 전역
18	최고의 볼거리 12가지	연중무휴	촌내 전역
19	닥종이 인형전	오전 9시~오후 5시	특별전시관
20	전통 장 담그기 재현 행사	2004년 2월 18일 오후 12시~4시	선비집 및 장독대
21	대보름 특별행사	2004년 2월 1일~2004년 2월 8일	촌내 전역
22	갑신년 설맞이 특별행사	2004년 1월 21일~2004년 1월 25일	공연장 및 촌내
23	겨울 민속놀이 체험행사	2003년 12월 20일~2004년 2월 22일	전시가옥
24	새해맞이 특별행사	2003년 12월 31일~2004년 1월 4일	공연장 등

다. 사회교육

1) 상반기(1월~6월) 주요행사

월 별	세시력(음력)	내 용
1월~3월	신 정	운수대통굿, 지신밧기, 토정비결보기, 민속놀이대회
	설 날	장승제 한마당, 신년 굿, 소원성취 소지 올리기 외
	입 춘	입춘문 써주기 외
	대보름	보름 음식잔치, 달집 태우기
	머슴날	노래기 부적붙이기, 영등대 세우기 외
4월~6월	삼짇날	장 담그기 재현 및 강습 외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 무형문화재 지정 탈춤 공연 외
	어린이날	특별공연, 어린이 민속놀이 경연대회
	(사)한국농악보존협회 주최 농악명인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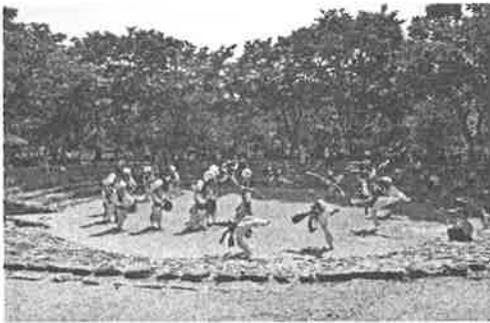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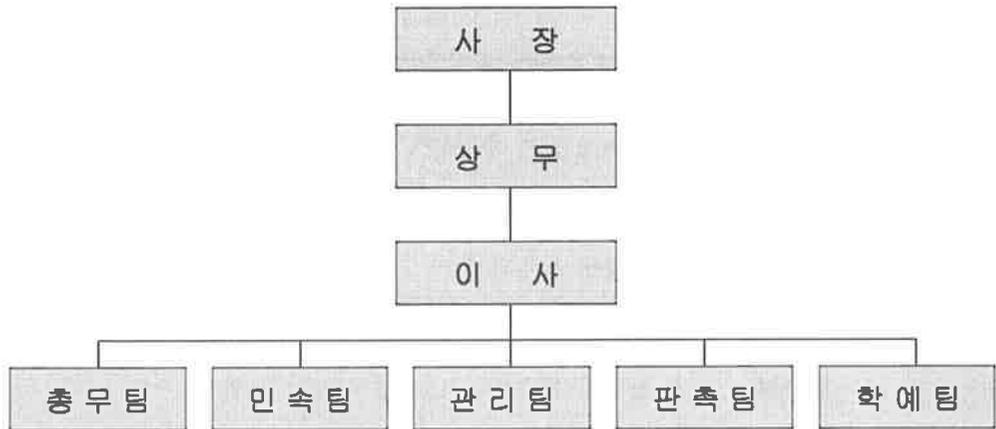
2) 하반기(7월~12월)주요행사

월 별	세시력(음력)	내 용
7월~9월	단 오	그네뛰기 대회, 창포머리감기, 단오떡 해먹기 외
	여름나기 민속체험(여치집 만들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외)	
	칠월칠석	칠월 칠석 맞이 연인 이벤트(방송 행사용)
10월~12월	추 석	한가위 민속잔치
	(사)한국가면극 연구회 주최 전국 청소년 탈춤 경연대회	
	동 지	동지 팔죽 먹기, 동지 부적 나눠주기 외
	겨울 민속놀이 기구 제작 체험 : 팽이, 윷가락, 연, 제기(12월 중순~)	

3) 상설공연행사(11:00, 15:00, 계절별 탄력 운영)

2회 정기 공연 : 호남우도 농악, 널뛰기, 줄타기, 전통혼례식, 마상 무예 공연

라. 조 직



공연장



마을 모습

4. 국립민속박물관

가. 연 혁

우리네 생활문화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은 1946년 5월에 송석하가 앞장서서 개관한 「국립민족박물관」이 처음이다. 이곳에서는 우리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주변민족의 문화도 전시하였다. 그러나 1949년 8월 송석하의 사망과 6·25 동란 등으로, 1950년 12월 국립박물관 「남산분관」으로 격하되었고, 1958년에는 직제마저 사라지는 비운을 만났다.

이후 1966년 10월 경복궁 수정전(99평)에 「한국 민속관」 이 개관되고, 1974년 12월에 국립 민속박물관의 모체가 된 「한국 민속박물관」 이 선보였다. 1992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 13752호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에서 문화관광부 1차 소속으로 개편되었으며, 1993년 2월 18 일 옛 국립중앙박물관 청사로 옮겨왔다.

나. 규 모

공 간	규 모 (평)
부 지	11,770
연 건 평	4,451
본관 (지상 3층)	4,426
전 시 실	3관 15개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전시 면적	2,224
전시 규모	4,300여 점
감 당	138
수 장 고	567
도 서 실	66

다. 전 시

1) 제1 전시관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보이는 전시실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생활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였다. 선사시대의 각종 생활도구와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고구려의 생활 문화·백제의 제사유적·신라의 왕경도·가야의 야철공방·고려의 인쇄 및 청자문화·조선의 한 글창제와 과학기술 등 정신세계와 관련된 자료를 복원, 전시하였다.

2) 제2 전시관

생산민속과 생활문물 등 물질문화와 관련된 생업자료를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늘어놓았다. 우리의 농경문화·수렵·어로·수공업, 그리고 전통사회의 의·식·주생활을 엿볼 수 있다. 생업은 고대의 농기구를 비롯하여 근대 농촌에서 쓴 여러 가지 농기구와 정월 대보름 놀이 등 농경 세시의례를 재현하였다. 또 고대 복식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옷과 장신구류를 포함한 의생활, 각종 가옥 형태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양반 사대부의 안방과 사랑방을 꾸민 주생

활, 부엌세간을 비롯하여 세시음식과 일상음식 등의 식생활을 전시하였다. 수공예로는 칠기 및 화각공예품과 용기가마를 복원하였다.

3) 제3 전시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일생을 체계적으로 전시하였다. 내용물은 아들을 비는 선바위·서당·향교·관례 및 혼례·회갑연·상청·제례상·사당 등이 중심이다. 또 놀이 기구·악기·문방구류·화폐·민화, 그리고 주막·굿청·교통 운반과 관련된 봉수대·조운선 등도 모형으로 꾸몄다.

4) 중앙홀

중앙홀에는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한국의 건축문화 5천 년의 정수가 되는 고 건축물의 모형을 전시하였다.

전시는 종합전시·기획전시·야외전시 등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종합전시는 3관 15실의 상설전시장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한민족생활사, 생활문물과 생산민속, 한국인의 일생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옥내 전시면적은 2천 2백 24평으로 전시유물도 4천 3백여 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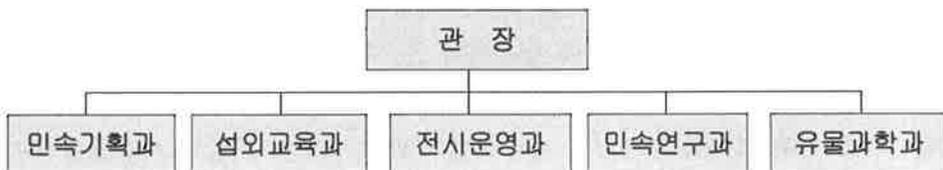
농기구실



디딜방아

라. 조직 및 업무 분장

1) 조 직



2) 업무 분담표

부서별	직급별	정원	현원
민속기획과	학예연구관·별정직 2급 또는 3급 상당	1	1
	서기관	1	1
	행정사무관	2	2
	행정주사	3	2
	행정주사보	2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학예연구사	2	2
	건축서기	1	
	기능직	20	20
	소 계	33	30 잘못된 계산식
섭외교육과	서기관	1	1
	학예연구관	2	2
	학예연구사	5	5
	통역요원(6급상당)	1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1	-
	기능직	1	1
소 계	11	11	
전시운영과	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사	7	6
	기능직	1	1
	소 계	11	10
민속연구과	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사	7	7
	기능직	1	1
	소 계	11	11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사	7	7
	사서주사보	1	1
	기능직	2	2
	소 계	13	13
합 계		79	75

3) 중요 업무

마) 민속기획과

- 민속 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 보안 및 관인관수
-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관리
-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사무
-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조직 및 정원관리
-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감사 및 사정업무
-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
- 차량관리
-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방화관리 등 소방에 관한 사항
- 시설용역업체 및 방재실 지도감독
-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결산
- 계약에 관한 사항
- 세입 및 매수표 관리
- 국유재산의 관리
- 시설대관(전통문화체험학습장 제외)에 관한 사항
-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한 관리
- 사계절 텃밭 관리
- 야생화단지 관리 및 야생화단지 자원봉사자 운영
- 기타 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바) 섭외교육과

- 민속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민속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 문화학교의 운영
- 작은 민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 문화기관과의 교류(학술·연구교류에 관한 사항 제외) 및 협력
- 민속 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 관람안내
- 자원봉사자(야생화단지 자원봉사자 제외) 및 사회봉사자 관리
- 교육관(전통문화 체험학습장 등) 및 교육시설의 운영관리
- 민속기능 실연계획의 수립 및 민속 기능단 및 어린이를 위한 민속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국민속박물관회 운영지원
- 민속 영상실 운영관리
- 기타 민속 문화 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사) 전시운영과

- 국내외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상설 전시실 관리 및 운영
- 특별 전시 및 기획 전시에 관한 사항
- 지방 순회 전시(유물대여 제외)에 관한 사항
- 국내 문화교류 전시에 관한 사항
- 민속 문화재 국외전시 및 외국문화재 국내전시에 관한 사항
- 해외 첨단박물관 전시기법 조사에 관한 사항
- 전시 도안 및 편집 등 의장기획에 관한 사항
- 전시관련 자료의 제작 및 배포
- 국내외 다른 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 민속공방 및 야외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다른 학예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아) 민속연구과

- 전통생활사 조사 및 연구
-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 조사 및 연구
- 전통사회의 세시풍속·민속신앙·각종의례·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 및 연구
-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 조사 및 연구
- 동·서양의 민속 및 역사 민속학의 비교연구
- 위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수집·고증 및 평가분석

- 민속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연구교류
- 전통세시풍속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박물관 실무연수과정 운영
- 학술조사·연구자료 발간 및 배포
- 민속관련 학회 및 민속학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민속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 민속조사연구관련 영상 민속자료 생산

자) 유물과학과

- 민속유물의 구입·수집·보존 및 관리
- 유물수장고 관리
-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유물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민속유물 고증제작 및 조사연구
-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 민속 문화재의 디자인개발과 이에 따른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 민속 문화재 국외 전시 때의 유물관리(보험평가, 유물 대여 등)에 관한 사항
- 민속 문화재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시청각 및 디지털 영상자료 관리
- 전산실 운영
- 자료실 운영

가. 사회교육(2006년도)

1) 닥종이로 만드는 인형 공예 교실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들이 우리 공예문화를 체험한다.

·기간 : 2006. 7. 8(토), 7. 22(토), 7. 29(토), 8. 5(토), 8. 12(토)

10:00~13:00(3시간)

·대상 : 성인 20명 내외

·내용 : 닥종이 인형 이론 강의, 한지염색의 이해 및 인형 만들기

- 강사 : 최옥자 (종이마당 대표)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 참가비 : 30,000원

2)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교육

- 민속·문화사 관련 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이 목적이다.
- 기간 : 2006. 7. 10(월)~7. 14(금)
- 대상 :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과 미술관 학예 연구직 등 대상(20명)
- 주제 : ‘박물관 유물관리’
- 내용 : 유물관리, 보존 과학 등 심화학습 중심으로 진행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 참가비 : 50,000원

3) 관광 종사자교육

-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올바른 문화를 소개·이해시키고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높인다.
- 기간 : 2006. 8. 22(화)~8. 23(수)
- 대상 : 관광종사자(40명)
- 내용 : 전시실과 연계된 민속 문화 교육, 전시 안내방법, 관광종사자의 역할과 의의 등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및 전시실
- 참가비 : 무료

4) 초·중등교원을 위한 민속연수

- 박물관과 학교교육의 연계 및 전통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지도 함양
- 기간 : 제1기(초등 교원) - ‘박물관과 교육’
2006. 7. 31(월)~8. 4(금) (09:30~16:30 5일간)
제2기(중등 교원) - ‘한국의 민화’
2006. 8. 7(월)~8. 11(금) (09:30~16:30 5일간)
- 대상 : 초·중등교원
- 인원 : 초·중등교원 60명(초등 30명, 중등 30명)
- 내용 : 전통문화 및 민속 관련 강좌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및 어린이민속박물관
- 연수비 : 50,000원(교재비 포함)

5) 박물관 친구는 내 친구

어린이 박물관의 주요 관람 대상인 유아들에게 체계적인 박물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소고놀이를 통하여 우리 악기와 장단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야광귀이야기를 통해 설에 관한 세시 풍속을 이해시킨다.

- 기간 : 2006년 1~2월 매주 월요일 11:00~12:00(8회)
- 대상 : 6~7세 유아(1999~2000년생)
- 인원 : 각 회 약 20명 (160명)
- 내용 : 소고놀이, 야광귀이야기
- 참가비 : 무료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 교육 과정

날 짜	이 름	내 용	자 료
1,3주 월요일 (11:00~12:00)	소고놀이	-굿거리 기본 장단 익히기 -산도깨비 노래 배우기 -소고춤추기	소고
2,4주 월요일 (11:00~12:00)	야광귀이야기	-전래동화 야광귀이야기 듣기 -신발 뺏기 놀이	야광귀 응판동화

6) 민요로 배우는 우리장단

초등학생이 우리 민요를 알고, 풍물을 통해 우리 악기와 장단의 특징을 이해한다.

- 기간 : 2006. 2. 8(수)~2. 9(목)
오전 : 09:30~12:30 (2회) / 오후 13:30~16:30(2회)
- 대상 : 1차 - 2. 8(수) 오전 : 4~6학년 / 오후 : 1~3학년
2차 - 2. 9(목) 오전 : 4~6학년 / 오후 : 1~3학년
- 인원 : 각 50명 (200명)
- 내용 : 우리민요 배우기, 풍물배우기
- 참가비 : 3,000원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기 간	구 분	시 간	대 상	참 가 비	장 소
2. 8(수)	오전	09:30~12:30	4~6학년	3,000원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오후	13:30~16:30	1~3학년		
2. 9(목)	오전	09:30~12:30	4~6학년		
	오후	13:30~16:30	1~3학년		

7) 엄마랑 나랑 민속박물관 여행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문화체험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함께 배움으로써,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주제별 학습을 통해 박물관의 전시물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관람한다.

- 기간 : 2006. 1. 17(화)~2006. 1. 26(목) 오후 13:00~16:00 / (6회)
- 1차 : 1. 17(화)~1. 19(목) (3일간)
- 2차 : 1. 24(화)~1. 26(목) (3일간)
- 대상 : 초등학교 현재 1~3학년 학생과 학부모 2인 1팀
- 인원 : 1회당 30팀 60명(180팀 360명)
- 내용 : 의식주 관련 전시실 교육 및 체험 학습
- 참가비 : 1팀당 5,000원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 교육 과정

구 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1차	1.17(화) 13:00~16:00	1차	1.18(수) 13:00~16:00	1차	1.19(목) 13:00~16:00
2차	1.24(화) 13:00~16:00	2차	1.25(수) 13:00~16:00	2차	1.26(목) 13:00~16:00	
학 습 목 표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한 전통적 이해 및 민속 문화 체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시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					
학 습 내 용	- 우리 옷의 특징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입은 조상들의 옷에 대해 알아본다. (이론, 시청각 교육) - 우리 옷의 역사에 관한 전시교육 (2·3관 전시실 관람)		- 절기와 명절에 따른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우리 음식과 떡살 무늬의 의미 (이론, 시청각교육) - 음식과 관련된 전시 교육 (2·3관 전시실 관람)		- 우리나라 집의 특징인 온돌과 마루를 통해 한옥의 특징 이해 - 기후에 따른 다양한 집 모양(이론, 시청각 교육) - 집과 관련된 전시교육 (3관·외부 전시물 관람)	
준비물	-		앞치마		-	

8) 우리문화, 우리숨씨

전통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를 키운다.

- 기간 : 2006. 1. 31(화)~2. 3(금) 10:00~15:00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 인원 : 1회에 100명 (7회 700명)
- 내용 : 연 만들기(내 소원을 연에 담아), 민화액자 만들기(예쁜 민화액자), 종이인형 만들기(애들아, 서당가자), 생활도자기 만들기(흙으로 무엇을 만들까?)
- 재료비 : 각 교육별 3,000원~5,000원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 교육 과정

기간	내용	구분	시간	대상	인원	장소
1. 31(화)	내 소원을 연에 담아	오전	10:00~12:00	4~6학년	100명	어린이 박물관 강의실
		오후	13:00~15:00	1~3학년	100명	
2. 1(수)	예쁜 민화액자	오전	10:00~12:00	4~6학년	100명	
		오후	13:00~15:00	1~3학년	100명	
2. 2(목)	애들아, 서당가자	오전	10:00~13:00	4~6학년	100명	
2. 3(금)	흙으로 무엇을 만들까?	오전	10:00~12:00	4~6학년	100명	
		오후	13:00~15:00	1~3학년	100명	

9) 어린이 민속교실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교과 내용 중, 민속 문화 관련 내용을 박물관 전시물과 영상물, 민속마을 현장체험을 통해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마을의 어른들에게 썰매와 팽이 등 전통 놀이기구를 직접 배우고 만들어서, 겨울철 민속놀이문화를 이해시킨다.

- 기간 : 2006. 1. 11(수)~1. 13(금) (3일간) / (2회)
 - 첫째 날 : 박물관 민속교실 / 10:00~13:00
 - 둘째 날 : 애들아! 민속마을로 놀러가자 / 8:30~18:00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 인원 : 회당 80명 (2회 160명)
- 내용 : 세시풍속과 전통적인 방아의 이해 및 민속마을에서 직접 만들고 놀아보는 전통 놀이
- 참가비 : 10,000원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및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 1리 은행나무마을

· 교육 과정

구분	내 용	
주 제	세시풍속 및 전통놀이와 전통적 방아에 대한 이해	
학 습 내 용	첫째 날	둘째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시풍속 관련 이론 및 영상을 활용한 민속놀이 - 제 2, 3전시실 세시 및 놀이문화 설명 - 박물관 방아관련 전시물 설명 - 모동별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마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놀아보는 썰매와 팽이 - 마을 어른들께 배워보는 짚풀공예 - 민속마을에서 만나보는 방아이야기 - 구황작물이 뭘까? 체험하기
준비물	방한복, 모자, 장갑, 개별간식(음)	

첫째날	시 간	교 육 내 용
박 물 관 민속교실	10:00~10:50	알쏭달쏭! 세시풍속 알아보기(계기별 놀이 맞추기)
		휴식
	11:00~11:40	세시풍속 관련 전시설명
		휴식 및 이동
	12:00~12:50	박물관 마당 방아이야기
		정리
둘째날	시 간	교 육 내 용
애들아! 민속마을로 놀러가자	08:30~09:00	국립민속박물관 앞 집합
	09:00~10:30	은행나무마을로 이동(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1리)
	10:30~12:00	쌩쌩! 썰매 만들기(썰매·팽이/팽이채 만들기)
	12:00~13:00	정말, 시골밥상이예요?
	13:00~14:00	옛날엔 이렇게 놀았대요.(만든 놀잇감으로 놀아보기)
	14:00~14:30	후후~ 불어서 먹는 군고구마
	14:30~15:10	배워보자. 우리 짚풀공예(달걀꾸러미 만들기)
	15:10~15:40	방아를 찧고, 맷돌 돌리고.(디딜방아, 맷돌, 절구질 체험)
	15:40~16:30	쿵떡! 떡메치기(콩가루 묻혀 인절미 만들어 먹기)
	16:30~18:00	서울로 이동

10) 할머니·손녀 공예교실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전통 민속품을 만들면서 가족 화합을 다진다. 또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통공예에 대한 실용성과 우수성을 체험하고, 우리 민속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 기간 : 2006. 1. 5(목)~1. 6(금) 13:00~16:00 / (2회)
- 대상 : 조부모님과 손자·손녀 2인 1팀
- 인원 : 1회당 30팀 60명
- 내용 : - 한지 과반 만들기
 - 전래놀이기구 만들기
 - 풀조리, 제기, 소리통 등
- 재료비 : 각 5,000원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 교육 과정

구분	1. 5 (목)	1. 6 (금)
제목	한지 과반 만들기	재미있는 전래 놀이기구 만들기 - 풀 조리, 제기, 소리통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안다. - 한지공예에 대해 안다. - 한지 공예품인 과반을 만든다. -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한과나 강정을 담았던 과반을 만들어 조상의 지혜를 배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에 복조리를 만든 의미를 알아본다. -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놀이기구를 만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운다. - 바랭이 풀을 이용하여 풀 조리를 만든다. - 한지와 대를 이용하여 제기와 소리통 등 전래 놀이기구를 만든다. - 전래놀이 기구를 만들어 즐기고, 조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듣는다.
재료비	5,000원	5,000원

11)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민속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민속 문화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월 대보름날의 농촌 마을 현장체험을 통한 민속 문화를 이해하고, 사라져가는 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는 바탕을 마련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가족 사이에 화합을 다진다.

- 기간 : 2006. 2. 11(토)~2. 13(월) / 2회(1회 1박 2일)

1차 : 2. 11(토)~2. 12(일)

2차 : 2. 12(일)~2. 13(월)

·대상 : 초등학생 1학년(현재학년 기준) 이상 어린이와 보호자
1팀당 최대 4인(보호자 포함)

·인원 : 1회 80명

·내용 : 정월대보름 풍습과 겨울 농가체험

·참가비 : 1인당 30,000원(숙식비)

·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리

·첫날 체험 과정(1차 팀)

일시	내용	활동	장소
8:20	집합	승차	박물관
8:30	출발	이동시 농경세기(겨울편) 영화 시청 및 정월대보름 풍속교육	버스
11:30	태안 벗가리 마을 도착	도착	담당자
11:30~12:30	점심	점심 공동	관리 체험학습장
12:30~14:00	소원을 담은 연을 날리자	할아버지께 배우는 연 만들기와 연날리기	관리 체험학습장
14:00~15:00	민속마을 속 민속 유물	농촌마을과 어촌마을의 특색과 농기구와 어구 알아보기	관리 체험학습장
15:00~17:00	달집 만들기	달집·혜 만들기·소지에 소원담기	관리 마을 논
17:00~18:00	농가의 저녁	저녁식사(공동) 및 방배정	관리 체험학습장
18:00~19:00	우리 가족 소개하기	가족소개하기	관리 체험학습장
19:00~20:30	달집태우기 및 고구마 구워먹기	달집태우기·달맞이·쥐불놀이·장작에 고구마 구워먹기	관리 마을 논
20:30~21:30	복을 담자 복조리	할아버지께 배우는 복조리 만들기	관리 체험학습장
21:30~22:30	대보름 밥 훑쳐 먹기	지정된 농가에 몰래 들어가 밥 훑쳐먹기	관리 지정 농가
22:30	민박 농가와와의 만남	민박배정 : 각 민박장소로 이동 및 짐정리	배정 민박집
23:00	농가에서 보내는 정월 대보름	좋은 꿈꾸기	배정 민박집

·둘째날 체험 과정(1차 팀)

일시	내용	활동	장소
8:00~8:30	기상 및 부럼깨기	부럼 깨고 건강 빌기 및 세면	배정 민박집
8:30~9:00	농가의 정월 대보름 아침	아침식사	"
9:00~9:30	더위팔기	참가자들 간 더위팔기 및 산보	관리마을
9:30~11:30	갯벌 속 굴 캐기	인근 갯벌 산책, 어구를 사용한 굴 채취, 굴 구워먹기	"
11:30~12:30	벧가릿대 세우기	벧가릿대 세우기(풍물)	관리 마을 논 (2차 팀과 통합)
12:30~13:30	농가의 정월 대보름 점심	점심식사(2차 팀과 합류/ 공동)	관리 체험학습장
13:30~15:00	겨울민속놀이 체험	나무 아홉 짐 지기, 줄다리기, 새끼 꼬아 축구공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어 돌리기, 팽이치기	관리 바닷가
15:30~18:00	서울로 출발		버스

·첫날 체험 과정(2차 팀)

일시	내용	활동	장소
8:20	집합	승차	박물관
8:30	출발	이동시 농경세시(겨울편) 영화시청 및 정월 대보름 풍속 교육	버스
10:30~11:00	태안군 관리 도착	관리 도착 및 짐정리	관리
11:00~12:00	벧가릿대 세우기	벧가릿대 세우기(풍물)	관리 마을 논 (1차 팀과 통합)
12:00~13:00	농가의 정월 대보름 점심	점심(1차 팀과 합류/공동)	관리 체험학습장 및 쉼터
13:00~15:00	소원을 담은 연을 날리자	할아버지께 배우는 연 만들기와 연 날리기	관리 체험학습장
15:00~17:00	달집 만들기	달집 만들기 · 해 만들기 · 소지에 소원담기	관리 마을 논
17:00~18:00	농가의 저녁	저녁식사	관리 체험학습장
18:00~19:00	가족 소개	우리가족 소개하기	관리 체험학습장
19:00~20:30	달집태우기 및 고구마 구워먹기	달집태우기 · 달맞이 · 쥐불놀이 · 장작불에 고구마 구워먹기	관리 마을 논
20:30~21:30	복을 담자 복조리	할아버지께 배우는 복조리 만들기	관리 체험학습장
21:30~22:30	대보름 밥 훑쳐 먹기	지정된 농가에 몰래 들어가 밥 훑쳐 먹기	관리 지정농가
22:30	민박 농가와의 만남	민박배정 · 각 민박장소로 이동 및 짐정리	배정 민박집
23:00~	농가에서 맞는 정월 대보름 밤	좋은 꿈꾸기	배정 민박집

· 둘째날 체험과정(2차 팀)

일시	내용	활동	장소
7:00~8:00	기상 및 부럼 깨기	부럼 깨며 건강 빌기	관리 배정 민박집
8:00~9:00	농가의 정월 대보름아침	아침식사	"
9:00~9:30	더위팔기	참가자들 간 더위팔기 및 산보	관리 마을
9:30~10:30	민속마을 속 민속 유물	농촌마을과 어촌마을의 특색과 농기구와 어구 알아보기	관리 체험학습장
10:30~12:30	갯벌 속 굴 캐기	인근 갯벌 산책, 어구를 사용한 굴 채취, 굴 구워먹기	관리 바닷가
12:30~13:30	점심	점심식사	관리 체험학습장
13:30~15:00	겨울 민속놀이 체험	나무 아홉 짐 지기, 새끼 꼬아 축구공 만들 기, 줄다리기, 바람개비 만들어 돌리기, 팽 이치기	관리 마을 논
15:00~18:00	서울로 출발	점 검	버스

12)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 기간 : 연중 1~4주 일요일 / 10:00~13:00
- 대상 : 어린이(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25팀(약 100명)
- 내용 : 박물관 전시내용과 관련한 민속체험 및 전시관람 교육
 - 1주 : 예쁜 색 우리 민화
 - 2주 : 내가 만드는 옛 책
 - 3주 : 종이랑 손이 만나면
 - 4주 : 내 손끝에서 완성된 단소
- 참가비 : 재료비
- 장소 :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13) 전통 매듭 공예교실

전통매듭공예의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한 한국 전통공예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건전한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매듭공예기법의 현대화와 새로운 문화상품도 개발한다.

- 기간 : 2006. 1. 19(목)~2006. 2. 23(목) / (6회)
- 매주 목요일 (6주) 13:00~16:00

- 대상 : 20세 이상 성인
- 인원 : 20명 내외
- 내용 : - 전통 매듭공예 이론 강의 및 실기(실습위주)
- 매듭공예의 기초이론 및 실습으로 교육진행
- 참가비 : 50,000원(재료비, 기구 구입 별도 부담)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 교육 과정

일시	교육내용	강사	비고
1월19일	- 한국매듭의 역사 - 연봉매듭	김은영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매듭장)	특강
1월26일	- 도래매듭 - 목걸이 만들기	노미자(주 강사)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매듭장 조교) 박현아(보조 강사)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매듭장 전수 장학생)	- 준비물: 송곳, 끈목 브로치 재료
2월 2일	- 잠자리매듭 - 브로치 만들기		
2월 9일	- 생쪽매듭		
2월16일	- 안경매듭 - 생쪽매듭 브로치 만들기		
2월23일	- 삼정자 매듭 - 귀걸이, 반지 만들기		

14) '민화와 장식병풍' 기획전 교육

2006년 새해를 맞아 십이지 속의 방위, 시간 등을 새롭게 재조명하여 우리 문화 속에 나타난 개의 민속적 상징을 유물에서 찾는 프로그램이다. 개의 모습과 의미를 알아보며 그 모습을 재현하여 십이지 띠의 개념과 자기 띠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다.

- 기간 : 2005. 12. 25(일)~2006. 2. 27(일) (매주 일요일 13:30~16:30)
- 12월25일, 1월8일, 1월15일 (3회) 내 친구 개 만들기/ 13:30~16:30
- 1월22일, 1월29일 (2회) 뉘 집을 넘보느냐!/ 13:30~16:30
- 대상 : 초등생 어린이 포함한 가족
- 인원 : 1회당 30가족 약 70명
- 내용 : 전시실 설명, 흙으로 개 만들기, 개 세화 그리기
- 재료비 : 각 5,000원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가) 내 친구 개 만들기

- 기간 : 전시기간 중 일요일(12월25일, 1월8일, 1월15일) 3회/ 13:30~16:30
- 대상 : 초등생 어린이 포함한 가족/ 1회당 30가족
- 재료비 : 5,000원
- 내용 : 전시실 설명, 흙으로 개 만들기

·교육 과정

학습목표	- '개띠' 전시 이해를 돕는다. - 사람과 가까운 동물인 개의 친숙함을 표현해본다	
과 정	학 습 활 동	자료 활용
호기심 유발	-유물로 보는 개 모양 토우 -생활용품 속에서의 개	시청각 교육 (PPT)
탐 색	-전시 관람 -관련 문제 풀어보기	활동지
체 험	-내 친구 개 만들기 ※만들고 싶은 개 사진이나 그림 가지고 오기	만들기 재료

나) 뉘 집을 넘보느냐!

- 기간 : 전시기간 중 일요일(1월22일, 1월29일) 2회/ 13:30~16:30
- 대상 : 초등생 어린이 포함한 가족 / 1회당 30가족 약 70명
- 재료비 : 5,000원
- 내용 : 전시실 설명, 개 세화 그리기

·교육 과정

학습목표	- '개띠' 전시 이해를 돕는다. - 사람과 가까운 동물인 개의 친숙함을 표현해본다	
과 정	학 습 활 동	자료 활용
호기심 유발	- 그림으로 보는 우리 친구 개 - 주인과 함께인 개 이야기	시청각 교육 (PPT)
탐 색	- 전시 관람 - 관련 문제 풀어보기	활동지
문제해결	- 귀신도 울리치는 개 세화 그리기	그리기 재료

15) 설·대보름 체험마당 행사

우리나라 명절 및 미풍양속과 전통문화 보전하고, 우리 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박물관과 함께 명절풍속을 직접 배우고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은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낸다.

- 기간 : 2006. 1. 28(토)~2. 12(일) 10:00~17:00
- 대상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 내용 : 짚풀 공예, 솟대, 지화, 승경도, 쌍륙, 종이접기, 탈, 떡
- 재료비 : 짚풀공예-1,000원, 솟대깎기-5,000원, 지화-500원, 탈만들기-5,000원, 종이접기-1,000원, 떡-3,000원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및 배움터
- 교육 과정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행 사 내 용
민 속 체 형 및 교 육	이런 탈 저런 탈	1.28(토) ~ 2.12(월)	배움터 및 어린이 박물관 앞마당	다양한 전통 탈을 온 가족이 함께 만들기
	짚풀 공예			짚풀을 이용하여 각종 곤충 만들기
	소망기원 솟대깎기			조각칼로 나무를 다듬어 솟대 만들기
	오색 종이꽃			한지로 달리아와 장미꽃 만들기
	승경도로 영의정 되기	10:00 ~ 17:00		승경도 놀이를 통한 조선시대 관직 이해하기
	쌍륙으로 배우는 확률			전통놀이 쌍륙 배우기
	한가위 종이접기			종이 한복 접기 등 전통종이접기 체험
	맛있는 우리 떡 만들기			떡살로 다식 만들기

16) 외국인 대상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한국어학당 외국인 학생,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들에게 탈 만들기, 탈춤 배우기, 한지상자 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시킨다.

가) 외국인의 전통 문화체험

- 기 간 : 1~2월
- 장 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전통문화배움터, 외국인학교

- 내 용 : 민속 문화 배우기(민요, 탈춤, 택견),
민속공예품 만들기(생활도자기, 부채, 탈, 한지상자)
- 배우기와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각 하나씩 선택 가능
- 대 상 : 주한 외국인 성인, 청소년 등 30명 이상

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민속교실

- 기간 : 1~2월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교육장
- 내용 : 민속 문화 배우기(민요, 탈춤, 택견),
민속공예품 만들기(생활도자기, 부채, 탈, 한지상자), 음식 만들기
- 배우기와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각 하나씩 선택 가능
-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30명 이상

다) 외국인 근로자 설 문화 체험

- 기간 : 2006. 1. 30(월) 10:00~15:00
- 장소 : 어린이박물관
- 내용 : 민요 배우기, 민화 그리기, 명절 음식 시식, 전통놀이체험
-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100명

17) 문화 소외층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민속교실

가)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박물관을 쉽게 찾기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및 장애인을 위한 문화 현장 프로그램으로 무료이다. 택견, 탈춤, 탈 만들기, 솟대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공예 체험 강좌도 배운다. 문화소외 지역민 대상 교육에는 고건축 사진전 및 민속과 관련한 주제별 25개 민속 문화 강좌도 별인다.

또 2004년부터 박물관 협력 망 사업의 하나로 지역박물관과 협동하는 교육활동과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협동하는 장애인 교육활동도 펼친다.

- 기간 : 연중
- 대상 : (문화소외지역최우선)
- 어린이 : 도서벽지 초등학교(3학년 이상 150명)
- 청소년 : 전국 중·고등학교(150명)
- 문화기관 :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 사회복지시설 :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등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 망에 가입된 기관

- 기타 : 지방자치단체,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희망단체
- 내용 : 버스를 이용한 이동 박물관 운영, 전통문화 이론 강좌·배우기·만들기 등 체험교육 병행
- 강좌 : 민속관련 25개 주제 강좌 중 1회당 2개 강좌 신청
- 전시 : 고건축 사진으로서 전시기간은 7일 내
- 체험 : 배우기 및 만들기 등 선택

나) 함께 나누는 민속교실(저소득층 대상)

겨울방학을 맞은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속 문화 체험, 소외계층인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박물관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관 및 관련 문화기관 연계하여 전통 민속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기간 : 2006. 1. 14(토), 1. 28(토)
2006. 2. 11(토), 2. 25(토) (박물관에서 교육) 10:00~15:00
박물관 내 교육과 찾아가는 경우 각 4회, 8회
- 대상 :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포함)
- 인원 : 1회 20~70명 내외 (단체별 신청)
- 내용 : 전시실 관람 및 민속 문화 체험(박물관에서 교육)
찾아가는 버스 관람 및 민속 문화 체험(찾아가는 경우)
- 참가비 : 무료(도시락 제공 가능)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 교육 과정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민속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도한다. - 박물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인다. 	
학 습 내 용		
박물관 찾아오기	신청기관 찾아가기	
전시실 관람	찾아가는 버스 전시실 관람 및 탁본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기 : 풍물악기 타법 배우기, 간단한 민요를 부르며 풍물장단 배우기 - 만들기 : 새해 소원을 담은 가오리연 만들기, 연 날려보기 		

다) 우리 둘이 박물관나들이

문화의 혜택이 적은 장애인들에게 박물관 전시 관람과 체험을 통해 전통 민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기간 : 2006. 1. 10(화) / 2. 7(화) 10:00~15:00 / 2회(매월 1회 교육)

- 대상 :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 인원 : 1회당 30명 내외 (60명 내외)
- 내용 : 전시실 관람, 민속 문화 배우기 및 만들기 선택
(풍물·탈춤·민요·택견 / 전통피리·연)
- 참가비 : 없음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의실
- 교육 과정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이 편안한 공간임을 느끼게 한다. - 민속 문화를 배우고 만들며,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 	
학 습 내 용		
박물관 찾아오기	배우기	
전시실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탈춤·민요·택견을 몸으로 익히며 배우기 - 간단한 시합을 하며 놀기 	

18) 지역박물관 연계교육

지역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박물관의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 인프라의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05년에 새로 시작하였다.

- 기간 : 연중
- 대상 :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 망 가입기관
- 내용 : 지역박물관 교육 역량 강화 및 체험교육활성화
 - 박물관교육공동 기획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박물관 교육 역량 강화
 - 박물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유물 관리교육 운영
 - 박물관교육을 매개로 한 지역박물관간 연계 강화(협력 망 사업)
- 선정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교육운영 실적(최근 2년간) 교육 내용(자체 기획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공동운영기관 선정

19) 어린이 민속박물관

어린이 민속박물관은 어린이들이 민속 관련 전시물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며, 민속 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2003년 2월 17일에 열었다. 전시 주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의생활·식생활·주생활의 주요내용과 놀이·세시풍속 등이다.

체험위주의 내부전시와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는 야외의 놀이마당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즐거운 체험도 시킨다.

- 시간 : 매일 09:00~18:00(매주 화요일 휴관)
- 안내 : 시간당 관람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한다.
- 관람료 : 무료



베짜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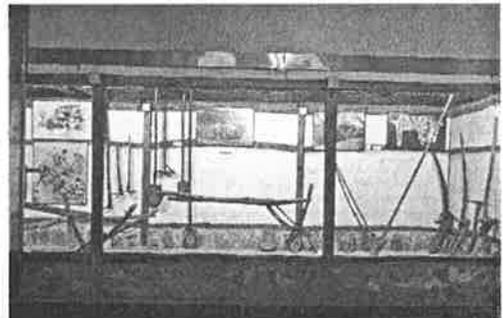
김장하는 모습

5. 온양민속박물관

위 치	충남 아산시 온양 3동 403-1번지		
규 모	20,000평	건 물	2,300평
유 물	17,000점	전 시	8,000여점



본 관



농 기 구 실

가. 연 혁

일 시	내 용
1975년 9월20일	온양민속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 결성
1978년10월25일	온양민속박물관 개관
1987년 6월 1일	(재)계몽문화재단 설립 (4월 11일 문화공보부 제 557호로 설립허가 받음)
2003년	재단 명칭을 (재)구정문화재단으로 변경

온양민속박물관은 민간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민속박물관이다(부지 25,000평에 건축면적 2,300평). 1978년에 개관하여 28년 동안 1천2백 만 명이 찾았다. 개관 이후 거의 매년 특별전시를 비롯한 행사를 벌였고, 근년에는 학생 대상의 체험학습, 성인 대상의 전통문화 전문가 양성교육도 실시하였다.

전시는 농경사회였던 한국 전통사회의 모습을 기능별로 분류하였다. 생업실에서는 농경, 어로, 사냥 길쌈 등을 개방 전시하였다. 농경은 농경세시에 따라 땅을 가는 일에서 시작해서 갈무리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전시하여 한 해 농사를 볼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실물로 전시한 것이 눈을 끈다. 또 야외공간을 유명계(상여, 산소, 석물), 생업마당(지소, 방앗간, 너와 집), 놀이마당, 문화마당 등으로 구분하여 휴식과 관람이 어울리도록 배치한 것도 돋보인다.



굿 장 면



생업실

나. 특별전

일 시	내 용
1979년10월25일	개관 1주년 기념 충남 영현 유품특별전, 心堂, 喜齊선생 書陶展
1980년10월25일	개관 2주년 기념 한국 고유 벼루 특별전, 청사 이동식 민속화전
1981년10월25일	개관 3주년 기념 - 한국의 민화 특별전
1983년10월25일	개관 5주년 기념 - 한·중 흉배 비교 특별전
1984년 3월 1일	김항석 약사부부 소장 愛藏硯 특별전
1987년10월15일	개관 9주년 기념 - 고주부 김용환 화백 민속화전
1989년 9월15일	개관 10주년 기념 - 조선시대의 관모 특별전
1989년10월25일	개관 11주년 기념 - 안동 김씨 분묘 출토복식 특별전
1990년10월20일	개관 12주년 기념 - 한국의 불복장물 특별전
1991년10월25일	개관 13주년 기념 - 조선시대의 묘지석 특별전
1992년10월15일	개관 14주년 기념 - 김태일 소장문화재 특별전
1993년 8월 6일	<대전엑스포 '93> 문예행사주관 시카고 엑스포 참가 전시품 특별전
1993년10월15일	개관 15주년 기념 - 중국조선족 생활용품 특별전
1994년10월14일	개관 16주년 기념 - 소장자 기증유물 특별전
1995년10월13일	개관 17주년 기념 - 백민애 무구류 특별전
1996년 3월25일	동남아시아 민족조형전
1996년10월26일	개관 18주년 기념 동남아시아의 직물과 복식문화 특별전, 학술발표회
1997년 3월31일	佛腹藏物 莊嚴裂의 美(日本 京都 相國寺 承天閣 美術館)
1997년10월21일	개관 19주년 기념 - 나전칠기 특별전
1998년 9월25일	개관 20주년 기념 - 서양복식의 흐름 특별전
1999년 6월18일	아미타불내 납입 불복장과 조선의 장신구 특별전 (日本 東京 文化學園服飾博物館)
2000년 3월 4일	국제 불교문화 교류전(日本 京都 相國寺 承天閣美術館)
2000년 7월22일	실크로드 3000년 전
2001년11월 3일	전국 청소년 민속 사생대회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주최)

다. 전시실

전 시 실	전 시 주 제	전 시 단 위
제1전시실 : 평생의례와 살림살이	한국인의 일 생	낱기와 기르기 · 자라는 모습 · 혼례 · 직업과 환갑 · 상례 · 뭇자리 · 제례
	식생활	그릇과 수저 · 향토음식 · 화채 · 밥과 김치 · 떡과 과자 · 주방기 구 · 숯빚기 · 부엌과 찬방
	주생활	안방 · 마루 · 사랑방 · 살림집 · 등불과 등잔 · 여름살이 · 겨우살 이 · 부채 · 표주박 · 담뱃대 · 안경 · 안경집
	의생활	남자머리 꾸밈 · 여자머리 꾸밈 · 남자 옷 · 남자관복 · 신발 · 어 린이옷 · 여자 옷 · 바느질 · 다듬질 · 얼굴꾸밈 · 작업복 · 장신구
제2전시실 : 생업	농 업	갈기 · 삶기 · 씨뿌리기 · 물대기, 김매기 · 거름주기 · 물대기 · 거두기 · 나르기 · 알곡 털기 · 고르기 · 갈무리 · 알곡 찧기 · 가 마니 짜기와 자리 짜기 · 가축 기르기
	길 씀	
	사냥과 채집	
	고기잡이	배 · 그물 · 낚시 · 강천어구
	대장간	
제3전시실 : 공예, 신앙의례, 학술과 제도	민속공예	금속공예 · 화각공예 · 나전공예 · 종이공예 · 도자공예 · 돌공예 · 자수공예 · 목공예
	민간신앙과 오 락	장승과 솟대 · 마을제사 · 무속신앙 · 민속불교 · 가정신앙 · 정복 과 주술 · 놀이와 내기 · 세시풍속 · 꼭두각시놀이 · 탈춤놀이 · 민속음악
	학술과 제도	문방과 교육 · 목판 책찍기 · 활자 부어내기 · 활자 책찍기 · 천문 과 지리 · 의술 · 장사
제4전시실 : 기획전시실, 민화실	특별 전시실	상설전시 「겨레그림」

6.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가. 연 혁

일 시	연 혁
1964년 4월	광주시립박물관 개설(광주공원 현충각)
1974년 2월	광주시립박물관 설치조례 제정공포
1974년 7월	광주시립박물관 운영규칙 제정공포
1983년 5월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1983년12월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건축공사 착공(광주어린이 대공원 내)
1987년 8월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조례제정 공포. 광주시립박물관 흡수통합
1987년11월	1층(물질문화 전시실) 개관
1988년 5월	2층(정신문화 전시실) 개관



전 경



고싸움 장면 부조

나. 설립 목적

광주광역시가 1964년부터 운영해 온 광주시립박물관을 1983년부터 5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987년 11월에 새로 개관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호남지역의 전통문화를 적극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호남지역의 각종 민속자료와 향토 역사유물을 종합적으로 수집·보관·전시·연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과 정서함양에 노력해 왔다.

다. 규 모

대지 22,000평에, 건평 2,120평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현대식 건물이며 야외전시장도 있다. 소장품 8천여 점 가운데 약 3천 점을 전시하였다. 야외전시장에는 태실·지석묘·입석·문관석·맷돌·연자방아 등을 동선에 따라 늘어놓았다. 기획전시실에서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며, 지역문화 발굴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와 전시도록 및 해설서 등도 출판한다. 예산은 1993년에 약 9억 원이었다(인건비 3억 5천만 원, 주요 사업비 2억 6천만 원, 경상 사업비 등 기타 1억 8천만 원).

1층은 의식주에 관한 생활문화실과 농업·수렵·어업·민속공예를 다룬 생업문화실로 이루어졌다. 2층은 통과의례·교육·오락·음악·민간신앙 등 정신문화와 사회제도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다. 의생활 공간에는 남자의 옷차림·여자의 옷차림·길쌈·길쌈도구·다듬이질·바느질 도구·남녀의 머리꾸밈·신발·화장 도구 및 장신구 등이 보인다. 이 가운데 장홍임씨 옷은 1971년 김덕령 장군의 조카며느리인 장홍임씨 묘를 이장하다가 출토된 것이다. 겹저고리 두 점·적삼 한 점·무명 천릭 한 점·직령포 한 점·속바지 두 점·버선 한 점·미투리 한 점 등은, 400년 전의 여성복식사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들은 1980년에 중요민속자료 제112호로 지정되었다.

정지(鄭地)의 환삼(環衫)도 귀중한 유물이다. 고려 말의 무신으로 왜구를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경열공 정지 장군이 입었던 갑옷의 하나이다. 앞뒤 판은 얇은 철판에 구멍을 뚫어 쇠고리로 연결하였고, 두 어깨는 고리만으로 엮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유레가 드문 귀중품으로 1960년에 보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농업 전시 공간에는 봄철농사·여름철농사·가을철농사·겨울철 농가의 부업 외에 헛간을 비롯하여 호미와 낫 등이 농기구를 전시하였다. 주생활 공간에는 기와집 4칸에 부엌과 장독대 등을 재현하였다. 이 고장의 향토 음식과 여러 가지 떡과 김치의 모형도 보인다.

한국인의 일생 공간에는 기자풍속·산실·어린시절·어린이 놀이기구·연날리기·청혼·혼례식·시집가는 날·구고례·혼례 풍습 등을 재현하였다. 이 가운데 상여는 강진의 2,000석 끈이었던 부호 김제진(金濟珍)이 부친의 장례에 쓰려고 1920부터 1923년에 걸쳐서 새로 만들었다. 기와집 형태의 2층 상여로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2층 4면의 문짝에는 국화무늬·격자무늬 등을 섬세하게 조각하였다. 앞뒤에는 각 한 개씩의 용두판(龍頭板)이 있다. 1989년에 지방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되었다.

생업실에는 쟁기·매통·탈곡기·디립 부 채·살포·용두레 등의 농기구를 늘어놓았으며, 별도로 지은 헛간에는 멍석·괭이·길마 따위도 보인다. 이 밖에 집가에 치인 노루와 꿩을 잡는 치코 등도 돋보이는 전시물이다. 배에서 들망으로 고기를 잡는 이 지방 특유의 어로장면과 소금발 모습도 재현하였다. 용기 가마를 통해 용기를 굽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 전시 공간에는 서당·서당의 교육과정·문방구·향교·과거제도·고소설·인쇄술의 발달·관례와 계례 등을 전시하였다. 이 가운데 김봉선 유품은 특별하다. 구례 태생인 그는 1906년 10월 14일부터 1907년 8월 14일까지 공내부 비서관으로 고종을 측근에서 보필하였다. 고종황제 어찰, 대례복, 교지, 호패, 인장 등이 있으며, 그 가운데 고종황제 어찰은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전후하여 고종이 김봉선에게 보낸 비밀쪽지들이다. 이 쪽지에는 당시 고종황제의 고충과 이상설, 이준 등의 충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있다.

세시풍속과 놀이 공간에는 고싸움놀이·땅뺨기놀이·편싸움(石戰)·농기세배, 달집태우기·기세배 등 남자들의 놀이와, 여자들의 강강술래·널뛰기·그네뛰기·중로보기·풍물을 비롯한 서민음악과 판소리, 민요 등을 디오라마로 펼쳐놓았다.

제도 변화실에서는 한약방 모습과 화폐를 이용한 경제 유통과정 그리고 민화 등을 전시하였다.

라. 영상시설

전시실 1층의 의·식·주 생활실과 생업실, 2층의 정신세계와 민속놀이실에 멀티슬라이드를 설치하여 자료화면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또 2층 로비에 있는 전광그래픽보드는 이 고장의 민속을 대형화면에 영상으로 나타낸다. 관객은 8대의 비디오테크 광디스크에 담긴 9개의 테마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다. 이 디스크에 수록된 테마는 진도 씻김굿·생촌 강산제·대포리 깃제·강강술래·우도농악·고싸움놀이·함평농요·혼례·상례 등이 포함된다.

마. 기획전시실

별관에 있는 기획전시실은 박물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튼튼히 하려고 마련하였다. 300여 평을 3개의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민속분야와 연관되는 회화나 사진 등을 전시한다. 이 공간은 일반인도 이용 할 수 있다.

바. 사회교육(2005년)

- 1) 2005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회교과
 - 기간 : 2005년 1월26일~28일(3일간), 10:00~15:00
 - 장소 :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 대상 : 초등학교 3~5학년(매일 40명씩)

- 내용 : 강좌 9회(강의 4회, 실습 5회)
- 인원 : 120명

2) 제10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

- 기간 : 2005년 3월26일~5월28일
- 장소 : 시청각실
- 대상 :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일반시민
- 내용 : 강좌 20회(강의 18회, 답사 2회)
- 인원 : 78명

3) 제13회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문화 교실

- 기간 : 2005년 7월25일~28일(4일간)
- 장소 :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 대상 : 어머니를 동반한 초등학교 4~6학년
- 내용 : 강좌 10회(강의 3회, 체험학습 6회, 답사 1회)
- 인원 : 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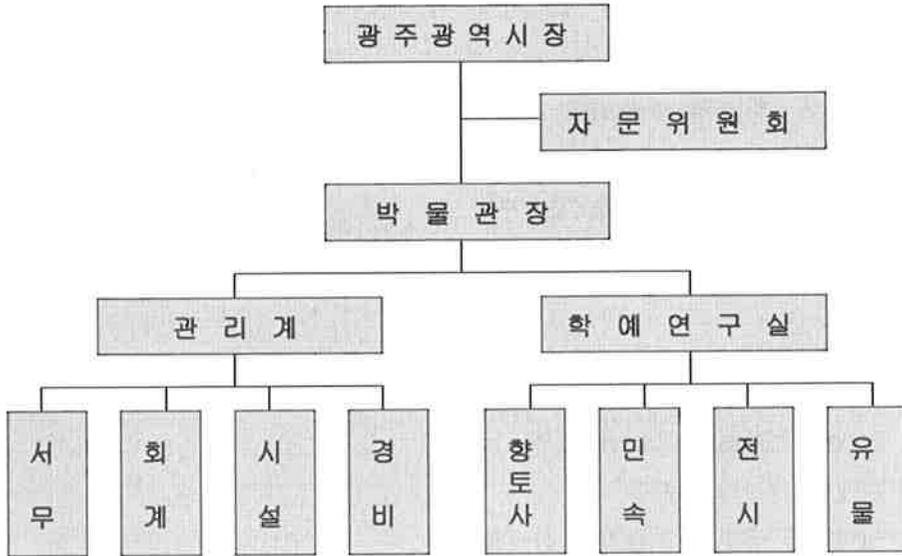
4) 2005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전통 민속마을 기행

- 기간 : 7,9,11월 중 마지막 주 토요일(7월28일 / 9월24일 / 11월13일)
- 장소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민속마을(함평군 월야면 용월 1리, 영광군 염산마을, 순천시 낙안면 읍성마을 일대)
- 대상 : 학부모를 동반한 초등학교 4~6학년
- 내용 : 전통 민속마을 생활 탐방 및 현장체험 학습
- 인원 : 40명

사. 직 제

4급의 박물관장 아래 학예연구실과 관리계가 있다. 학예연구실은 5급 실장과 향토역사·민속·전시·유물 관리를 담당하는 학예 연구직으로 구성되었다. 정원은 별정직 및 학예연구직 8명, 행정기술직 6명, 기능직 9명 등 23명이다. 4명의 청원경찰도 있다.

아. 조 직



디딜방앗간



매점

7. 국립중앙박물관

가. 연 혁

연 도	내 용
1909년11월	창경궁에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 개관(1910. 03. 19)
1915년12월 1일	조선총독부 박물관 개관
1926년 6월20일	경주 분관 개관
1939년 4월 1일	부여 분관 개관
1940년 4월	공주 분관 개관
1945년12월 3일	국립박물관 개관(직제 1949. 12. 12)
1946년 4월	개성 시립박물관을 개성 분관으로 흡수
1950년 4월	국립 민족박물관을 남산분관으로 흡수
1950년12월	부산으로 임시 이전(광복동 사무실)
1953년 8월	부산에서 경복궁으로 이전
1954년 1월	분관이 경복궁에서 남산분관 자리로 이전 개관
1955년 6월23일	남산분관 자리에서 덕수궁 석조전 건물로 이전
1968년 7월24일	·문화공보부 발족(대통령령 제3519호)

나. 건축개요

내 용	규 모
부지면적	8940,4평
건축면적	1485,7평
연 면적	4150,3평(부속 등 6개소 포함)
구조 및 외부마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화강석 외부마감
층 수	지하1층, 지상6층
최고높이	43.08m

다. 시설규모

시 설	규 모	내 용
본관동	40,380평	동관(전시영역, 수장고 등), 서관(사무실, 강당, 극장 등) 길이 404m, 폭 186m~140m, 높이 43.08m
부속동 (6개동)	1,089평	동관(전시영역, 수장고 등), 서관(사무실, 강당, 극장 등)
거울못	2,391평	본관건물 앞, 규모 120~80m 타원형
기타시설		만남의 집, 거울 못카페, 버스주차장, 온실, 주차장 화장실, 어울림 마당 화장실

라. 영역별 면적(평)과 시설내용 비교

영역별	면적(평)	시 설 내 용
전시영역	8,195	역사관, 고고관, 미술 1·II관, 기증관, 아시아관, 기획전시실, 어린이관, 역사의 길, 으뜸 홀 등
수장영역	5,130	수장고(21개), 소독실, 정리실, 부속시설
교육영역	4,500	극장, 강당,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 도서실, 자료실, 부속시설
관람객 편의영역	9,648	식당, 뮤지엄 스텝, 주차장 기타시설
사무영역	6,215	관장실, 사무실, 학예연구실, 정보자료실 등
유지관리영역	7,815	중앙 감시실, 기계실, 전기실, 부속시설
계	41,503	

바. 교육시설

교육시설	규모 및 내용
도서관	470평,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박물관 관련 국내·외 전문도서, 학습지 등 약 90,000여권의 책과 CD-ROM, DVD, VIDEO TAPE 등의 디지털 매체 자료 약600여점을 비치 소장 자료의 검색도 가능
대강당	523평, 416석
소강당	91평, 202석
강의실 1	76평
강의실 2	75평
강의실 3	48평
실기실 1	118평
실기실 2	80평
실기실 3	58평
세미나실	26평
어린이박물관	586평

바. 사회 교육

다음은 어린이 박물관에서 행해지는 사회교육의 내용들이다.

1) 주말 가족 교육

가) 삼국시대 오케스트라

- 내용 : 삼국시대 악기를 만들어 보고, 향가(서동요)를 배운다.
- 기간 : 토요일 14:00~16:00
- 대상 : 초등생 포함 20가족
(한 가족 3명 이내)
- 재료비 : 가족 당 29,000원

나) 우리는 고고학자 가족

- 내용 : 유물 발굴에서부터부터 그릇 복원까지의 과정을 가족이 함께 체험한다.
- 기간 : 일요일 14:00~16:00
- 대상 : 초등생 포함 20가족
(한 가족 3명 이내)
- 재료비 : 가족 당 12,000원

2) 방학 프로그램

가) 족장회의

- 내용 : 청동기인과 신라인의 만남
금관과 목걸이를 만든 다음, 역할 놀이를 통해 장신구의 상징성과 상호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 기간 : 화, 목요일 10:00~12:00
-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개인접수 가능 20명
(신청 1건당 초등생 2인 이하)
- 재료비 : 1인당 5,000원

3) 주중 방과 후 프로그램

가) 선사무늬 모빌 만들기

- 내용 : 암각화 및 기타 유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늬를 이용하여 모빌을 만든다.
- 기간 : 매월 1, 3주 금요일 14:00~15:00

- 대상 : 유아 20명
- 재료비 : 1인당 3,000원

나) 선사시대 농사짓기

- 내용 : 절구에 볍씨를 찧고, 그릇을 만들어 찧은 쌀을 저장한다.
- 기간 : 수요일 14:00~15:30
- 대상 : 초등학생 20명
- 재료비 : 1인당 1,000원

다) 박물관 이야기교실

- 내용 : 신화, 전설, 설화 등 전래동화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 기간 : 매월 2, 4주 금요일 14:00~14:40
- 대상 : 유아 및 초등학생 1~2학년 20명(보호자 참석가능)
- 재료비 : 무료

4) 체험교실

가) 도전! 체험하기

- 내용 : 체험교실에서 상설 운영되는 키트박스를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 기간 : 14:00~17:00
- 대상 : 어린이박물관 관람객



전 경



사회교육 장면

사. 조 직



1) 기획 운영단

가) 행정지원과

- 보안 및 관인관수
-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회계 및 결산
-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다른 단이나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박물관정책과

-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예산·감사·국회·법제에 관한 업무
-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공·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 학예사 양성 등 전문 인력의 육성
- 박물관 협력 망 구축 및 관련단체 지원

·업무 분담표

구분	담 당 업 무
1	박물관정책과장
2	행정관리 및 예산업무 총괄
3	조직 및 정원 관리, 국회 및 당정협의, 조직문화혁신
4	예산 편성, 예산 관련 국회 업무
5	예산 집행, 감사 및 반부패관련 업무
6	정책업무, 평가 및 행정관리 총괄
7	정부 업무 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국립박물관 연보 발간
8	주요업무계획 수립, 사립박물관 지원, 규제 관련 업무, 박물관 협력 망 구축
9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 관리, 현안사항 관리
10	서무업무, 예산집행
11	박물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12	공립박물관 지원, 학예사 양성, 학예사 자격증 실무

다) 관리과

-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 수목·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업무 분담표

구분	담 당 업 무
1	관리과장
2	일반 행정, 시설관리 총괄, 지방박물관 증·개축 기술지도
3	중앙박물관 주변 환경개선, 지방박물관 시설 개선계획 총괄
4	중앙박물관 청사관리(청소용역·영선관리),시설보강 및 하자 관리
5	중앙박물관 시설물 안전 관련 업무
6	중앙박물관 영선업무 및 청사관리
7	전기분야 및 승강기 관리업무 총괄
8	중앙박물관 전기분야 시설유지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전기) 추진
9	전기분야 시설관리용역 지도·감독, 승강기설비 운영관리
10	정보 통신분야 업무 총괄, 통신 기술지원
11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 방재분야 시설관리용역 지도·감독
12	통신분야 시설유지관리, 통신분야 시설관리용역 지도·감독
13	기계설비 및 시설관리 용역업무 총괄
14	기계설비 보강 및 유지관리, 기계분야 시설관리용역 지도·감독
15	시설관리용역 계획 수립 및 발주
16	조경업무 총괄
17	조경시설물·수경설비·포장 보강 및 유지관리, 조경식물 유지관리
18	전통염료식물원 발굴·증식 및 유지관리,온실 보강 및 유지관리
19~28	중앙 감시실 운영 및 유지관리

라) 고객지원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종합안내실 운영 및 고객의 안전 관리
 - 고객의 편의제공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객 불편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업무
1	고객지원팀장
2	관람안내 종합계획 및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3	사무업무, 민원, 중앙박물관 야간개장 총괄
4	전시실 및 부대시설 점검, 관람객 질서안내 및 안전관리
5	관람안내 계획수립 및 시행, 안내데스크 운영관리
6	통계자료 유지관리, 문서관리

2) 학예연구실

가) 유물관리부

- 소장품 및 수장고의 관리
 - 유물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 학예 연구 자료의 보관·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처리
 - 소장품의 열람·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소속박물관 소장품의 관리 및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 기타 실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업무
1	유물관리부장
2	기증·기탁, 소산유물·지정문화재 관리, 기획, 예산, 사무업무
3	기증·기탁, 지정문화재 관리
4	소산유물 관리, 학예기획 실무
5	예산·지출, 학예연구실 관서운영비 관리

구분	담당 업무
6	일반서무·복무, 운서관리, 물품관리
7	소장품 등록,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촬영실·사진실 관리
8	미술품 등록
9	고품 등록
10	고고품 등록,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11	역사품 등록
12	미술품 등록
13	촬영업무, 사진자료 관리, 사진실·촬영실 관리
14	구입, 소장품 정보 관리, 소장품·필름 등 민원 관리, 자료실 관리
15	구입 실무
16	소장품 정보 관리, 소장품 민원(감정·복제 등), 자료실 관리
17	소장품 민원(감정·복제 등), 필름 등 민원(복제·계재 등)
18	임시이관, 대여, 관내 출·격납, 관내 열람, 표준유물관리시스템
19	관내 출·격납, 관내 열람 실무
20	임시이관, 대여 실무
21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운영
22	보존실 업무 총괄, 보존실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23	문화재 조사분석, 연수프로그램 기획
24	전시실·수장고·박물관 환경 관리, 보존실 기자재 관리
25	금속유물 보존처리, 보존처리 기획·예산
26	금속유물 보존처리 및 복제
27	토기·자기 보존처리 및 복제, 보존처리 물품·약품 구입
28	목제유물 보존처리
29	서화류 및 지류 유물 보존처리 및 복제, 보존처리 기획·예산
30	목칠공예품 보존처리 및 복제, 박물관 보존과학 발간
31	목제유물 보존처리 및 복제
32	벽화·석물 보존처리 및 복제, 보존처리 유물 출·격납

나) 고고부

- 고고학 및 인류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 위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 업무
1	고고부장
2	기증관 유창종실, 한용 공동학술조사, 고구려 종합연구
3	고고관 가야실, 소장품 정리 조사, 국내 발굴기관 관리
4	아시아관 낙랑실, 고구려 종합연구, 동북아 선사문화연구
5	고고관 원삼국실, 기획·서무·예산, 한강유역 유적 발굴조사
6	고고관 신라실, 기증관 최영도실
7	고고관 청동기실·초기철기실, 동북아 선사문화 연구
8	고고관 구석기실·신석기실, 소장품 조사 정리
9	아시아관 중국실, 기증관 이우치실, 동북아 선사문화 연구
10	고고관 도입부·통일신라실, 기획·예산, 한용 공동학술조사
11	고고관 발해실, 기증관 하치우마실, 고구려 종합연구
12	고고관 고구려·백제실, 학예서무, 고구려 종합연구
13	기증관 유창종실, 일반서무, 예산 집행
14	전시실 관련 민원, 발간도서 관리, 자료실 관리
15	기증관 최영도실, 발굴조사 자료 정리

다) 미술부

- 미술사학 분야의 건축·조각·회화·서예·도자·목칠·금속 및 섬유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 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 위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 업무
1	미술부장
2	기획·홍보, 불교회화·불교조각·금속공예·중앙아시아실(불교회화사)
3	파견(불교조각사)
4	서예·회화·이흥근·유강열·박영숙실(회화사)
5	예산·서무, 목칠공예·도자공예·신안·일본·김종학·박병래실(도자사)
6	유물출격납, 회화실 II·일본실(회화사)
7	기획, 회화실 I(회화사)
8	예산, 불교조각실·역사의 길·야외 석조물(불교조각사)

구분	담당 업무
9	금속 공예실(금속공예)
10	도자 공예실 : 청자·분청사기·백자(도자사)
11	유물 출격납, 불교 회화실(불교회화사)
12	신안 해저문화재·박병래실(중국도자사)
13	서예·박영숙실(서예사)
14	학예서무·홍보, 중앙아시아실(불교미술사)
15	목칠공예·김종학실(석조미술사)
16	이홍근·유강열실(회화사)
17	서무, 문서관리, 민원, 복무
18	물품관리, 자료 관리

라) 역사부

- 고문헌, 고문서, 고지도, 고인쇄, 금석문, 생활사 자료 등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문화재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보급
- 위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 업무
1	역사부장
2	역사관 상설전시 총괄, 국립박물관 60년사 총괄
3	기획·예산·서무 및 학술교류 총괄, 역사관 대외 교류실
4	유물관리 총괄, 역사관 지도실, 기증관 가네코실
5	역사관 인쇄실, 활자 자료 조사
6	기획·예산, 역사관 연표실·사회 경제실·전통사상실
7	역사관 개편, 역사관 한글실
8	유물관리, 역사관 문서실, 역사관 자원봉사자 운영
9	역사관 운영, 역사관 금석문실
10	역사관 왕과 국가실, 아시아관 인도네시아실
11	학예서무, 기증관 기증문화재실
12	일반서무, 홍보, 예산 집행

3) 교육문화교류단

가) 사업기획팀

-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박물관 후원회 관리 및 기금조성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지도·감독

-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운영
 - 기타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 업무
1	사업기획팀장
2	박물관 문화사업 총괄, 문화재단 지도,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3	박물관 문화사업, 문화재단 지도, 자원봉사자 운영
4	주요업무·사업계획 총괄, 국회·예산·행정관리·복무 및 사무업무 총괄
5	예산 편성·집행·관리 및 결산, 행정관리 및 일반사무업무
6	일상경비 출납, 문서관리
7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업무 총괄
8	유지엄 매거진 및 웹진 발간
9	박물관신문 발간 및 배포
10	유지엄 웹진 발간, 홍보 출판물 디자인
11	박물관신문 디자인, 교육 출판물 디자인
12	박물관 정보화업무 총괄
13	관람권발매관리시스템, 정보화교육
14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 전자결재
15	전산기계실 서버장비 관리, 정보화 예산 및 보안

나) 전시팀

-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전시디자인 및 기타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 업무
1	전시팀장
2	국외전시 및 국제교류 총괄, 국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총괄
3	고고학 관련 전시 총괄, 체코국립박물관 한국실 설치 총괄
4	미술사 관련 전시 총괄, 국회, 주요업무 및 사업기획 총괄
5	역사학 관련 전시 총괄, 예산 편성·집행·관리 및 결산 총괄
6	전시디자인·전시홍보물 총괄, 주요 인사 안내 총괄
7	국외전시, 국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체코국립박물관 한국실 설치
8	역사학 관련 전시, 민원
9	미술사 관련 전시,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구분	담당 업무
10	미술사 관련 전시, 예산 편성·집행·관리 및 결산, 주간업무 작성
11	미술사 관련 전시, 국회, 주요업무 및 사업기획
12	미술사 관련 전시, 아시아 국립박물관 포럼
13	특별전시 자료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아시아 국립박물관 포럼
14	전시디자인 총괄, 전시 홍보물
15	국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주요 외빈 안내, 번역(일본어)
16	국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주요 외빈 안내, 번역(중국어)
17	국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주요 외빈 안내, 번역(영어)
18	복무 및 일반서우, 물품 관리

다) 교육홍보팀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 이동박물관 기획·운영
- 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박물관 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 도서실 운영·관리
- 업무 분담표

구분	담당 업무
1	교육홍보팀장
2	기획·지원업무 총괄, 교육홍보시설 대관 및 도서관 운영 총괄
3	기획·업무편람, 토요 명사특강·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서우업무, 박물관 여론조사
5	교육홍보시설 대관, 교육홍보시설 운영 및 관리, 홍보물 배포
6	도서관 운영
7	홍보업무 총괄, 성인·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8	홍보물 제작 일체, 도서관 업무 지원, 홍보 관련 자료 조사
9	언론 홍보(신문, 잡지), 사이월드 운영
10	언론 홍보(방송사, 해외홍보), 블로그 운영
11	성인강좌 및 성인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12	소외계층 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성인체험 프로그램 운영
14	학교연계·가족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박물관 업무 총괄
15	전시실 교육프로그램, 교사연수,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16	학교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17	가족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운영
18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19	어린이박물관 운영 및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20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21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어린이문화재 그리기 대회
22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영상실·체험교실 및 부대시설 관리

8. 제주민속촌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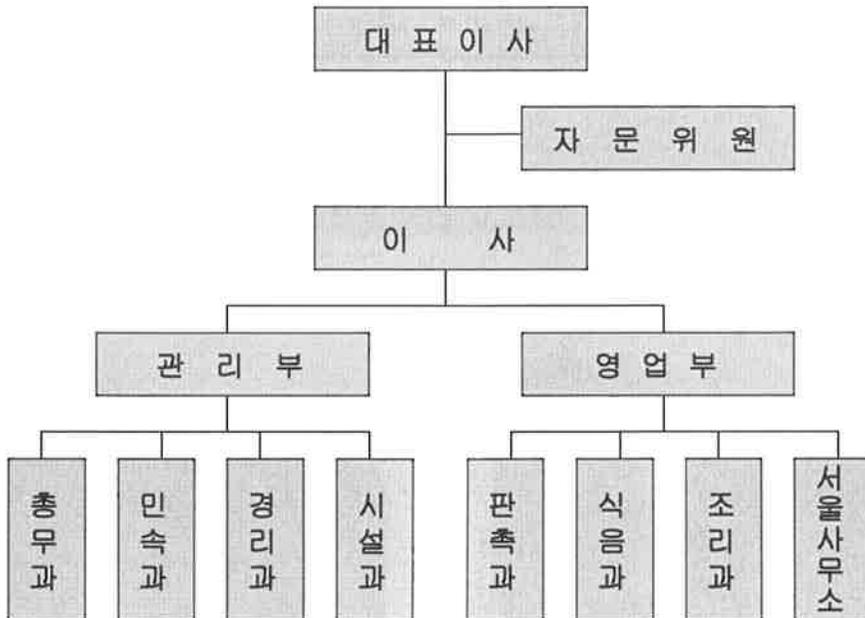
1987년에 문을 연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사라져 가는 제주도의 민속 문화를 발굴·수집·전시하여 전통문화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연구 활동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히고 학술 연구 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55,000평의 부지에 가옥 104채, 위탁시설 8채, 편의시설 18채 등 연건평 1,138평의 시설을 갖추었다.

141점의 유물을 포함하여 모조품 등 총 9,339점을 전시하며, 민속공연장, 옷놀이, 씨름장, 그네 터 등 민속놀이 시설도 조성하였다. 이곳에서 키우는 조랑말·소·돼지 등의 가축은 민속촌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야외박물관에는 연못·전통우물·연자방아·돌하르방·석탑 등이 있으며, 19세기 말의 산촌·중간산촌·어촌·관아건물 등도 재건하였다. 무속 신앙지구에서는 제주도 특유의 전통 신앙을 보인다. 주기적으로 민속공연이 열리며, 옛 장터에는 여러 가지 음식 외에 생활도구도 제작 판매한다.

조직은 다음 표와 같다.



가. 시설내역

1) 건축물

시 설 물	동 수	면적(평)	비 고
전시가옥	95	1336.4	전시시설, 공예방 시설
위락시설	7	1756.3	공연장 전설의 집 등
편의·관리시설	14	7673.3	음식점, 휴게실, 관리실 등
계	116	1076.5	

2) 민속품 전시내용

구분	합 계	목기	죽제품	농기구	사기류	기타	총계
수량	8,181	1,448	327	1,584	1,504	33,789	8,242

3) 기능공예방

구분	서각공예	목공예	서예방	혁서공예	죽공예	대장간	탈공예방
내용	서각	목각제품	붓글씨	혁필	죽제품	철제품	제주탈

4) 임대 업소

구분	편의점	토산품점	농수산물점	사진관	흔레장	옛판매장	식당	합계
업체수	1	1	1	1	1	1	6	12



정 문



농 기 구 실

나. 전시개요(기준연대 : 1890년대)

구 분	전 시 방 향	가 목	내 용
산 촌	목축과 사냥이 생업이었던 옛 산촌의 취락 형태 및 생활 모습을 보인다.	16채	막살이 집(외·두거리) 목축업의 집(북부 및 남부) 사냥꾼의 집, 외기동 집 공예방 : 목공예, 혁서공예방 이용시설 : 연자매 돌리기
중산간촌	농경 중심의 부촌인 중산간 마을을 재현하였다.	38채	종손집, 토호가, 농가(북부 및 남부), 불미왕(대장간) 유배인의 집, 서당, 한약방, 우리 안치소 공예방 : 서예방, 대장간, 서각공예 이용시설 : 전통혼례, 미니 승마장
어 촌	반농, 반어의 어촌을 재현하였다. 어구전시관은 제주도의 어업발달 과정을 보인다.	11채	어부의 집(동·서·남·북부), 해녀의 집, 어구전시관 공예방 : 탈공예
무 속 신앙촌	삶의 한계를 극복한 무속신앙을 재현하였다.	5채	심방집, 점집, 본향당, 미륵당, 해신당, 처녀당, 포제단 공예방 : 점집
제주영문	옛 제주목의 관아를 복원하였다.	12채	연희각, 영리청, 향청, 옥
장 터	닷새 장과 장터를 연출하였다.	14채	민속음식점
민 속 공연장	민속공연 구경 및 민속놀이를 체험한다	2채	민속공연장 이용시설 : 민속공연, 씨름, 널뛰기 등
무 형 문화의집	민요, 전설, 방언, 굿놀이 등의 음성 및 영상자료를 방영한다.	1채	
농기구 전시관	제주도의 농경문화를 펼쳐 놓았다.	1채	이용시설 : 가금사육장
가 금	다양한 가금류 사육		소, 돼지, 타조 등 사육
기타시설	다양한 편의시설로 관람객에게 봉사한다.	19채	한라정식당, 편의점, 농수산물점, 컴퓨터 사진관(촬체어 및 유모차), 토산품점, 휴게실, 매표소, 관리사무실 등

1) 농기구 전시관

100여점의 농기구를 농사를 지어 나가는 과정에 따라 전시하였다. 씨뿌리는 연장의 종류가 많은 것은 토양이 돌이 많고 바람에 날리기 쉬운 사질토인 까닭이다.

- 전시물 : 씨부개·곶배·당그네·고소리·골갱이·골체·채룽·쟁기·지게·글갱이·남방아·망태기·얼맹이·호랭이·고래방석·파비 등

2) 어구 전시관

세계 각지에서 서기전 500여년 경부터 써온 폐배를 전시하였다. 제주도에서는 근래까지 자리를 잡고 해초를 거두는 데에 이용해 왔다. 이 밖에 어구와 해녀의 채집구도 보인다.

- 전시물 : 듄복낫·족바지·차대·소살·성계골각지·중계호미·아시와 공쟁이·덕자리 사들·국자사들 등



산촌 민가



어구 실

3) 자연학습장

사라져가는 향토수종을 곳곳에 심어서 가꾸어 놓았다.

- 향토수종 : 굴거리 나무·멀구슬 나무·무화과 등 80여 종
- 자생화 : 봉선화·복수초·창포·나리·채송화 등 20여 종
- 농작물 : 고추·호박·박·콩 등 20여 종
- 가금류 : 흑돼지·오골계·꿩·다람쥐·닭·오리·청둥오리·칠면조·꽃닭·거위·원앙·금계·토끼·공작비둘기·소·공작·은계·호로조 등

4) 민속 공연

제주민속촌 풍물패로 이루어진 민속공연단은 하루 3번 정기공연을 한다.

구 분	시 간	내 용	공 연 장
1차 공연	11:30~12:00	채상판굿	공 연 장
2차 공연	13:30~14:00	설장구, 채상판굿	토 호 가
3차 공연	15:30~16:00	채상판굿	공 연 장

다. 사회교육

1) 세시 행사

- 기간 : 설,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 목적 : 제주 고유의 명절 음식 소개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 등 전통 세시행사를 통해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명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달과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 대상 : 전체 관람객
 - 내용 : 세시음식 시연 및 시식, 민속놀이 체험
 - 설 : 떡국 및 빙떡 시연 및 시식
 - 정월 대보름 : 민속 연날리기 축제
(연 전시 및 연 만들어 날리기)
 - 추석 : 송편 빚기 체험 및 시식, 기름떡 만들기 시연 및 시식
 - 동지 : 동지 팔죽 시식
- ※ 민속놀이 :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투호놀이, 지게발 건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

2) 계절별 체험 행사

가) 겨울철 행사

① 민속음식 무료 시식

- 기간 : 매년 12월~2월
- 내용 : 호박죽, 고구마

② 집줄 놓기 체험 및 초가지붕 잇기 행사

- 기간 : 매년 1월~2월
- 목적 : 제주의 독특한 초가지붕을 잇는 작업과정 관람 및 체험을 통한 제주 초가 문화에 대한 이해 전달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내용 : 초가지붕 잇기 작업 관람, 집줄 놓기 체험

나) 여름철 행사

① 감물들이기

- 기간 : 7월말~8월 중순
- 목적 : 제주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극대화.
- 대상 : 신청자 및 일반 관람객
- 내용 : 촌내에 심어 있는 감나무에서 풋감(땡감)을 따고 도고리에 넣고 덩드렁마개로 빵아서 옷이나 천에 감물을 들이는 전 과정을 예전방식 그대로 재연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 기간 : 8월중
- 대상 : 전체 관람객
- 목적 : 시골집 마당에 모여 앉아 봉선화 꽃물을 들이던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사라지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 내용 : 담장 아래의 봉숭아 꽃잎을 따서 빵아 손톱에 물들인다.

3) 상설 체험 마당 운영

- 제주민속촌 전 지역이 생활체험 공간이라 할 만큼 전시가옥별로 전시되어 있는 옛 도구들을 써 보도록 해서 제주의 전통생활문화를 이해시킨다.
- 물혀벽지기, 맷돌 돌리기, 다듬이질, 절구질, 지게 지기 등

4) 2006년도 행사 내용

내 용	기 간	비 고
신년 해맞이 대동굿	1월 1일	
전통음식(호박죽, 고구마) 무료시식	2005년 12월~ 2006년 1월30일	
설날 민속 행사	1월28일~1월30일	
민속 연 축제	2월 8일~2월12일	
집줄놀이 체험	2월23일~3월12일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 예쁜 색 우리 민화 : 민화가 지닌 의미를 알아보고 민화 그리기 체험 - 종이랑 손이 만나면 : 한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한 지인형 만들기	6월10일~6월11일	국립민속 박물관 · 제주민속촌 박물관 공동 주관
감물 염색 - 감물들이기 체험 및 갈옷입어보기	8월 6일~8월20일	
봉숭아 물들이기 - 봉숭아 꽃잎을 따서 직접 물들이기 체험	8월 6일~8월20일	
추석 행사 - 송편 빚기 체험 및 시식 - 민속놀이 체험 : 지게발 걷기,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10월 5일~10월 7일	
청소년 열린 민속교실 운영 및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 회교과 - 한지공예품 만들기 - 우리 옷 바로 알기 : 우리 옷의 종류, 입는 법에 대한 이론교육, 한지로 우리 옷 만들기	11월 중 2일	국립민속 박물관 · 제주민속촌 박물관 공동 주관
전통음식 무료 시식 - 동지 팔죽, 호박죽, 고구마	12월~1월	

9.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

위 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15
건립 부지	6,352평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550평
전시실	225평, 수장고 33평 기계·전기·관리실 73평, 공용 구간 219평

이곳은 강원도의 대표적 산간지대인 인제군의 민속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는 국내에 하나뿐인 산촌 민속 전문박물관이다. 2003년 10월 8일 개관하였다. 건물은 2001년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 5일 준공되었다. 이 박물관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야외 조경과 동선 체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전 경



체험 공간

가. 시설현황

- 1) 전시실 : 2개실 36개 코너
 - 가) 전시 및 수장자료 : 민속자료 801점
 - 나) 야외전시 : 토막집, 김부 대왕당(동제당), 디딜방앗간, 기타
- 2) 소요 사업비 : 87.5억(국비 27, 교부세 30, 지방비 30.5억 원)

3) 사업기간 : 2001년 2월 1일~2003년 10월 6일(34개월)
 개관 : 2003년 10월 8일

나. 조 직

구 분		인원	업 무 내 용
합 계		7	
담당(학예직)		1	박물관 운영 총괄
관리직	기능직(기계)	1	박물관 시설(건물, 조경, 설비) 관리운영 일반
	청원경찰	1	보안관리 일반
행정 직		1	일반서무 및 운영 보조
일용직(대표 및 청소관리)		3	전시실 및 외부시설 청소관리

다. 전시연출 계획

1) 산촌의 삶과 믿음의 세계

제 목	소 제 목	연 출 내 용	연 출 매 체
도입부	산 촌 의 세시풍속	인제 산촌의 월별 세시풍속 소개	복합구성패널 (12개)
산촌의 겨울	산 촌 의 겨울풍경	산촌의 겨울 풍경을 디오라마로 구성 소 울음소리로 겨울 풍경 소개.	디오라마, 복합구성패널, 지향성 스피커
	설날(세배)	투막집의 세배 모습과, 관련 소품 실물전시 패널을 통해 산촌의 설 풍속 소개	투막집 안방 재현, 복합구성패널 인물모형,
	정월 대보름	산촌의 여름날, 대보름, 귀신 달구기 소개	복합구성패널
산촌의 봄	입춘·우수 경칩·춘분	산촌의 2, 3월경 농경 세시 소개 천수답, 부대기 농경 소개	실물전시, 복합구성패널
	바람 올라 가는 날	바람 올라가는 날 산촌의 세시풍속 소개 봄철농사 준비 및 농기구 실물전시	실물전시, 복합구성패널
	한 식	한식의 성묘 모습 등 세시풍속 소개	실물전시, 복합구성패널
	봄 철 산촌의 농경	봄철 산촌의 화전농경 모습의 디오라마 소 모는 소리로 산촌의 정서를 느끼게 함	디오라마, 지향성 스피커
	청명·곡우 입하·소만	봄철 농경세시 소개 모를 내는 농기구 전시	복합구성패널, 실물

제 목	소 제 목	연 출 내 용	연 출 매 체
산촌의 여 림	단 오	산촌의 단오 풍습 및 놀이 전시	복합구성패널
	인제 뗏목	인제뗏목의 역사와 운항, 여울 등 소개. 항모습을 디오라마로 구성. 뗏목아라리 소개	복합구성패널, 지향성 스피커, 디오라마
	망종·하지 소서·대서	산촌의 농작물관리 전시 이남박 만들기 과정 전시	실물전시, 복합구성패널
	백 중	산촌의 세시풍속 전시	복합구성패널
	한가위	한가위 산촌의 세시풍속 전시	복합구성패널
	민물고기	인제에 서식하는 재래 민물고기 전시	와이드칼라, 수족관
산촌의 가 울	가을걷이	산촌의 가을걷이 및 세시풍속 전시 가을걷이 관련 주요 유물 설명	복합구성패널
	산촌의 벌치기	산촌의 벌치기 모습 전시(석청, 목청 등) 벌의 울음소리로 현장감 살려	복원모형, 스카시패널, 상향성 스피커
	도정과 갈무리	산촌의 각종 도정 및 갈무리 용구 설명	실물전시, 복합구성패널
	심메마니	토막집 벽면을 통해 심메마니가 쓴 연장과 생활풍 습 전시	벽면 디스플레이, 실물, 복합구성패널
	산 지 당	풍년을 기원한 산지당 모형으로, 산촌의 신앙 전시	실물모형, 입식패널
산촌의 겨 울	산 촌 의 겨울 생활	겨울철 산촌의 생활모습 전시	실물전시, 복합구성패널
	숫 둔 골 숫 굽 기	산촌의 생업이었던 숫 굽기를 패널과 모형으로 전 시. 각종 숫의 재료 및 효용성 소개 지향성 스피커로 숫가마 등치기 노래 소개	가마 축소모형, 복합 구성패널, 실물, 지향 성 스피커
	황태덕장	황태덕장의 풍경과 명태가 황태가 되는 과정 전시	와이드칼라
	수 렷	각종 수렵도구 설명 및 수렵관련 실물 전시	복합구성패널, 실물

2) 산촌의 애환과 여유

제 목	소 제 목	연 출 내 용	연 출 매 체
도입부	산촌의 애환과 여유	산촌의 애환과 여유를 상징적으로 표현	와이드칼라, 이미지패널
봄	봄철음식	봄철 산촌의 각종 음식 전시. 산의 칩을 먹는 모습을 닥종이 인형으로 전시	음식모형, 설명패널
	단 오	단오의 놀이모습을 봉제인형으로 디오라마로 전시	디오라마, 닥종이인형
여름	여름철 음식	여름철 산촌의 각종 음식 전시	음식모형, 설명패널
	여름놀이	여름철 천렵 모습을 닥종이 인형으로 디오라마로 전시	디오라마, 닥종이인형
가을	가을철 음식	가을철 산촌의 각종 음식 전시	음식모형, 설명패널
	감자서리	산촌아이들의 감자서리 장면 닥종이 인형으로 전시	닥종이인형
체험공간		산촌의 벌치기 모습 전시(석청, 목청 등) 벌의 울음소리로 현장감 살려	복원모형, 스키시패널, 상향성 스피커
겨울	국수 만들기	산촌에서 나무틀로 국수 내리 모습 전시 및 국수 만들기 과정 소개	부역연출
	겨울철 음식	산촌의 겨울철 음식 전시	음식모형, 설명패널
	대보름	대보름날의 놀이장면 닥종이 인형으로 표현	닥종이인형
	인제 토산품	각종 토산품 실물 전시	표본전시, 설명패널
정보검색		인제의 세시풍속 및 관광지 소개	터치스크린

라. 전시 연출 분야

1) 전시개요

가) 전시면적 : 366.31평

나) 주요시설 : 상설전시실(186.76평), 수장고(28.53평), 다목적실(22.87평), 기념품 판매코너(26.32평), 안내·물품보관코너(4.88평)

다) 시설소요 사업비 : 1,594,628천원

2) 연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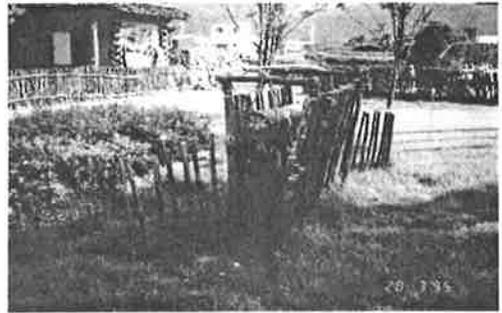
구 분		주 요 연 출 내 용
도 입 부		인제의 열두 달 농사관행 및 민속
산촌 사람들의 살과 믿음의 세계	겨 울	겨울풍경, 새해맞이, 대보름
	봄	입춘-춘분, 바람올라가는 날(2.1), 한식, 봄철 농사관행(거리쟁기), 청명-소만
	여 름	단오, 뗏목, 망종-대서, 백중, 추석, 토종민물고기
	가 을	가을걷이, 토봉, 도정 및 저장, 심마니, 산지당(체험)
	겨 울	숯굽기, 황태덕장, 수렵
산촌 사람들의 애환과 여유	봄	봄철음식, 단오음식
	여 름	여름철 음식, 여름놀이
	가 을	가을철 음식, 감자서리
	겨 울	국수 만들기, 맷돌 돌리기(체험), 겨울철 음식, 대보름 음식, 인제토 산품(진상품)
정 보 검 색		인제의 세시풍속, 민속놀이, 관광지 등

3) 전시연출안의 특징

분 야	특 징	비 고
시 설	유물의 보존 관리를 고려한 전시장	상설 전시실
	지속적인 「특별전」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다목적실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재료	상설전시실
	최적의 유물 수장 환경을 위한 시설물 설치	수장고
전기설비	바수기 대비 에너지 절약형 제어장치 도입	상설전시실
야외전시	산촌의 전통가옥 재현(방동 1리 이덕종 가옥)	
	산촌의 신앙과 농사관행을 체험하는 공간 (김부리 김부대왕당 및 논·밭 연출)	
상설전시	인제군의 민속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시 연출	
	산촌의 독특한 식생활 문화 별도 공간 연출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전시매체	
	정감 있는 분위기 표현을 위한 매체(봉제인형)	애환과 여유코너



너와 집



양 돌

10. 동진(東津) 수리(水利) 민속박물관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한국농촌공사 동진 지사 건물 1층
개관일	1983년 7월 1일

선인들이 사용한 수리·농경·생활용구 등의 민속품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뿌리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동진(東津)농지개량조합에서 세웠으며, 현재는 한국농촌공사 동진 지사에 부속되어 있다. 2천여 년 전 이 고장에 벼농사를 위해 쌓았던 벽골제(碧骨堤, 사적 111호)를 기념하는 뜻에서 수리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수리에 관한 특별 전시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장품은 365종에 1,227점(수리기구 16종 33점, 농기구 126종 322점, 직조기 25종 194점, 민속품 및 생활용품 172종 580점, 이밖에 서화류 24종 96점)이다. 경운기와 같은 현대 농기구의 엔진 등도 전시 되었으며, 길쌈과 베를 짜는 모습과 절구질 모습 등을 마네킹으로 재현하였다. 이 밖에 쌍룡놀이와 기세배 등의 향토놀이를 디오라마로 연출하였다.

현재는 단체 관람객에게만 개방한다.



농 기 구 실



절구와 디딜방아

11. 안동민속박물관

위 치	경북 안동시 성곡동 784-1
전 화	054-821-0649
규 모	5,721평의 부지에 옥내박물관과 야외박물관을 세움

1979년 안동댐 건설에 따라 안동시에서 수몰지역 내에 문화재와 전통가옥 등 16점의 민속 자료를 댐 하류 성곡동의 야산에 옮겨서 민속경관지를 조성한 것이 박물관 건립의 바탕이 되었다. 민속박물관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공사비 40억 원(국비 19억)을 들여서 1981년에 착공, 1990년에 준공하였으며 1992년 6월에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은 전통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안동문화를 담은 민속박물관 겸 야외박물관 구실을 한다.

옥내 박물관에는 안동지방 문화의 특징인 유교문화, 특히 관혼상제를 중점적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를 모형전시하고 있으며 시청각실과 영상실도 갖추었다.

야외박물관에는 보물인 석빙고를 비롯하여 안동댐 건설시 수몰지역에 흩어져 있던 전통 고가옥 등 20여 채를 옮겨놓았다.

가. 전시실은 셋이다.

제1 전시실에서는 기자의례와 산속을,

제2 전시실에는 관례, 혼례, 회갑, 상례, 제례 등 한국인의 일생에 관한 것을,

제3 전시실에는 안동문화권의 민속놀이를 모형으로 전시하였다.

나. 야외박물관에는 각종 고가옥 및 민속자료가 있다. 석빙고(보물 제 305호), 선성현 객사(지방 유형문화재 29호), 월영대(지방 유형문화재 22호), 귀틀집, 돌담집, 토담집, 도토리집, 육각정, 물레방앗간 등이다. 전통음식인 헛제사밥도 맛볼 수 있다. 이 밖에 주차장, 식당, 매점, 장애인시설(엘리베이터) 등을 갖추었다.



혼례식 장면



하외별신굿 탈놀이 장면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가 1976년에 34억 4천만 원(국비 16억5천만 원 포함)을 들여서 1978년부터 1984년까지 건물을 짓고 1984년 5월 개관하였다. 육지와 다른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자연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지 9,970평, 연건평 1,603평으로 자연사와 민속분야 전시실을 갖추었으며,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모습을 알 수 있는 시청각실·수장고·작업실·사무실·자료실·식당 및 매점 등의 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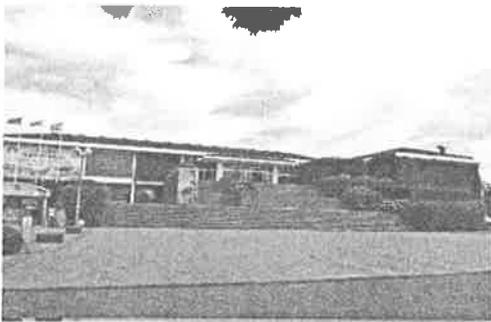
제1 민속전시실의 향토역사관과 민속전시관으로 구성되었다. 향토역사관에는 제주사 연표를 비롯하여, 고대 화폐와 조선시대의 고문서 및 도자기 등 36점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민속전시관에는 아들을 비는 민속에서부터 제례에 이르는 제주인의 평생의례를 비롯하여, 물 허벅을 진 여인과 배테우, 제주 초가, 영등굿 모습의 민속자료 954점을 보인다.

제2 민속전시실에서는 잠수(潛嫂), 사냥 목축 모습을 재현하여, 디오라마 형태로 꾸몄으며, 농경생활 모습 및 여러 가지 농기구를 비롯해서 불미 공예와 집줄농기 모습 등 257점을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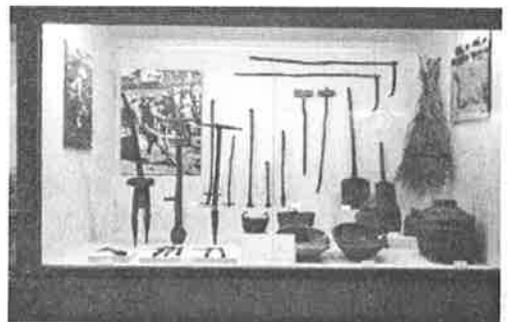
특별전시실에서는 민속, 자연사 분야의 소장 자료 가운데, 희귀품이나 명품, 특색 있는 유품이나 유물을 골라 해마다 3~5회 전시한다.

시청각실에는 96석의 좌석과 영상시설을 갖추었다.

야외전시장에는 석물을 늘어놓았다. 연자매를 비롯해서 화로, 도구리 등의 생활 용구와 등자석, 석등, 망주석, 돌하르방, 지석묘 등의 신앙용구 100여 점을 전시하였다.



전 경



농 기 구 실

가. 연 혁

연 도	내 용
1978년12월 8일	착공
1980년11월28일	설치조례 및 공포
1983년12월30일	관람료 징수조례 공포
1984년 5월24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1988년 2월12일	제주도 문화진흥원에 통합 민속부로 개편
1989년 7월14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환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변경

나. 자료 수집 및 관리

분 야 별	2005년까지의 실적			2006년 수집계획
	전 시	수 장	계	
고고 민속	2395	6,687	9,082	68
동 물	667	11,097	11,764	296
광 · 식물	570	6020	6,590	150
해양생물	364	6819	7183	121
계	3996	30,623	34,619	635

다. 사회교육

- 1) 박물관 어린이 교실 운영(여름 방학 중)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교육
- 2) 제주도 자연생태탐사
: 제주의 생태환경을 바로 알기 위한 현장 탐사 활동
- 3)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 제주의 역사, 민속, 자연에 대해 바로 알기

- 4) 설·추석 민속행사
: 향토음식 만들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햇밤 구워먹기 등
- 5) 박물관 자료그리기 대회
: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의 자연과 문화 알리기
- 6) 갈옷 물들이기
: 풋감을 소재로 제주 전통 염료인 감물을 이용한 체험
- 7) 햇 차 시음회
: 우리 전통 차 시음회
- 8) 해양생물 터치풀
: 제주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대한 체험
- 9) 이동전시
: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도내 외 또는 해외전시
- 10) 제주어 바로알기
: 제주지역어를 통한 제주사람들 이야기



갈고 써는 장면



잠수들

13. 관동대학교박물관

소 재	강원도 강릉시 관동대학교 내
규 모	건축면적 796평, 전시면적 370평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한 관동지방의 농기구(263점)가 중요 전시물이며, 발굴 유물도 갖추었다. 2004년 4월 개교 50주년에 즈음하여, 800평 규모의 독립 박물관 건물을 준공하였다.



전 경



농 경 실

가. 연 혁

연 도	내 용
1976년 4월10일	민속박물관 설립(인문관 5층)
1977년 9월 1일	종합박물관으로 개칭
2000년10월13일 ~11월12일	제6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 탁본 특별전 개최
2001년 7월 1일 ~12월13일	지역문화의 해 기념 탁본특별전 개최
2001년10월22일 ~10월31일	제40회 대현 율곡 이이 선생제 기념 제23회 탁본전시회 개최
2003년10월24일 ~11월 1일	제42회 대현 율곡 이이 선생제 기념 제24회 탁본전시회 개최
2004년 4월22일	개교 50년 기념 박물관 대개관
2004년10월21일 ~10월30일	제43회 대현 율곡 이이 선생제 기념 제25회 탁본전시회 개최
2005년 6월18일	제1회 문화유산답사 실시 (‘세계도자비엔날레’로의 여행 -고려청자를 찾아서-)
2005년10월20일 ~10월29일	제44회 대현 율곡 이이 선생제 기념 제26회 탁본전시회 개최
2005년11월28일 ~12월30일	2005년 복권기금지원 고문서특별전 개최 - 옛 문서를 통해본 영동

나. 시설현황

구 분	사 용 내 용	면 적(평)	비 고
행 정 실	관 장 실	16.3	
	학예연구실	19.5	
	관리실/자료실	20.27	
	소 계	56.07	
전 시 실	고고미술실	131.98	
	교사자료실	34.15	
	민속생활실	163.7	
	서화실/기획전시실	69.42	
	소 계	399.3	
수 장 고	수장고	88.15	
	국가귀속유물수장고	20.16	
	소 계	108.41	
정 리 실 및 휴 게 실	정 리 실	38.12	
	휴게실	7.7	
	소 계	45.82	
시청각교육실	시청각교육실	51.57	
총 계		661.17	

1) 연면적 : 지상 3층 (796평) / 야외전시실

2) 구 성

진 입 출	관동지방 이미지 영역
1 층	관장실, 학예연구실, 행정관리실, 유물정리실, 특별·일반수장고, 체험학습실
간 층	유지엄살
2 층	고고미술실, 교사자료실, 시청각교육실, 휴게실
3 층	민속생활실, 서화탁본실/기획전시실

14. 명지대학교 박물관

가. 연 혁

기 간	연 혁
1979년 3월	개 관
1984년	용인캠퍼스 명진당 6층으로 이전

나. 시설 규모

총면적(평)	60.89					
전시실	5개실 53.5					
	작업실	10.7	관장실	4.57	학예실	13.7
	자료실	4.7	수장고	10.7		

다. 전시실은 고고미술실, 서화실, 민속실, 특별전시실 등 4개 실로 구성되었으며 진열장은 108개이다.

1) 고고미술실

우리나라 역사발전 단계에 따라 시대 순으로 43개의 진열장에 수장품을 전시하였다. 전시품은 주로 선사시대 발굴 고고자료와, 삼국·통일신라기의 토기 류 및 자기류들이다.

2) 서화실

주로 조선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서예가와 화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유한지(兪漢芝)·김정희(金正喜)·장승업(張承業)·김규진(金圭鎭)·유창환(兪昌煥)·김옥균(金玉均)·김태석(金台錫) 등이다. 이밖에 선조·정조·고종 등의 어필과 금강산도와 같은 민화도 갖추었다. 각종 고지도도 볼거리이다.

3) 민속실

조선 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민속자료를 전시하였다. 주로 한반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과 의례에 관련된 자료와 생활 용구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아울러 한의약 관련 자료와 전통 목공구도 많다.

4) 특별전시실

한반도 중부 서해안에서 발견된 고고자료, 특히 조개무덤 출토자료를 전시한다. 오이도·대부도·소야도·등지에서 수집된 많은 빗살문토기와 골기(骨器) 및 석기 등은 신석기시대 연구에 귀중한 자료 구실을 한다.

새김 농기구를 다량 수집하였으나 달구지 및 맷돌 따위만 실내에 전시하였고, 나머지 백여 점은 한 곳에 몰아 두어서 관람이 불가능한 상태임.



대형 농기구 수장고



소형 농기구 수장고

15. 벽골제 수리민속 유물전시관

구 분	내 용
위 치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의 1
부지	30,148평
연 건 평	661평
전 시	4개 상설전시실
전시유물	약 230점
부대시설	단야각, 단야루, 우도농악관

1991년에 벽골제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물 전시관 건립을 추진, 1998년 4월 21일에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저수지였던 벽골제(사적111호)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전 경



벽골제(모형)

가. 전 시

제1 전시실의 이름은 ‘농경의 기원’이다.

벼농사의 전래 및 선사시대 농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농기구와 농점(農占), 농서, 농가월령가 등의 전시를 통해 한반도의 농경문화 양상을 보여준다.

제2 전시실의 이름은 ‘수리의 역사’이다.

여러 가지 물대는 연장과 수리 시설의 발달 과정을 입체적 모형을 이용해서 보여준다.

제3 전시실의 이름은 ‘수전 농경의 요람’이다.

벽골제의 역사와 규모, 축조 과정을 보이는 동시에 벽골제라는 대규모의 수리 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백제의 문화를 보여준다. 이밖에 벽골제 발굴 과정도 상세하게 전시하였다.

제4 전시실의 이름은 ‘황금들녘 김제’이다.

벽골제를 탄생시킨 농경문화의 산실로서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긴 세월을 걸치는 지명의 변천 과정 및 국가 체제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영상실에는 김제시에 대한 시청각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나. 조 직

구 분	합계	행 정 직				건축·전기직		연구직	기능직		기타
		5급	6급	7급	8급	6급	8급	학예 연구사	9급 (기계)	9급	
계	21	1	2	2		1	1	1	1		
관리담당	5	1	1	2				1			청경 8 일용 2
시설담당	3					1	1		1		안내 2
개발기획팀	1		1								

16. 경기대학교 박물관

이 박물관은 1983년 10월 27일, 전국 각지의 농기구를 수집하여 국내 최초의 농경 전문 전시실을 선보였다. 또 1990년대부터 소장하기 시작한 민화의 양도 전국에서 첫 손에 꼽힐 정도이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꾸준히 펴 낸 『한국의 농경문화』는 이 분야 최초의 전문 학술지로서 높은 명성을 유지해 왔다. 이 학술지는 2003년에 6집이 발간되었으며 7집을 준비 중이다. 이어 2000년 10월에 나온 『한국민화도록』(전 3권) 또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2006년 6월에 새 박물관이 준공되어 공간이 대폭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민화 내지 옥공예품 등이 우선되는 바람에, 농기구를 위한 공간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전시실은 민화실, 농경민속실, 옥공예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 유물 현황

구분	합계	선사 고대	도자기	회화	고도서	농경민속	기타
건	1,397	18	147	415	22	753	42
점	2649	29	165	1423	101	889	42

나. 공간 현황

층별 구분	세부 분류	면적(평)
지하 2층	수장고 및 전실	105
	창고	8.49
지상 1층	관장실	8.9
	관리팀 · 연구팀	19.42
	자료실	28.31
	홍보관	56.62
	옥공예실	35.39
	기획전시실	28.31
지상 2층	민화실	132.37
지상 3층	농경민속실	132.37
전체 공유면적		272
총계		828.18



전 경



농경 문화실

17. 농촌진흥청 부속 농업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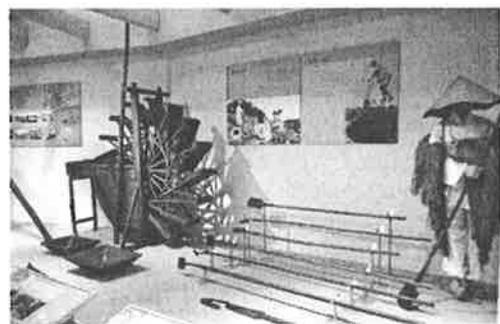
위 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농촌진흥청 내)
규모	1,189 평(지상 1·2층, 지하 1층)

농업과학관은 1983년에 현대농업관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뒤 농경유물관과 자재전시관이 추가되어 규모가 1,189평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전시면적은 823평으로 「농업과 인간」을 전시주제로 하여 인류의 생존을 직접 담당하는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강조한다.

전시실은 농업 역사실(202평), 현대 농업실(183평), 미래 농업실(100평), 신기술전시실(33.5평), 기획전시실(33.5평)로 이루어졌다. 식물, 표본과 모형, 패널과 영상 신기술을 조합한 다양한 전시를 하여 관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끈다. 2005년에는 학생, 교사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전시 및 이벤트를 8회에 걸쳐 벌였으며,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었다.



전 경



무자위와 살포

18. 농촌진흥청 부속 농업기계역사관·잠사과학박물관

농촌진흥청 관내에는 농업과학관 외에 농업공학연구소에 딸린 농업기계역사관과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가 관리하는 잠사과학박물관이 있다.

농업기계역사관은 전통농기구에서부터 현대농기구를 수집하여 기초적인 설명을 곁들여 진열해 놓았다.



전 경



농 기 구 실

1999년에 문을 연 잠사과학박물관은 누에를 키우고, 실을 뽑고, 비단을 짜는 전통적인 모습과 연모, 근현대의 기계화된 견직공업과 그 생산품, 그리고 사양산업이 된 옷감 생산이 아니라 누에를 원료로 하는 최신 생명공학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보인다. 이 밖에 비단제조에 관한 소중한 자료도 갖추었다.



잠 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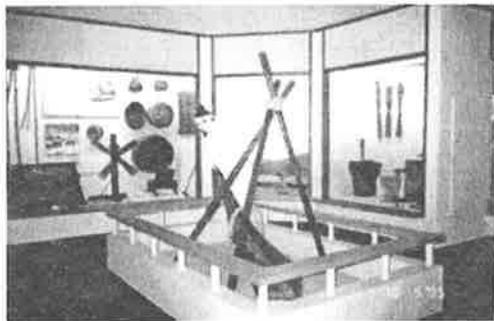
견 직 연 모

19. 경남 농업 기술원 부속 농경문화관

이 문화관은 1983년에 개관하였으며, 2003년에 증축과 동시에 전시 체계도 바꾸었다. 현재는 경남농업기술원 기술 보급국 기술기획과 미디어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 한다. 농기구 관련 소장품은 580여 점이며, 이 가운데 300~400점을 전시하였다.



전 경



농기구 전시실

■ 국외 사례

국외 사례로는 일본 4개소, 중국 3개소, 베트남 1개소, 덴마크 1개소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 일 본

1. 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

위치	大阪府 吹田市 千里万博公園 10番地 1號	전화	06-876-215
규 모(평)			
부지	16973.3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상 4층 일부 지하 1층		
건축 면적	4033.3		
전시실	1125.3		
총 공사비	70억 엔		

가. 연 혁

국립민족학박물관 건립 구상은 1935년에 시작되었으며, 1964년에 민족학·민속학·고고학·인류학 등의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 안을 문부성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학박물관 건립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였다. 1977년 11월 국립학교 설치법령에 의거,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내에 현재의 국립민족학박물관이 개관되었다. 2004년부터 국립대학 법인법에 따라 법인체로 운영된다.

나. 설립목적

민족학(문화인류학)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세계 여러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인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세웠다.

이곳에서는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성과를 전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대상은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민족이다. 자료는 의식주 등의 생활용구 뿐만 아니라 문헌, 사진, 필름, 레코드, 테이프 등도 수집한다. 따라서 세계 여러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종합자료관인 셈이다.

이 종류의 박물관으로는 세계 제일급의 규모와 수준을 자랑한다. 국립대학 공동 이용 기관이라고 불릴 만큼 학술연구에도 온갖 노력을 쏟는다. 수 십 명의 교수 및 조교수와 여러 교관(敎官)들이 민족학 연구를 진행한다. 전시장에 나타난 세계 여러 민족 문화는 이들의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박물관 전시품은 문화재라기보다 학술 연구 자료에 가깝다.

다. 조직 및 예산

문부성 산하의 국립대학과 똑같은 편제를 갖추었다. 문부성장관이 임명하는 평의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박물관 사업과 관리, 운영 및 공동연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절한다.

정원은 관리부 28명, 정보 관리부 18명, 연구부 99명으로 총 145명이며, 교육연구평의원 20명, 운영협의원 20명이다. 2004년도 예산은 2,417백만 엔이었으나, 2005년도는 2,209백만 엔으로 줄었다. 유물구입비와 일반 관리비가 감소된 탓이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예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라. 전 시

전시는 오세아니아·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서아시아·중앙아시아·북아시아·동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 밖에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은 비교 문화를 위한 전시도 한다.

이 박물관의 특징은 영상기술(비디오 테크)에 있다. 대량으로 마련한 영상 음향 자료는 관객의 선택에 따라 영상 음향시스템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세계 여러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영상자료는 약 2,300 종이며, 이 가운데 각 민족의 풍속, 관습 등의 사회 문화 전시자료가 700여 종, 민족음악, 세계 언어 등의 음향전시용 자료가 150여 종이다.

이 밖에 기획전을 열 때마다, 그 내용이 되는 학습자료 및 모형 유물을 한 묶음으로 제작한다. 학생들은 박물관에 오기 전에 학교에서 이것을 보는 까닭에, 어느 정도의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 결과는 박물관 관람에 큰 도움이 된다.

· 지역과 전시 주제

구 분	전 시 주 제	
지역전시	오세아니아	해양민족, 생활사, 의례의 세계
	아메리카	고대아메리카 문명, 아메리카 원주민의 생활
	유럽	유목 농업과 식품 가공, 일상생활
	아프리카	아프리카 문명의 발자취/의례와 조형의 세계 /에티오피아의 문화

구분	전시주제	
지역전시	서아시아	농경, 목축의 생활/도시의 생활/이슬람교의 세계
	동남아시아	도작문화, 산지민의 생활/신앙의 세계, 공예와 예능
	중앙, 북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유목과 농경문화/몽고의 유목문화 /북아시아의 수렵과 어로문화/샤머니즘의 세계
	동아시아	한반도/중국/아이누/일본의 문화
비교문화 전시	음악	제민족의 악기, 일본의 악기
	언어	다양한 문자/일본어/음성의 구조, 어순의 유형

· 각 전시실의 유물 및 판넬 수

실 이름	전시장 면적(평)	전시 표본 수	사진 판넬 수
오세아니아	209	705점	79점
아메리카	96.7	335	38
유럽	70.6	198	27
아프리카	178.7	883	35
서아시아	100.7	379	30
음악 전시	97.3	182	223
언어 전시	137	65	2
동남아시아	218	970	54
중앙·북·동아시아	802.3	3610	270
합계	1910.3	7327	758



상례와 제례 장면(한국 문화 코너)

마. 문화교육시설

1) 비디오 테크

비디오 테크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영상에 의한 자기 학습 장치이다. 광디스크를 통해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소개하고, 이용자는 비디오 부스의 화면 터치 방식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2) 영상음향시설 : 스튜디오, 영상음향편집실, 정리실

1977년부터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꾸민 연구 자료를 제작해 왔다. 국내는 물론이고 프랑스, 세네갈, 니제르, 네팔, 카메룬,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지에서 해외 조사를 펼친 결과, 현재 약 213,000여 점의 영상 자료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의 일부는 비디오 테크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한다.

한편, 기존의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 필름자료들을 광디스크로 전환시키는 작업도 시행 중이다.

3) 자료실

4) 도서열람실, 서고, 지도 자료실, HRAF실

소장 자료는 관리정보 DATABASE 등 표본자료 357,000여 점, 영상 음향자료 213,000여 점, 도서자료 265,000여 점, 세계 민족지 자료 도표((Human Relation Area Files) 812,000여 점, 기타 자료 12,000여 점 등 총 1,667,000여 점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민족지자료도표는 세계 모든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문헌들을 선택, 수집하고 그 내용을 독자적인 항목 분류시스템에 따라 분류한 카드화일이다. 현재 세계 342개 민족의 파일이 제작되었다. 또 세계 각 대학 및 연구소와 마이크로필름이나 CD-ROM 등을 통한 정보 교환을 하며,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5) 강당, 세미나실

6) 야생화, 산림단지

7) 화장실

전통 장실과 현대적 화장실을 함께 갖추어서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바. 유물관리

- 1) 유물 관리는 상설전시 유물과 수장고 유물 관리로 나뉜다. 유물을 분류 보관하는 것보다 소재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다. 보관상 주의를 요하는 옷감, 칠기, 종이류 등은 보존을 위해 특별한 장소에 둔다.
- 2) 수장고는 5개의 일반 수장고와 10여개의 특별 수장고가 있으며, 이곳에서 유물의 임시 보관, 정리 등의 작업을 한다.
- 3) 수장고의 온도 및 습도는 컴퓨터에 입력된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한다.

2. 국립역사민속박물관(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81년 설립 되었으며, 전시는 1983년부터 시작하였다.

가. 규 모(평)

대 지	43,165
구 조	지상 5층, 지하 2층
건축 연면적	11,945
전시실	515.3
수장고	194.3

이 박물관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요문화재 및 역사자료 16만점을 소장, 전시하는 종합역사박물관이다. 실물자료는 물론이고, 정밀한 복제품과 대형으로 복원한 모형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전시하였다. 또 대학 공동 이용기관으로서 대학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박물관 내 대학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또 1999년부터는 일본역사 연구의 박사과정도 개설하였다.

이 박물관의 종합적인 일본사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사학, 유적발굴에 의한 과거 사람들의 활동 흔적을 연구하는 고고학, 현대인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관습 및 구전

을 분석하는 민속학 등 세 개 분야의 학문과 이와 관련된 여러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성과를 전시 및 출판을 통해 재생산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수단을 통해서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한다.



박물관 전경

현재 5개의 상설 종합전시실은 서민의 생활사에 중점을 둔 25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상설 종합전시는 일본역사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현대의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선정, 이를 생활사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일본 열도의 지리적 조건을 상징하는 바다를 바탕으로 한 프롤로그에 이어서,

제1 전시실은 원시 및 고대의 일본을,

제2 전시실은 중세의 일본을,

제3 전시실은 근대의 일본을 전시하였다.

이들 전시실에서는 총 13개의 주제와 3개의 부 주제를 시대 순에 따라 배치하였다.

제4 전시실은 일본 민속에 관한 6개의 주제를,

제5 전시실은 근현대 일본에 관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들 25개의 주제는 박물관 내외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나. 전시자료

각각의 주제에 따라 선정된 실물자료를 비롯하여, 복제 및 복원 모형을 효과적으로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래픽 패널, 비디오 영상 등의 보조수단도 이용해서 각 주제를 설명하였다.

1) 제1 전시실

일본문화의 형성과정을 일본 열도에 인류가 최초로 등장했던 구석기시대부터 당나라 관료

제도의 영향을 받아 율령국가를 발전시켰던 8세기의 나라(奈良)시대에 이르기까지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많은 조문(繩文)시대 토기와 야요이(彌生)시대에 이루어진 대륙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청동기 등의 금속도구, 고분시대 이후의 출토 유물, 신사의 종교적 제사 의식의 기원을 보여주는 오키노시마(沖の島)의 현납품, 헤이쥬쿄(平城京)의 모형 및 나라시대의 귀중한 자료인 쇼소인(正倉院)의 문서 등이 원시 고대의 일본으로 안내해 준다.

2) 제2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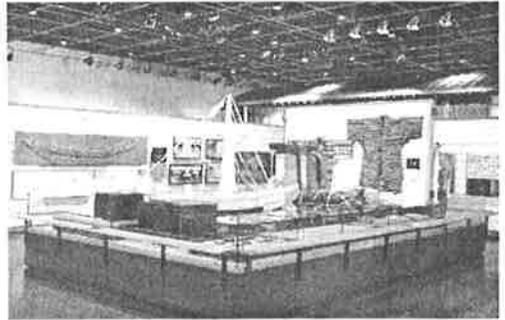
8세기 말 헤이안(平安)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시대를 걸쳐 16세기 아즈치 모모야마(挑山)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인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귀족, 무사, 서민의 계층에 따라 설명하였다. 헤이안시대의 우아한 왕조문화, 가마쿠라와 이치쥬다니(一町谷)에 있던 무가의 생활상, 여러 가지 직업을 지닌 서민의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과의 국제관계 및 일본과 서양의 첫 만남에 이르기까지가 주 내용이다.

3) 제3 전시실

기본적인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에도(江戸)시대 일본사회의 기반을 지탱한 농민의 세계를 당시 도시의 활발한 상업 활동 및 번영과 비교하여 대조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미 18세기에 인구 백만을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하나가 되었던 에도의 모습 일부를 에도바시 이로코지 주변의 정밀한 투시모형을 통해 소개하였다.



제1 전시실 전경



제3 전시실 전경

4) 제4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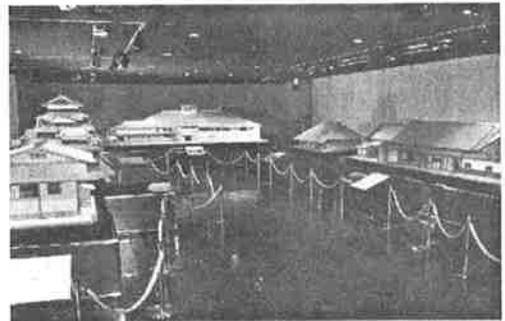
‘일본인의 민속 세계’라는 주제로 도시, 농촌, 산촌, 어촌 그리고 오키나와(沖繩) 남도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생활양식을 소개하였다. 특히 그 정신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민속 신앙도 보여준다. 실제 자료와 실물 크기의 복원 모형으로 일본인의 의식세계를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5) 제5 전시실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를 세 가지 주제로 꾸몄다. 먼저 메이지(明治) 정부와 일반 대중의 최대 관심사였던 문명개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제지 및 제철산업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홋카이도(北海道) 개발이 원주민인 아이누인에게 미친 영향과, 1923년의 간토(關東)대지진 상황에 대한 영상 자료도 볼 수 있다.



제4 전시실 전경



제5 전시실 전경

6) 기획전시실

세 개의 기획전시실에서는 한 해 네 번씩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 밖의 기간에는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모형을 전시한다. 모형은 원칙적으로 실물의 10만분의 1 크기로 만들며, 외곽 뿐 아니라 내부구조와 세부사항까지 충실하게 재현한다.

도서관에는 역사관련 사전류와 통사, 그리고 미술서적 및 전시 관련 도서 등 약 8,500권이 있다. 아동코너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만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시청각실과 비디오실에서는 간단한 조작으로 전시 내용과 민속 문화재 영상자료를 관람한다. 또 일본 각지의 지역별 민요도 들려준다. 박물관 매점에서는 가이드북, 연구보고서, 특별 기획전시 관련 출판물, 박물관 간행 도서, 그림엽서, 잡지, 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3. 오사카 역사박물관

위 치	大阪府 中央區 大千水前 4丁目 1番 32號
연락처	06-6946-5728

가. 설립목적

오사카시에서 건립한 이 박물관은 〈나니와노미야〉·〈오사카학〉 연구의 거점 구실을 해왔다. 나니와노미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도시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시내 각 박물관과의 네트워크도 추진 중이다.

나. 시설 및 규모(평)

부지	43,333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전시실	1670.2(상설전시실 1372.7 / 특별전시실 297.5)
수장고	729.7(제1~제8 수장고)
소장 자료	약 7만 7천점(중요문화재 5건)

다. 건물 구성

층	시 설
12층	연구실, 제 1, 2 수장고, 사진실
10-7층	상설전시실
6층	특별전시실
5층	사무, 학예사실
4층	강당, 연수실
2층	학습정보센터, 회의실
1층	레스토랑, 뮤지움 샵
지하 1층	지하유구, 제 3, 4 수장고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3층	제 5~8 수장고

라. 전 시

- 1) 오사카의 역사적 경관과 함께 1350년경의 도시 <오사카>의 흐름이 실감나도록 구성하였다.
- 2) 엘리베이터로 10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대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관람한다. 이 사이에 오사카 성과 나니와노미야를 감상한다.
- 3) 관람은 두 개의 코스로 나뉜다. 하나는 실물 크기의 재현과 영상 등을 통해서 도시 오사카의 역사를 아는 '하일라이트 코스'이고, 다른 하나는 유물까지 모두 감상하는 '상세 코스'이다
· 각 층의 주제

층		주 제
10층	고대 층	체감! 다이코구텐
9층	중근세층	물의 도시를 돌아본다
8층	역사 발굴층	고고학에 도전
7층	근현대층	거리의 파노라마
지하 1층	지하유구	실물의 고대유적

4. 비와코 박물관

위 치	滋賀縣 草津市 下物町 1091
연락처	77-568-4811

가. 테 마 : 호수와사람

나. 설립목적

“호수와와의 만남으로 자연과 사람들이 보인다. 역사와의 스킨십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는 구호 아래,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사람·물건·정보가 교류하는 곳으로 성장, 발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코 연구 결과를 관람객과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다. 시 설

- 1) 홀과 세미나실 : 관람객 가이드, 박물관 사업, 어린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사용한다.
- 2) 실습실과 생활 과학 실습실 : 어린이, 학생들의 체험 및 박물관 관람을 위해 사용한다.
- 3) 정보 이용실과 도서실 : 영상 및 비와코 박물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한다.
- 4) 휴게 코너 겸 카페테리아, 옥상광장, 박물관 식당
- 5) 뮤지엄 샵
- 6) 전시실
- 7) 수장고, 서적 보관고
- 8) 사무실, 학예실

라. 전 시

전시실 자체가 체험관이라 할 정도로 체험 위주로 전시를 하였다.

· 전시실과 주제

구 분		주 제
2층	A 전시실	비와코의 성장과정
	B 전시실	사람과 비와코의 역사
	C 전시실	호수의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1층	C 전시실	담수에 사는 생물들
	발견실	오감을 사용하는 즐거운 체험학습
실 외	야외전시	생활 실험 공방, 논과 밭, 생태 관찰 수로, 못, 태고의 숲, 조몬 및 야요이 시대의 숲



보드에 붙인 학예사의 연구내용
(관람객은 개개인의 연구 성과를 알 수 있다)

■ 중 국

1. 중국농업박물관

위 치	中國 北京市 東三環 北路 16號(중국 베이징시 동삼환 북로 16호)
면 적	1,100(평)
등 급	국가급 자연과학류 전문박물관
인 원	총 286명(정규직 100여 명, 고학력 연구원 40여 명)

가. 역 사

1983년 7월 국무원에서 국가농업부 산하 중국농업박물관의 건립 승인

1986년 9월 중국농업전람관 내에 개관

나. 조직과 업무

구 분	조 직 내 용	주 요 업 무
1	종합판공실(綜合辦公室)	당 위원회 및 사무실
2	인력자원부	인사 업무
3	계획 재무부	예산 업무
4	기건(基建)판공실	보수 관리
5	보위부	안전관리
6	이퇴(離退)판공실	퇴직 인원 관리
7	연구부	연구 및 학술 교류
8	사교부(社教部)	홍보 및 교육
9	장품부(藏品部)	유물 및 자료 관리
10	사업발전부	박물관 사업 및 문화 사업
11	신식중심(信息中心)	정보 서비스
12	초대소	숙박시설 관리
13	후근(后勤)중심	조경 및 건물 관리

다. 전시관은 다음의 네 부서로 이루어졌다.

- 1) 중국 현대농업 과학기술 전시관(中國現代農業科技陳列館)
- 2) 중국 전통 농기구 전시관(中國傳統農具陳列館)

- 3) 중국 희귀 수상동물 표본 전시관(中國珍稀水生動物標本館)
- 4) 중국 희귀 육상동물 표본 전시관(中國珍稀陸生動物標本館)

라. 중요 연구실

중국농업 역사연구실 / 중국농업 민속연구실 / 중국농업 국정연구실 / 『古今農業』 편집부 / 박물관 예술설계연구실 / 농업문물 고고연구실

마. 소장 유물

유물표본 1만여 점(희귀 농업 유물 2000여 점) / 전통농기구 2000여점 / 토양표본 230여점 / 도서 및 고적 50000여 책 / 사진자료 1만여 점

바. 학술지 발간

- 가) 『고금농업(古今農業)』 / 계간지
- 나) 1987~2001년(내부발간물), 1999-L0310호
- 다) 2003년(정식출판물), CN11-4997/S

2. 북경민속박물관

위 치	북경시 조양문 외대가 141호(北京市 朝陽門 外大街 141號)
등 급	북경시 조양구 구립박물관
인 원	22명
역 사	1997년 동악묘에 건립 개관
조 직	전시부, 자료연구부, 사회교육부, 보위부, 관장사무실

가. 전시관

9개의 연속전시실과 4개의 독립 전시실로 이루어졌다.

- 1) 상설전시(동악묘 역사전, 생활유물전, 생산도구전)
- 2) 특별전시(옛 북경 상업민속유물전, 닭전, 剪紙전 등)

- 3) 원대의 '工'자형 건축
- 4) 원대(元代)의 국보급 신상 및 716존 신상 전시
- 5) 中庭 공간의 각종 영련(楹聯)과 비각(碑刻)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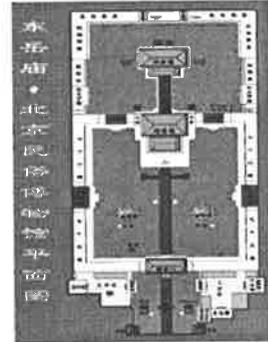
나. 관련기관

- 1) 중국민속학회
- 2) 200여 명의 민간공예부문 장인 및 100여 명의 유물수집·감정가와 교류협력

다. 출판물

가) 『北京民俗報』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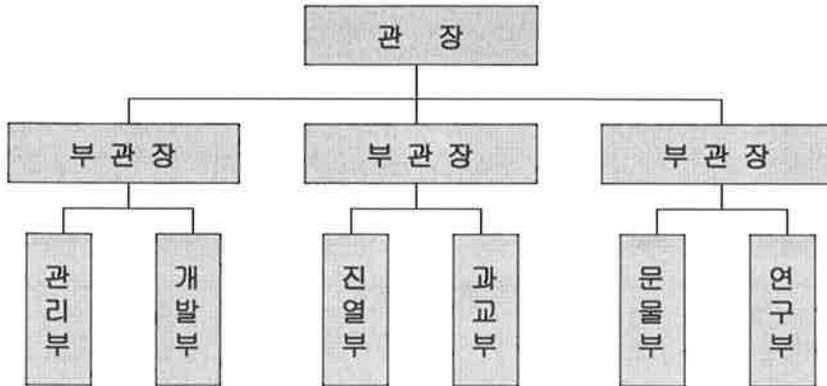
나) 『北京民俗博物館』 年刊



3. 운남민속박물관

위 치	중국 운남성 곤명시
면 적	약 4만평
등 급	운남성 민족사무위원회 산하 省立박물관
인 원	83명(남 57명, 여 26명) 연구원 8명, 부연구원 22명, 관원 22명, 보조관원 16명
역 사	1995년 11월 9일 개관

가. 조직구성



나. 전시관 : 11개 전시실

명절문화, 민간 미술, 민족 복식, 소수민족 사회형태 및 개혁과 발전, 생업, 민족 악기 민족 고서, 민간 수공예품, 미술작가 전시실, 기석진보(奇石珍寶) 등

4. 주요 민속박물관 일람표

·주요 민속박물관 일람표

번호	박물관명	주소	건립연도	박물관 건축형태	기본전시
1	룽징(龍井) 조선족 민속박물관	吉林省龍井市 安民街	1982	일반건축물, 복원한 전통민가, 신식민가	생산, 노동, 공예, 장식, 일생의례, 문구, 고적, 민간신앙, 놀이, 백년간의 가정생활장면
2	엔베이엔(延邊) 조선족 민속박물관	吉林省延吉市 參花街	1983	일반 건축물	생산활동, 생활풍속, 일생의례, 문화활동
3	이통만족(伊通滿族) 민속관	吉林省伊通縣 伊通鎮伊通大街	1987	倣古 건축	역사유적, 제례, 샤머니즘, 생활풍속
4	딩촌(丁村) 민속박물관	山西省襄汾縣丁村	1985	명칭민가	세시풍속, 일생의례, 복식과 기구, 생산과 교통

번호	박물관명	주소	건립연도	박물관 건축형태	기본전시
5	치현(祁縣) 민속박물관	山西省祁縣 東觀鎮喬家堡	1986	청대민가	일생의례, 세시풍속, 민간신앙, 상업민속
6	허베이엔(河邊) 민속박물관	山西省定襄縣 河邊鎮	1989	중화민국 閻錫山 고거	의식주, 오락, 신앙, 생산, 일생의례
7	티엔진(天津) 민속박물관	天津市南開區 古文化街	1986	명청 天后宮	조운, 황송예술, 혼인생육, 상업, 생활, 민간예술
8	쑤저우(蘇州) 민속박물관	江蘇省蘇州市 潘儒巷	1986	명청 貝氏가택	혼례, 壽俗, 음식
9	난징(南京) 민속박물관	江蘇省南京市 建鄴區南捕廳	1989	명청 甘熙고거	福壽堂, 民藝廳, 감희고거 모형진열실, 비디오실
10	저우커우시(周口市) 민속박물관	河南省周口市 富強街	1987	청대 關帝廟	근대혼례, 민간예술, 민간자수, 민간신앙
11	루어양(洛陽) 민속박물관	河南省洛陽市 瀉河區新街	1988	청대 關帝廟	혼례, 壽俗, 信仰風俗, 자수, 민간예술
12	사오우(邵武) 민속박물관	福建省邵武市 五四路道佳巷	1987	명말청대 민가	혼례, 복식, 생활용품, 세시절기, 자수
13	시저우토가족(溪州土家族) 민속박물관	湖南省永順縣 不二門園林公園	1987	倣古 건축	신앙, 혼례, 민간공예, 거주와 생산
14	시양시(湘西) 민속풍광관	湖南省永順縣 王村芙蓉鎮	1989	민국 福音堂	土家族신앙, 혼례, 묘족절기, 민족공예
15	시지아산(夕佳山) 민속박물관	四川省江安縣 夕佳山鄉	1988	명청 黃氏 가택	경작, 의식, 신앙, 혼례, 장례, 공예, 악무, 희극
16	탕지아(唐家) 민속박물관	陝西省旬邑縣 唐家村	1988	청대 唐氏가택	농촌 부호의 생활풍속, 墓葬遺址

번호	박물관명	주소	건립연도	박물관 건축형태	기본전시
17	루어촨(洛川)민속박물관	陝西省洛川縣鳳棲鎮北關	1993	倣古건축	생산, 절기, 가족, 일상생활, 놀이, 일생의례, 그림자극, 燈會
18	사오싱(紹興)민속박물관	浙江省紹興市越城區都昌坊口	1989	청대 魯迅고거	음식(세시음식, 차, 술, 토속음식), 혼례
19	위장(豫章)민속박물관	江西省南昌市子固路	1989	민국 기독교당	豫章풍속(도시, 혼례, 민간신앙), 민간공예, 세시풍속(풍속화)
20	똥후양(敦煌)민속박물관	甘肅省敦煌市月牙泉風景區	1989	倣古 민간장원	堡壘式장원, 신앙, 혼례, 의식기거, 土翳, 義烈, 수공업, 농기구, 민간체육기계, 세시풍속
21	츠러촨(敕勒川)민속박물관	內蒙古呼和浩特市特左旗 台閣牧鄉	1990	倣古건축	혼상례, 농목업활동, 상업활동
22	칭따오시(靑島市)민속박물관	靑島市前海一線太平路	1998	명대 天后宮	天后문화, 바다제사와 漁航, 민간공예
23	베이징(北京)민속박물관	北京市朝陽區朝陽門外大街	1999	청대 東岳廟	비정기 민속전

■ 기 타

1. 베트남 민족학박물관(Vietnam Museum of Ethnology)

위 치	베트남 하노이(Nguyen Van Huyen, Cau Giay District, Ha Noi)
연락처	84-4-756-2193, Web Site : http://www.vme.org.vn
개 관	1997년 11월 개관
전시품	25,000점의 가공품과 15,000개 이상의 사진

이 민속박물관은 54개 소수 부족의 생활과 민속, 제례 절차 등을 지도와 모형, 비디오를 통해 보여준다. 이밖에 소수 민족별로 전시실을 나누고, 중요한 축제 및 생활풍습을 비디오로 상영해서 베트남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야외전시장에는 가옥뿐 아니라 제례 등 신앙과 관련된 건축물도 세웠으며, 건물 내부에 다양한 생활 문화를 전시하였다. 길이 50 미터의 주거건축에는 각종 생활용구를 배치하였으며, 야외에는 도자기 공예 공방과 수중인형극 공연장이 있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교육내용 및 주제는 소수민족의 문화 및 생업에 집중되어서, 각 민족 생활문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일 년 중 가장 큰 규모의 교육인 가을축제에서는 베트남 소수민족 뿐 아니라, 인근 아시아 지역의 문화도 소개한다. 또 생업과 연관된 교육을 위해 도자기 마을이나 전통약재를 생산하는 약초마을 등에서 현장 학습을 펼친다.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문화유산 교육에 관련된 연구 결과물이나 최종 자료를 학교 교과 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예컨대 사회교과에서나 가능한 문화유산 관련 교육을 물리·화학 교과에서도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같은 종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 소수민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시아 문화권의 다양한 민족 문화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찾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가. 주요시설

- 1) 전시관(실내 상설 전시관, 야외 전시관, 특별전시관)
- 2) 디스커버리룸, 자료센터(도서관, 영화, 비디오, 음악), 도자기 체험관, 수장고, 매표소
- 3) 부대시설
박물관 관련 서점, 기념품 숍, 식당, 카페
- 4) 건축시설
야외 수중 인형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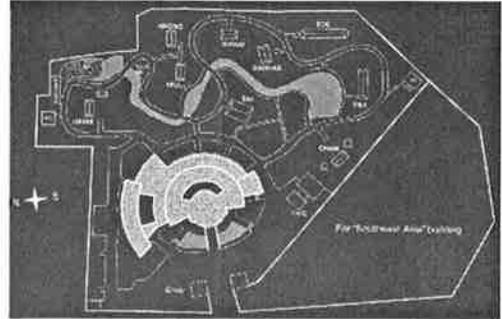
나. 전시관

- 1) 면적 : 727평
- 2) 특징 : 프랑스 인류학박물관의 디자인 협조로 세운 동고(銅鼓) 모양의 2층 건물이다. 로비 바닥은 태극모양으로 육지와 바다(음과 양)를 나타내고, 지붕의 원은 태양을 상징한다.
- 3) 구성
1층 : 안내데스크, 중앙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2층 : 상설전시관, 디스커버리룸, 자료센터

실내 전시는 7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언어를 기준으로 민족과 지역을 분류한 까닭에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베트남민족학 박물관 전경



박물관 배치도(야외전시관, 뮤지엄 샵, 카페)

다.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은 여러 건축물, 연못, 시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건축물은 대표적 민족의 주거를 중심으로 삼았으며, 이 밖에 제당(祭堂), 공공건축물, 장례식장 등도 세웠다. 건물 내부에 전시한 다양한 생활 집기와 생활 문물을 통해서 관람객은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다.

라. 수중인형극

농민이 창작한 수중인형극 공연은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가을이나, 설 등의 명절에 열린다. 옛적에는 인형을 나무와 풀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현대의 재료도 쓴다. 크기 30~100cm에 무게 1~5kg의 인형들은 기본적으로 몸통과 아랫도리로 구성된다. 28개였던 수중인형극 공연단은 현재 15개가 남았다.

마. 교육시설

1) 디스커버리 룸

2002년 1월에 문을 연 디스커버리 룸은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이다. 23.3평 규모에, 약 100여개의 교육용 유물 및 자료를 비치하였다. 소수민족의 생활용구 및 생업과 관련된 유물은 호기심 상자 등을 통해 이해시킨다. 관련 교구는 소수민족에 대한 개괄

적 이해와 소수민족별 특징을 직물문양, 직조방식 등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최근에는 IBM사에서 지원한 컴퓨터용 과학원리 체험게임을 설치해서, 방문 청소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공간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개방되며 특별교육 등의 장소로도 이용한다.

2) 전통약초교실

전통약초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약에 대한 지식과, 자연물을 채취·제작하는 방법 등 전통사회에서 이용한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약물의 재료인 약초를 실물을 통해 구별하는 방법과, 종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야외 전시장의 약초를 통해 배운다. 또 전통약재를 재배하는 현지 마을을 찾아가서, 약과 약초를 생업의 바탕으로 삼는 현지 거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다.

3) 도자기 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 교실에서는 반죽에서부터 가마에 굽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한다. 완성품은 간이 전시장에 전시한다. 도자기 수출로 유명한 하노이 지역 근교의 도자기 마을을 답사하는 일정도 있다.

4) 야외전시장

교육의 주제는 소수민족의 생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옥형태, 재배작물, 생활용구의 재질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핀다. 전통약초교실 등과 같은 자연체험학습을 펼치며, 이에 필요한 약초 등도 재배한다.

5) 시청각실

박물관에서 수집한 소수민족 생활 문화에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는 공간이다. 음향 자료와 영상자료 외에, 컴퓨터 시청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자료로 바꾸었다. 이용자는 개별 컴퓨터에서 자체 검색 프로그램과 자료 목록을 통해 직접 감상한다. 실내전시장 내에도 여러 대의 PDP가 마련되어서, 관련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

바. 교육내용

일반인(어린이 포함), 전문가, 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과 과정이다. 교사 및 박물관 직원 대상의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주제는 소수민족 문화이다. 일반인은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와 생활문화를 체험시키고, 전문가들은 소수민족의 생활문화를 교육 현

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박물관 직원은 소수민족 관련 조사방법 및 전시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1) 2005년~2006년의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성격·내용
상설체험교육	어린이· 청소년	소수민족문화 상설체험 : 소수민족문화 이해 유물감상 및 간이체험
가을축제	어린이· 청소년	축제형식의 체험교육 : 아시아의 포괄적 민족문화 공동체험 및 놀이
직물교실	청소년	소수민족의 구별과 특징 이해 : 직물을 소재로 소수민족별 다양성 학습
전통약초교실	청소년	소수민족의 전통약학 소개 : 자연물에서 채취한 전통적인 약물에 대한 학습
도자기교실	어린이· 청소년	도자기 제작 체험 : 생업과 관련된 도자기 제작을 통해 생활문화 이해
민족지 영화제작	박물관 직원	박물관 전문교육 : 현지에서의 영상물 채집에 관한 전문지식 학습
문화유산 교육	교사	교과과정 연계교육 : 화학·물리 등의 교과과정 속에서 전통 문화 요소 발굴 및 교수방법 학습
전시· 디자인교육	박물관 직원	박물관 전문교육 : 외부 전문가 초청 박물관 직원 대상 전문교육
기 타 : 학생작품전시	교육 참가자	교육 참가자가 만든 결과물 전시

2) 가을축제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인 가을축제(Mid-Autumn Festival)는 가장 대표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이다. 주제는 해마다 바뀌어서 2002년에는 전통인형, 2003년에는 전통놀이, 2005년에는 전통 연과 놀이었다. 이 교육에서는 해외의 전통놀이를 세부 주제로 다루기도 한다.

교육은 놀이기구를 직접 만드는 개별 체험교육과, 참가자 전체가 모여 대동의 장을 이루는 단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가을축제’라는 별칭처럼 중심은 놀이를 통한 축제에 있다.



민속놀이 교육 및 축제



일본의 민속놀이 소개

3) 직물교실 : 방학 중 교육

주요 교육 대상은 10대 청소년이다. 참가자는 방학 기간 중에 매주 두 번 두 시간 씩, 8주에 걸쳐서 32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2005년에 처음 개설되었다. 교육 과정은 베트남 소수민족 전통문양에 대한 기본 학습과 직물 제작원리, 염색 및 인쇄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인형, 지갑, 가방 등을 제작하는 응용과정 등이다. 2006년에는 몽족, 타이족, 비엣(베트)족의 각기 다른 전통직물 제작법을 가르쳤다.

4) 문화유산교육 : 교사 대상

교사 대상의 문화유산 교수법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주로 다루지만, 현지 학교사정 및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교육방법 및 소재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별도 시행할 수 없는 까닭에, 교사의 전공분야별로 연관된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 부분을 세부 주제로 설정한다. 2005년의 세부주제는 화학 및 물리학 관련 교육이었다.

2. 덴마크 국립박물관

이 박물관은 1807년 5월 22일에 설립되었다. 1941년에 야외 민속박물관이 독립하였고, 1956년에 보존과학부 및 사회교육부 등을 두면서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었다. 전시물은 자연사,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민족학 등 인간과 문화와 관련된 전(全) 분야에 걸치며, 시대도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약 만 2천년 동안의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보인다.

가. 구 성

제1부에는 고대 유물과 함께 고대주거지, 분묘, 유물포함층, 소택(沼澤) 등의 사진 및 유적 지도를 전시하였다. 석기시대의 흑묘석 단검, 청동기시대의 말이 태양을 수레에 실어 나르는 청동제품 및 통 참나무 관(棺)과 17세 처녀가 입었던 의복, 금 사발, 철기시대의 금은으로 만든 유물, 기념비 등이 중심을 이룬다.

제2부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문화를 보인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예술품, 후기 르네상스의 목 조각, 성과 사원 등의 모형이 돋보인다.

제3부의 민속박물관에는 야외박물관이 딸려 있다. 이곳에는 1660년부터 1848년 사이의 주요 저택, 귀족·목사·상인 등 전 계층의 문화유산을 집약적으로 전시하였다. 여러 지역의 귀틀집, 고대의 형장구, 사형수장비, 옛 표지나 간판, 수공업자 조직의 문장(紋章), 장난감 인형가구, 연초구, 서필(書筆), 직물, 도자기 등 각종 생활 관련 유물들이다.

제4부의 민족학박물관 전시실은 105개이다. 극지대의 생활문화 및 북부 스칸디나비아 Lapp족의 문화를 비롯하여 북 러시아, 태평양 해안, 캄차카반도, 에스키모,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생태, 남미, 아프리카 등이 중요 전시품이다.

제5부의 근동 및 고전박물관에는 이집트, 서남아시아(근동),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그 시대의 조각, 도자기, 목공예품, 분묘, 미이라, 분묘부장품, 인장, 보석, 상형문자 등을 갖추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

제6부의 동화 메달 박물관(Royal Collection of Coins and Medals)에는 왕실소유의 고전(古錢)과 기념훈장과 주화(鑄貨)를 늘어놓았다.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각 국 귀족들이 수집한 진기한 주화 및 기념 메달들도 있다.

제7부의 야외박물관(Open-air Museum)은 1901년에 개관되었다. 농가, 가구, 의복, 종교 의례 장소 등 농민의 문화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지역적인 문화 특성을 중시하여 야외박물관 공원에 농촌 및 원예농장 등을 농가의 실정에 맞게 똑같이 배치하고, 28채의 농가를 75에이커 지역으로 옮겼다. 24채의 농가, 건축부재(建築部材), 농가구들은 옛 덴마크 농가문화를 보여 주기에 손색이 없다.

이들 가운데 세 채의 독립 별체가 딸린 Karup Heath 농가, 해초로 이은 Laesø 농가, 가정용 풍차, Rømø섬의 Toftum 농가, 오후스 부근 True 농가, Sorring의 용기제작소, Halland의 제분소, Engleerup의 농부의 집, Funen의 ørbaek 대장간, Lolland의 Taagense와 Dannemare의 주택, Fuglevad의 화란식의 풍차, Schleswig의 피라미 형태의 특징적인 농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제8부의 자연과학부는 1956년에 창립되었다. 역사는 짧지만 소택(沼澤)연구소와 지질연구소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과학적 연구와 조사를 통해 문화사를 밝힌다.

나. 조 직

직원은 295명으로 학예연구직 80명, 특수 관리직 115명, 경비직 100명이다.

사무국에는 보안부, 관리부, 회계부와 기념물보존회, 문화재 복원위원회가 딸려 있다. 부관장은 공작부, 전시부, 국제교류부, 보급선양부, 발간실, 중앙자료실을 관리한다. 이밖에 박물관 총재 직속으로 8개의 박물관과 보존과학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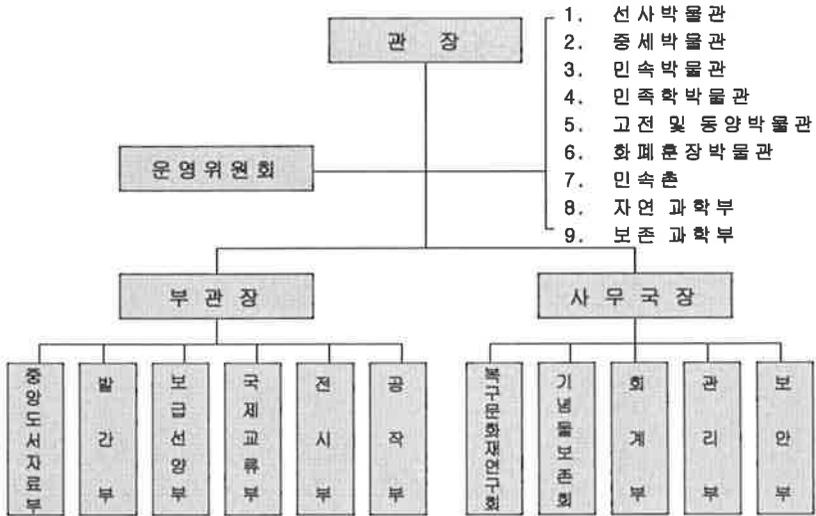
이들 박물관에서는 시대, 지역, 대상에 따라 학예관,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 보조원을 배정하였다. 전문 연구직은 코펜하겐대학, 세계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조사, 공동강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전문가 훈련 등을 담당한다. 특히 선사(先史)·고전고고학(古典考古學), 문화사, 민족지학(民族誌學)의 연구와 강의는 박물관 연구원 양성에 큰 도움을 준다.

사무국의 보안부는 청사 내외의 경비, 보안, 안전관리, 관객보호를 담당한다. 관리부는 서무, 인사 관리를, 회계부는 국가 예산, 재단 및 개인 기부금의 운영 관리를, 기념물보존회와 문화재복원위원회는 전국적인 기념물 사적의 조사, 연구, 보수, 관리를 맡는다.

부관장 산하의 공작부는 디자이너, 전기조명기사, 건축사, 목공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부는 화가, 시나리오 작가, 인테리어 전문가, 학예관 등이 전시를 기획·제작하여 꾸미는 외에 이동 순회전시와 지역의 역사박물관, 담배, 맥주, 포도주, 도자기 등 기업박물관의 전시를 지원한다.

국제교류부는 UNESCO, 국제박물관협회, 국제기념물 및 유적위원회 등 국가 간의 문화, 문화재보존, 기술 협력과 이해증진의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급선양부는 특별강연, 어린이 학교, 휴일잔치, 학교강연회, 학교견학, 일반단체 안내, 박물관 축제, 시내 역사 유적안내 등의 사업을 통해 박물관을 사회교육장으로 만든다.

도서자료부에는 사서관(司書官), 컴퓨터 전문가, 시청각 기사, 자료 보존가들이 있다. 도서, 사진, 고문서, 슬라이드, 테이프 등을 정리·보관·관리하고,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이 밖에 덴마크에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미술박물관이 30여 개, 자연사박물관이 6개이며, 나머지 160여 개는 민속학, 고고학, 역사학, 민족사학, 민족학 분야의 박물관이다.

모든 박물관은 재단, 은행, 보험회사, 사설재단, 박물관후원회 등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에서도 지방박물관 지원을 위한 기관(The State Inspectorate of Local Museum)을 설립하였다.

Ⅲ. 한국농업박물관의 기본 구상

Ⅲ. 한국농업박물관의 기본 구상

1. 성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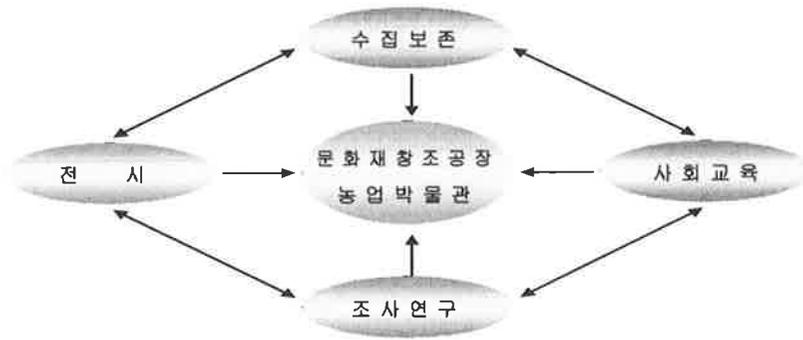
가. 농민문화 중심의 박물관

우리네 대부분의 박물관 전시물은 상류층 문화가 중심을 이룬다. 이 때문에 어떤 박물관에서도 호사 취미와 귀족 취미가 넘쳐난다. 우리 문화의 바탕이었던 농민 문화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한 구석에 늘어놓았을 뿐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고가의 미술품이라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착각에 잠겨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현대 박물관에서는 점차 피지배계급 내지 서민의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우리도 값비싼 청자나 백자를 어루만지던 귀족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한 농민들의 생활을 다루어야 한다. 음풍농월을 즐기던 조선의 양반이 아니라, 그 밑에서 노동을 한 농민들의 문화를 내보여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삶의 모습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 태반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새 박물관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절실한 까닭이 이에 있다.

한국농업박물관에서는 농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한다. 이는 농촌 문화의 복원과 전통 문화의 보존, 그리고 미래를 위한 농촌 문화 건설에 바탕이 될 것이다.

조상이 남긴 농업유물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동시에, 전통문화 재창조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농촌의 문화유산은 변모와 동시에 급속도로 소멸되었다. 농업박물관에서는 이들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은 뒤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영구 보존이 가능케 해야 한다. 현재 농업에 관련된 유물을 소장한 박물관 수장고의 대부분은 제습 장치조차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쟁기의 보습을 손으로 들기만 해도 쇠 가루가 부슬거리며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멍석 따위의 벼짚 제품도 하루가 다르게 부스러지는 형편이다. 또 농기구는 상대적으로 전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까닭에 수장고에 묵혀두는 일이 적지 않다.



조사연구는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작업이며, 체계적이고 생명력 있는 전시의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유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이와 연관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도 함께 벌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일반 및 전문가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업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간다. 이것은 일반을 위한 사회교육은 물론이고, 박물관 종사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학술 자료구실을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농업 문화의 유입 전파 관계 등도 비교 연구하며, 자료도 교환한다.

한편, 산간지대와 해안 지대에서는 농업 외에 수렵이나 채취 그리고 어업도 함께 벌였다. 이에 따른 전통적인 사냥과 어로 문화도 전시한다. 특히 여러 가지 사냥구를 실제 크기로 복원해서 설치하면 많은 관심을 끌 것이다.

유물 수집 방법에는 1) 구입하는 방법, 2) 기증받는 방법, 3) 새로 제작하는 방법의 세 가지가 있다.

구입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이미 각 박물관, 향토 자료관, 개인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서 새로 찾아내기도 어렵다. 그 뿐 아니라 가격도 매우 높다. 이미 알려진 몇 명의 개인 소장자와 협의할 여지가 있지만, 액수가 엄청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기증도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이미 농업중앙회에서 농업박물관을 세울 때, 전국 각지의 단위조합을 통해서 살살이 훑어 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명색뿐인 소규모 박물관을 통합 흡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물의 대중을 이루는 농기구 등의 구입이나 기증을 바라기는 어렵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제작하는 길 뿐이다. 농기구는 생활 용품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옛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농가에서도 부서지면 새로 만들어 썼던 것이다. 이 기회에 제작된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것이므로, 주저할 이유가 없다. 농기구 제작 방안을 보기로 든다.

우리 농기구를 농사를 지어 나가는 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1) 가는 연장, 2) 삶는 연장, 3) 씨 뿌리는 연장, 4) 거름 주는 연장, 5) 매는 연장, 6) 물대는 연장, 7) 거두는 연장, 8) 터는 연장, 9) 말리는 연장, 10) 고르는 연장, 11) 알곡 및 가루내는 연장, 12) 나르는 연장, 13) 갈무리 연장, 14) 축산 연장, 15) 농산 제조연장, 16) 기타 연장 등의 17종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가짓수는 대체로 120여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며,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른 것을 합하면 수 천점에 이른다. 예컨대 쟁기는 종류가 30여 종이 넘는다.

이들의 제작을 각 도별로 실시하되, 각 도에서는 산간·평야·해안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리고 영상·기록·스케치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해서,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나무를 베는 첫 단계부터, 말리고 깎고 손질해서 완성하는 전 과정을 모두 담은 것이다. 쓰는 방법도 영상과 기록으로 남긴다. 제작은 반드시 옛 기법에 따르며 연장도 옛것을 쓰게 한다. 결과물인 영상물은 농기구 제작 기술을 영구히 남기는 귀중한 자료로 삼는 동시에, 기록물은 박물관의 학술 총서로 엮어서 일반 및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이 결과물만으로도 백여 권의 연구 총서가 발간될 것이다. 북한 지역은 전문가를 파견, 현지에서 복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이북 5도청의 협조를 받아 각 도의 책임자를 찾으며, 이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북한과 일본 학자들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한다.

옛적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썼으므로, 제작 방법이 대대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무렵부터 서서히 중요 농기구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근래에 서양식 기계가 보급되며, 노인층이 감소함에 따라 적지 않은 연장의 제작 방법이 사라지는 위기에 놓였다. 이것이 실현되면 유물 수집뿐 아니라, 단절의 위기에 놓인 농기구 제작 방법도 영구히 보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촌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 가옥과 마을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함경북도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평야·산간·해안 지대의 가옥을 알맞은 지형에 세우거나 옮기고 생활문화 전반을 재현하는 것이다(한국민속촌에서도 북한 지역의 전통 가옥은 세우지 못하였다). 특히 가옥은 여러 지역의 특징이 모두 드러나도록 한다. 예컨대 함경도 북부 지역의 겹집에서부터 평안도 여러 유형의 집과 서해도서의 홑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을 복원한다. 굴피집, 너와집, 돌기와집, 셋집, 초가집, 기와집은 물론이고 움집과 귀틀집 등도 포함시킨다. 이들도 상류·중류·서민 등 세 계층의 가옥을 고루 세운다.

이들 가옥에 방문자들이 하루 이틀 머물면서, 과거의 농촌 및 산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체험 문화는 이미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기획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주시 외곽에 위치한 전통 마을인 수도리의 상류·중류·서민 가옥 40 채를 소수서원 곁에 복원한 ‘선비촌’이 그것이다. 2004년 9월의 개관 이래, 해우당 고택이나 두암 고택 등의 상류가옥은 방 하나에 3~5만원을, 중류의 기와집은 2만5000~5만원을, 서민의 초가는 2~4만원을 받는

다(시에서는 운영을 길원개발에 위탁하였으며, 3년마다 다시 계약한다). 직접 밥을 지어먹지는 못하지만, 온갖 살림살이를 모두 갖추어놓은 까닭에 옛적의 사대부집 생활을 그대로 맞볼 수 있다. 바뀐 것은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들어선 것뿐이다. 근래 이곳에서 숙박하며 양반촌의 생활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며, 특히 주말은 서너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다(2005년의 입장객은 80만명이었다). 이 때문에 수학여행 학생 및 숙박객을 위한 별도의 건물을 짓고 있다. 선비촌 부근에 부석사와 소수서원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옥마다 재래 농기구를 전시하는 동시에,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에 따라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논을 가는 경우, 산간지대의 겨리쟁기와, 평야지대에서 호리 쟁기를 다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면서,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나가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농기구를 버리는 대장간,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당, 상여를 보관하는 곳집, 풍물을 울리는 너른 마당, 여름날의 휴식 공간인 모정, 힘자랑을 위한 들돌, 마을 수호신인 장승, 옛적의 서당 및 장터 등도 마련한다. 장터에는 식당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배치한다.

우리 농업 문화의 우수성도 빼놓을 수 없다.

벼농사를 비롯한 초기의 농업 문화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재창조해서 한 단계 높은 우리 것으로 가꾸어왔다. 농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로 한다. 가래, 극쟁이, 지게, 두다리방아 같은 것은 우리 발명품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특히 극쟁이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 토양과 문화에 맞도록 개량한 것이다. 디딜방아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을 비롯한 벼농사 지역 예컨대 인도, 네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일본 등지에서는 지금도 외다리방아만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능률적인 두다리방아를 창조하였다. 지게도 예외가 아니다. 지게의 종주국은 우리이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우리 농업 문화가 일본 농업의 뿌리가 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일본에도 많지 않다. 앞에서 든 농기구뿐 아니라 떡 문화, 된장 문화, 술 문화, 젓가락과 숟가락 문화, 밥그릇 문화, 소, 우유, 닭 등도 우리에게서 건너갔다. 심지어 국수를 만드는 방법도 18세기에 동대사(東大寺)에 머물던 원진(元珍) 스님이 알려주었다고 일본 문헌에 적혀 있다. 농업과 관련된 세시 풍속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앞으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조상이 일본에 끼친 높은 문화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 일본에 뒤졌지만, 특히 고대의 농업문화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었으며, 실상 일본 농업의 젖줄 구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이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 내용은 실상 한국 문화가 아니라 남한의 문화 곧, 반쪽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한 문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이 단절된 채 반 세기를 넘게 지내는 동안, 우리가 한 겨레라는 인식이 점점 희박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에 이룰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언어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공동으로 우리말 사전을 만들자는 협의를 진행하는 형편에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농업 문화는 남쪽이나 북쪽 어느 한 쪽의 문화가 아니라, 온 겨레의 문화유산이다. 농업 박물관에서 북한의 문화유산을 전시하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농업 문화유산은 이데올로기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북한의 협조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양쪽의 학자들이 학문적 성과를 나누며, 특히 농기구와 같은 자료를 교환하며, 귀중유물은 복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나. 농업문화 체험의 박물관

박물관의 유물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 현대의 박물관에서는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고 스스로 만들어 보며, 그것을 실제로 써보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체험을 통해서 문화의 참 모습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마련이다. 국내 사례에서 들었듯이 체험 시설을 갖추지 않은 박물관은 거의 없는 정도이다.

농사 체험이야말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농사를 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모를 심고, 논을 매고, 거두고, 털어서, 갈무리하는 과정을 체험시킨다. 여러 종류의 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뿔으며, 짚으로 섬이나 명석 따위를 짜는 과정도 포함시킨다. 또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열면, 전통적인 짚풀 공예기술이 전승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 두레 방식, 칠월 백중 풍속, 풍년 감사 의례 등 세시풍속에 따른 각종 행사를 벌여서 현장감을 더욱 북돋운다. 예컨대, 모내기철에 관람객 뿐 아니라, 대통령 등의 중요 인사가 방문해서 모를 심는 행사를 벌이는 것도 관심을 끄는 방법의 하나이다.

또 박물관 부지의 일부를 텃밭으로 꾸미고, 도시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머물며 직접 농사를 지어나가도록 하는 이른바 주말 농장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앞에서 든 국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오늘날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박물관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국내에서도 박물관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현지의 농촌 마을에 찾아가서 벌이는 곳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대상도 아주 어린 유아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비롯하여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학생과 교사는 물론이고, 어린이와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성행중이다. 외국인을 위한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사회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이른바,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구축하였으며, 2005년 12월 현재 57개 박물관이 가입하였다.

이 같은 사업은 각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마련한 36,000평의 테마파크인 '우리랜드'가 좋은 보기이다. 농기계 전시관, 곤충 전시관, 동물 농장, 체험 농장 등에서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농촌지도자 대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농업인 학습단체 대회를 열고 농업특산물을 전시·판매도 한다. 용인 시민 250여 가족에게 해마다 3평씩의 주말 농장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다. 농업문화 교육장으로서의 박물관

초기의 박물관은 모아 놓은 자료를 보관하고 보여주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교육적 기능을 첫 손에 꼽는다. 특히 영국에서 박물관 법이 공포되면서 박물관은 사회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박물관의 모든 기능을 사회교육에 집중시키고 있다. 각 박물관에서 제 각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을 끌어 모은 결과, 박물관은 개성이 넘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탈바꿈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80년대에 처음 문을 연 '박물관대학'이 좋은 보기이다. 개학 이후 십여 년 뒤까지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오늘날에도 그 열풍은 식지 않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각 지방의 대학박물관에서도 다투어가며 강좌를 열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벌이는 유적 및 사적지 순례 여행 또한 인기가 높다. 박물관이 유물 수장고에 지나지 않는 죽은 박물관인지, 또는 활기 넘치는 산 박물관인지는, 이러한 사회 교육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벌이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평생교육을 주창하는 유네스코 이념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박물관의 사회교육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에 큰 구실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박물관의 사회교육은 문화유산 답사나 박물관 강좌와 같은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농업박물관의 농촌 문화 체험을 통한 사회 교육은 우리나라 박물관 사회교육의 차원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수강 결과를 농업전문학교 학생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관계 공무원 승진에 가산점으로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초·중·고등 교사 연수 및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과정도 운영한다. 일본의 국립 역사민속박물관에 석사 및 박사 과정이 개설된 점도 참고할 일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는 문화 소외층과 신체장애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과정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교육을 위한 다음의 행사를 마련한다.

- 1) 농업인을 위한 농업 교실
- 2) 농업 전문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
- 3) 농업관계 종사자를 위한 연수 교육
- 4) 농업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교육
- 5) 주말 농장 가족을 위한 교육
- 6) 일반인 대상의 각종 특설강좌
- 7)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
- 8) 노년층과 유년층을 포함한 짚풀 공예 교실
- 9) 한 해의 세시 풍속에 따른 놀이 마당
- 10) 텃밭에서 체험하는 곡물의 한해살이
- 11) 찾아가는 농업민속박물관 운영
- 12) 외국인을 위한 공예교실
- 13)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풍물 교육
- 14) 장애인을 위한 교육
- 15) 민요 교실

라. 관광 명소로서의 박물관

기존의 거의 모든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유물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고 있다. 유물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그대로이다. 찾는 사람이 적은 박물관은 문자 그대로 껍데기(건물) 뿐인 죽은 박물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려면 일반인들이 농촌 문화를 체험하면서 즐기고, 또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서 현대의 삶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 지름길은 박물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도 즐겨 찾을 것이다.

농업박물관에서는 야외 박물관에 굴피집·너와집·귀틀집·셋집·돌기와집·움집·투방집 따위의 대표적인 산간 가옥을 옮기거나 옛 법식대로 짓는다. 예대로의 살림살이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고춧이나 화투 따위도 시설한다. 어린이를 비롯한 숙박객이 전기가 없는 세상을 체험하면서 고춧에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먹는 체험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거리로 남을 것이다. 너와를 장만하거나 굴피를 채취하는 과정도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옥수수 막걸리와 감자전은 입맛을 돋울 것임에 틀림없다.

이 밖에 야외박물관에 야영장을 설치해서, 방학 중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천막에서 자면서, 박물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의 여름살이를 체험하고, 단체생활의 고달픔과 즐거움도 함께 맛보는 것이다.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농산품과 공예품을 생산 판매한다. 특히 매주 쭈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등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농업 관련 유적지 순례 등의 관광여행 상품도 마련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농업 관광 문화 상품도 개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방문해서, 며칠 동안 농촌 문화를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이를 명절 무렵에 시행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박물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지역사회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지역 개발 사업에도 도움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박물관이 할 수 있는 경제적 역할이다. 박물관 주변에 숙박 및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건립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며, 상품의 유통 및 교통 여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을 유명 관광지와 가까운 곳이나, 그곳으로 향하는 경로에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2. 구 성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가. 역사관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농경의 발전 과정과, 농촌진흥사업 변천사를 주 내용으로 전시한다. 이 밖에 현대 농업실·미래 농업실·새 기술 전시실을 둔다.

현대 농업실에서는 첨단 농업기술을 전시한다. 미래 농업실에서는 21세기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가상 체험 시스템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꾸민다. 새 기술 전시실에서는 최근에 새로 개발된 농업 생명 공학 기술 내용을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중국 및 일본의 농업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우리 농업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

나. 문화관

농사를 지어 나가는 전 과정과 이에 따른 의례를 지역별로 전시한다. 이 밖에 의식주를 비롯한 지역별 생업 및 농업문화 전반을 전시한다. 공간은 야외박물관을 이용한다.

다. 과학관

농촌진흥청 소속의 농업과학관을 박물관에 이관해서 확대 보강한다. 농촌진흥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83년에 세운 이 과학관은, 2002년 11월 15일 현재의 건물로 옮겨왔다. 규모는 지상 2층에 지하 1층이며 전시 면적은 823평이다. 전시 주제는 '농업과 인간'으로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알리고 농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시키는 일에 주력한다.

전시 공간은 농업 역사실·현대 농업실·미래 농업실·신기술전시실 및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었다.

라. 농기구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농기구를 각 지역별(남북한 포함), 시대별, 농사 진행 과정별로 전시한다.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의 재래농기구와 현대 농기구를 합친다. 특히 북한의 농기구를 수집하거나 복원하며, 중국 및 일본의 중요 농기구도 복원해서 문화의 차이와 교류 과정을 이해시킨다. 또 이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써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마. 길쌈관

현재 농촌 진흥청에 소속된 누에박물관을 확대 개편한다. 누에치기의 전래와 보급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핀다. 누에치기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솜을 타고 베틀에 올려서 옷감을 짜는 각 과정을 보여준다. 베와 모시의 전 과정도 곁들인다. 이들의 유통과정과 민속도 아울러 전시하며, 전통적인 물감들이기도 재현한다.

바. 공예관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목공예, 칠공예, 한지공예, 초석공예, 옹기공예, 유기공예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한다. 특히 옹기는 관람자도 직접 빚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어린이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이론에 따라 20세기 초, 미국에서 처음 탄생되었다. 어린이 교육은 학습을 통한 지식보급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손으로 만져 보고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원리를 완전히 알 뿐 아니라, 상상력을 기르며 친근감도 더 느낀다. 이에 따라 어린이 박물관은 196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보스턴 어린이박물관의 소장품 중심의 전시가, 관람객 중심의 전시로 변한 것이 계기였다. 전시물에 손을 대지 않고 감상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만지고, 기대고, 올라가서 전시물을 파악하는 ‘Hand-on’ 개념의 전시를 시도한 것이다.

이후 어린이박물관은 ‘Hand-on and Participatory’ 박물관으로 정립되었고, 전시품은 보존품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소모품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전시 주제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험의 원리를 위주로 하여, 인간의 생활문화와 환경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어린이 박물관은 미국의 250여 개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350여 개가 있다. 전시는 취학 전 어린이, 12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의 세 부류로 나뉜다.

미국의 많은 박물관에서는 별도의 건물에 어린이 교육부와 전시실을 마련하여 전시한다. 박물관의 기능은 사회교육뿐 아니라, 학교교육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위한 전시장 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전시자료도 어린이에게 친근한 것으로 마련하며, 전시 해설 등은 교육과정을 참조해서 구성한다.

연 평균 관람객 3만 이상의 소규모 박물관에서는 취학 전 아동 대상의 감각기관과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8만 이상의 중형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취학 전 아동부터 12세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놀이공간과 기초과학의 기술과 원리, 역사적 환경 재현이나, 외국문화체험 그리고 일상의 사회 경제 등을 주제로 한 전시와 프로그램에 집중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25만 이상의 큰 박물관에서 운영한다.

어린이 전용 박물관을 위한 프로그램은 간단한 물건을 만드는 공작 및 공예교실에서부터, 전통적 죽세공품을 비롯한 공예품과 이를 응용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아. 체험관

벼를 비롯해서 각종 발작물과 과실 그리고 특용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일부는 야외박물관을 이용한다. 또 이들의 열매를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과정도 마련한다. 이를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전통적인 놀이 끈, 연날리기, 그네타기, 씨름, 팽이치기 등을 실제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줄타기, 풍물놀이, 탈놀이 공연을 비롯하여 등의 전통적인 혼인식도 볼거리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시 풍속에 따른 전통적인 민속도 계절에 따라 보여준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열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

아래에 한국 기층문화를 주제로 하는 항목별 체험, 공연시설을 예시한다.

◆ 의식주

- 복식 : 천연물감 재료 만들기, 물들이기 체험, 쪽보자기 만들기 체험
- 음식 : 차도 체험관, 제철음식(특히 김장) 만들기 체험, 식당(팔도음식, 떡, 과자, 각종 상차림 제공)
- 주거 : 지역별 민가(농가와 반가 두루 포함) 전시

◆ 통과 의례와 신앙

- 기자치성 장소 조성, 서민들의 성인식 체험(들돌 들기, 쌀 한가마 지계에 지기), 전통혼례 초례청 제공 및 공연, 상여, 사당 전시
- 신앙 : 전통 굿 공연

◆ 음악 공연장 및 교육 체험관

- 공연장 : 야외(농악), 실내
- 체험 시설 : 농악 배우기 및 참여, 단소 등 악기 체험과 교육

◆ 미술 체험

- 오방색 칠하기, 민화 그리기, 목판 탁본 체험

◆ 전통 의료

- 약방 재현 전시
- 인삼 재배와 판매

자. 야외관

야외박물관은 미술 박물관이나 고고학 박물관과 달리, 유물을 현장에서처럼 전시해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박물관 개념이다. 전형적인 농촌가옥의 보존을 위해 출발한 이 박물관에서는 적국 각지에서 건물들을 옮겨왔으며, 각 건물에는 본디 쓰던 가재도구와 농기구 및 기타 집기들을 전시하였다. 오늘날에는 건물이 150채가 넘으며, 이곳에서 생산, 판매되는 유리, 도자기, 보석세공 품 등은 많은 관광객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박물관 설립 이후 1894년에 오슬로, 1897년에 코펜하겐, 1908년에 헬싱키에 생겨났으며, 1909년에 덴마크의 아르후스, 1912년에 네덜란드의 아른헬, 1929년에 독일의 클라우센베르히, 1936년에 부다페스트에도 선보였다. 현재는 184개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북구의 4개국(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야외박물관에서는 공예가들의 공예품이나 도매시장에서 사온 것을 판매한다. 예컨대, 미국의 올드스터브리지는 1977년에 입장료 액수보다 많은 2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윌리엄스버그, 그린필드 빌리지 등을 비롯한 여러 야외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상공회의소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캔사스주의 올드 아비레인 타운은 완전히 상업 목적을 위해 재건된 야외박물관이다. 뉴저지주 워털루에서는 독립전쟁 이전의 건물과 16채의 집으로 구성된 옛 마을을 복원하였으며 중심지에 식당과 가게를 마련하였다. 이곳에서는 지역 특산 직물과 약초를 비롯한 토산물을 판매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비롯하여 태국 방콕 근교의 야외 민속박물관과 인도네시아의 미니 인도네시아 등이 손꼽힌다. 일본은 1960년 오사카(大阪)에 세운 일본민가집락박물관(日本民家集落博物館)을 시작으로, 메이지무라(明治村), 에도무라(江戸村), 히다민속촌(飛驒民俗村) 등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현의 민속박물관에서 야외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나고야(名古屋)철도주식회사가 1983년에 나고야시 외곽에 세운 리틀월드(Little World)는 매우 유명하다. 40여 만평부지에 옥내 전시관을 비롯하여 세계 각처에서 수집한 민가를 옮겨놓았으며(개관 당시 18 채), 우리 농가와 상류의 기와집도 한 채씩 있다.

우리의 한국민속촌과 제주민속촌은 이를 본 뜬 것이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도 석빙고, 객사(客舍), 조선시대 상류가옥과 서민 가옥들을 이 건하였다. 이 밖에 조선시대의 생활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 제주 성읍, 경주 양동, 안동 하회, 강원도 신리 등의 ‘민속마을’도 야외박물관의 하나인 셈이다.

한국농업박물관에서는 각 지역의 농촌 마을을 재현하는 동시에, 농사를 지어 가는 과정을 보이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또 농업 관계 세시에 따른 여러 가지 놀이(줄다리기, 지신밟기, 두레놀이, 백중놀이, 호미씻이 등)도 펼치는 시설을 갖춘다. 그리고 전국민속경연대회도 이곳에서 열도록 한다.

차. 공연관

각종 홍보와 집회, 농업문화 공연장 등으로 이용한다.

카. 도서관

현재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농업과학도서관을, 농업박물관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3. 전시 구상

한국농업박물관의 전시는 한국 농업의 역사성, 지역성 및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농업박물관 전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배제된다면 한국 전통문화의 기반으로서의 농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제간의 연구 성과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에 한국농업 연구의 새로운 주체가 되고, 이를 전시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한국의 농업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등의 농업분야 전시는 단편적이거나, 규모가 작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농업박물관은 성격상 큰 규모의 전시실과 긴 관람동선이 필요하다. 우선 관람시간을 2시간, 1일 적정 관람객을 1만 명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전시 동선상의 충분한 공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곳곳에 안락한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즐거운 관람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가. 주제와 부주제

1)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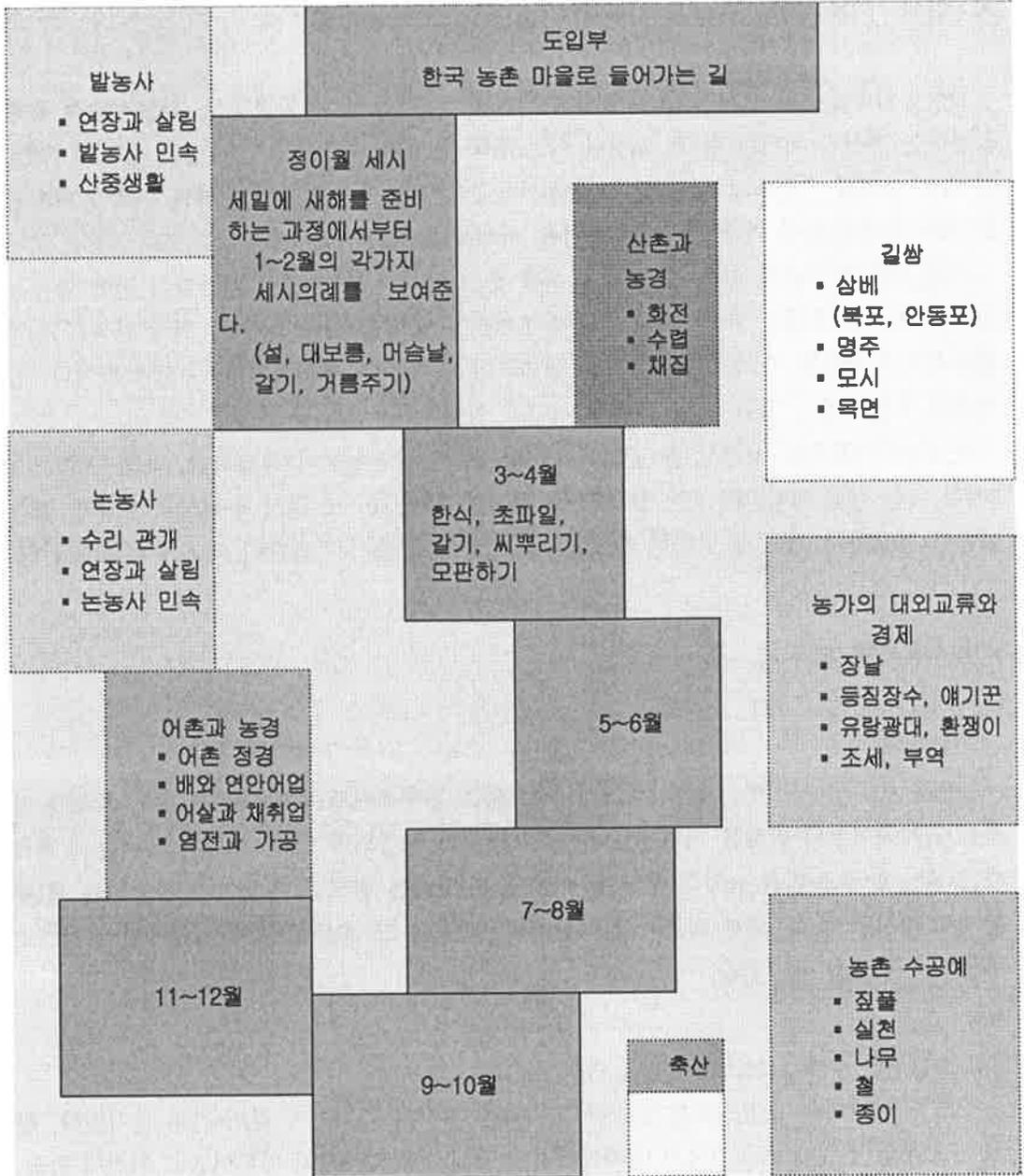
농민은 농사를 영위하는 삶의 주체이며 그 삶은 농경세시로 순환하는 삶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의례에서부터 한해를 지내는 모든 삶이 농사와 직결되어 있다. 이 과업에서는 농경세시를 통해서 한국 농민과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시를 관통하는 제1주제를 농경세시로 하고, 세부 접근이 필요한 부 주제들을 그 흐름 주변에 배치하여 전시순로를 형성하는 구상을 제시한다.

가) 제1 주제 : 농경세시와 농민의 삶

조선시대의 농경세시는 농사를 영위하는 지식의 축적이자 삶의 기본 틀이었다. 왕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한해살이가 농경세시에 의거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한국 고유의 근저를 이루었다.

새해를 맞이하면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갖가지 의례를 치루고, 이를 통해 서로 도와야 할 농민들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그리고 잘 간수해 두었던 농기구를 꺼내어 손질하고 기름을 쳐내며 한해 농사를 준비한다. 이윽고 2월이 되면 농사일은 더욱 바빠진다.

· 전시 개념도



왕실에서도 토지신과 농사신(社稷)에 제사를 드리고 중화척(中和尺)을 내려 신하들이 농사에 관심을 쏟도록 하고, 친경, 친잠 행사와 기우제 등을 통해 농본(農本)을 실행한다.

실내전시는 이러한 한해 12달의 삶을 마치 백두대간과 같은 흐름으로 풀어가며 필요한 곳에 부 주제들을 배치하여 그 전모를 조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방법은 역동적인 입체전시와 다양한 패널전시, 그리고 풍부한 실물자료 전시가 교차하며 긴장과 몰입과 편안함을 교직(交織)하도록 한다.

다음에 농경세시 전시의 도입부를 예시한다.

도입부에서 우리 국토, 농촌의 모습을 정감 넘치는 풍경을 거치며 경험한다. 관람객이 움직이는 보도에 올라서면 소나무 숲을 거쳐 장승이 도열한 서낭당 고개를 넘고, 옥수수밭을 헤치고 원두막, 보리밭, 무논을 거쳐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농촌 마을로 들어선다(약 5분간 모형과 영상의 흐름. 소리와 풍물, 자연음이 교대되는 음향효과로 관객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도록 한다).

이어 설 풍정을 시작으로 하는 세시풍속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된다. 전시는 세밀에 설을 준비하는 광경으로 시작한다. 마당에서는 남자가 떡을 치면 아낙은 가래떡을 밀고, 아이들은 설빔 자랑을 하며 풍성한 설맞이 준비를 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설을 맞은 마을에는 차례 지내는 사당, 종가 집에서 세찬 돌리는 모습, 세배 다니는 고운 차림의 아이들, 입춘축, 세화를 붙인 광경,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며, 풍물놀이를 비롯한 대보름 축제로 이어진다.

2) 부 주제

가) 한국농경문화의 형성과 전개

- ①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과 그것이 인류의 삶의 향상에 끼친 영향을 분석, 전시한다.
그리고 마을을 이루어 사회화 하는 과정을 암사동 등 신석기유적을 통해 보여준다.
- ② 청동기시대의 논, 밭 유적으로 농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고을을 이루고 나라(고조선)를 세우는 것을 유적, 유물을 통해 조명한다.
- ③ 인류의 초기 생산수단인 채집 /사냥 /목축(유목)에 대해 전시한다.

나) 발농사

발농사를 주로 하는 북한지역의 농업을 중심으로 산중생활의 여러 모습과 발농사 연장, 살림살이, 그리고 발농사 민속에 대해 전시한다.

다) 논농사

서남 평야지대의 농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논농사의 도입과 발달과정을 수리 관개, 논농사 연장과 살림, 그리고 논농사 민속을 통해 전시한다.

라) 산촌과 농경

깊은 산촌에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화전 경작, 사냥과 채집생활을 중심으로 전시한다. 또 산촌지역의 특수한 신앙을 비롯한 민속을 조명한다.

마) 어촌과 농경

우리나라 어촌은 대개 반농반어의 생활을 영위해 왔다. 농토가 보이는 어촌 정경을 배경으로 어촌에서의 농사모습과 배, 연안어업, 어살, 채취, 그리고 소금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염장, 젓갈 등 해산물 가공에 대해 전시한다.

바) 길 씬

길쌈은 농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중요한 산업이었다. 삼베(북포, 안동포), 명주, 모시, 목면 등의 재배, 실내기, 베짜기, 그리고 의생활의 면모를 전시한다.

사) 농가의 대외교류와 경제

농촌사회의 대외관계는 장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농촌생활과 장시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짐장수, 방물장수나 이따금씩 찾아오는 애기꾼, 유랑광대, 환쟁이 등의 예인들도 농촌의 삶을 다채롭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 밖에 조선시대의 조세, 부역 제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아) 농촌 수공업

본격적인 공방이 아닌 농가수공업 제품들은 삶이 녹아있는 것들이다. 짚풀공예, 실천공예, 나무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등 농가 자체 사용품이나 판매용 공예품에 관한 전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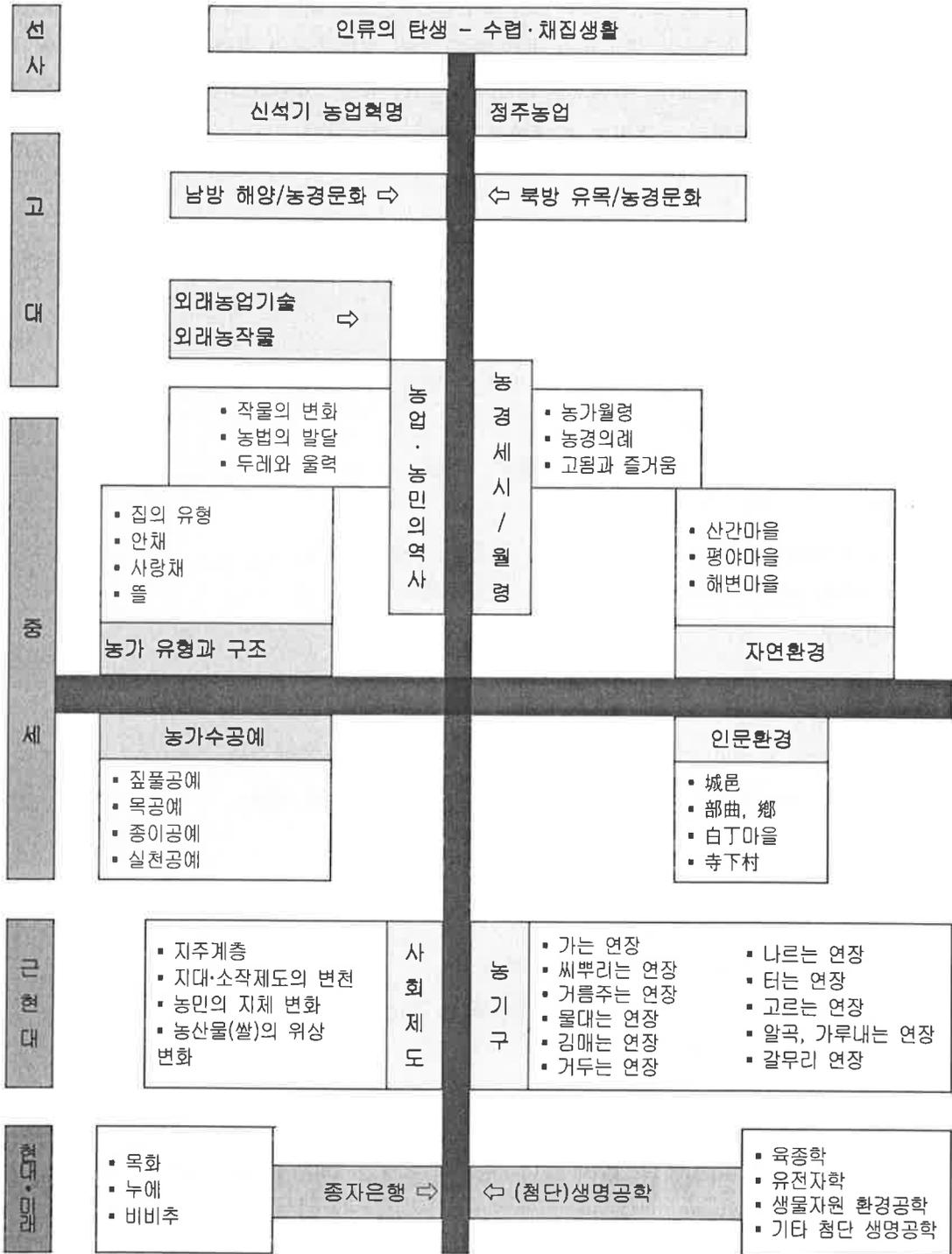
자) 축 산

농촌의 가축 기르기와 양봉에 대한 전시 단위

나. 한국 농업사

한국 농업의 기원과 전개, 고조선시대 이래의 조세제도 등 다른 나라와 비교, 농본의 실체와 역대 왕조의 농업정책, 제도, 기술에 대해 전시하고, 고대~현대 농민의 신분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

· 한국 농업사 개념도



다. 한국 기층문화의 이해

한국농업박물관에서는 내외국 관람객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문화의 총체적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세시풍속 전시 속에 우리 기층문화의 여러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고, 특히 의식주, 통과의례와 신앙, 음악, 미술, 전통의료(특히 민간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주제로 독립하여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의식주

- 복식 : 길쌈항목 속에 한국 복식의 기본 구조와 변화, 실용성에 대한 분석, 신분에 따른 규제, 옷 꾸밈과 노리개의 의장성 등을 표현
- 음식
 - 시대별, 계절별, 지역별 식관습과 각종 상차림
 - 식품의 종류와 가공
 - 기호식품 : 떡과 과자, 다양한 전통주, 차도
- 주거
 - 건축기술의 발달 : 막집, 움집에서 황룡사 구층탑 까지
 - 지역별 민가의 형태와 구조(농가와 반가 두루 포함)
 - 집치장

◆ 통과의례와 신앙

- 통과의례 : 기자, 돌, 성인식, 혼례, 상례, 제례의 구조와 기능
- 신앙 : 원시신앙의 기원, 민간신앙, 무교, 국가 종교의 변천

◆ 음악 : 구조와 기능

- 농악 : 두레, 의례와 농악
- 정악(아악, 제례악) : 악기(편성), 악보
- 풍류(속악, 향악) : 민요, 판소리, 삼현육각, 독주 기악(가야금, 거문고, 통소, 단소 등)
- 굿음악 : 서사무가, 시나위

◆ 미술

- 미술의 탄생 : 바위그림, 토기 무늬, 청동기 조형과 무늬(농경문 청동기, 기하무늬 청동거울), 무덤 벽화
- 순수미술 : 화원제도, 산수, 인물, 영모, 진경산수

-실용미술 : 병풍그림(민화), 무늬, 부적그림, 삽화, 공예

◆ 전통 의료

-한의학, 약초학, 사상의학

-민간요법 : 심리적 요법(주술, 양밥 등), 민간의료(약)의 효능(재인식)

-인삼, 심마니와 약초

4. 조직

한국농업박물관은 정부 부속 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세워져,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민족학박물관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1977년 11월에 국립학교 설치법령에 따라 건립된 이 박물관은 2004년부터 국립 대학교 법인 법에 따라 법인체로 운영한다. 따라서 학예원의 직급도 조교수·부교수·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이 결과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박물관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가. 각 부서의 주요 업무

1) 학예연구실

유물 수집·전시·보존·조사·연구 등

2) 기획운영부

행정 지원·인사 관리·경리 등

3) 시설관리부

설비·조경·차량 운영 등

4) 문화사업부

숙박·식당·매점·농산물 판매·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

5) 교육홍보부

사회교육·홍보물 출판·신문 및 학술지 발간·국제교류·후원회·자원봉사자 운용 등

박물관의 조직이나 각 부서의 업무는 국내 사례에서 든,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내용이 좋은 참고가 된다.

나. 후원회

박물관의 중요한 수입원은 Membership과 회비이다. 각 박물관은 회원 자격을 주는 대신 일정한 회비를 거둔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전 예산의 14.4%를, 넬슨 아트킨즈 미술관은 16.7%를 차지한다. 이 회원제도는 각 개인이 지역사회 박물관 사업에 동참케 하는 동시에, 재정적 도움도 주는 효과가 있다. 회비 납부에 따른 등급은 다음과 같다.

개인 회원·가족회원·기부회원

동의(同意)회원- 유지(維持)회원(Sustaining member)

법인회원(Associate member) 종신회원(Life member)

원조회원(Benefactor) 보호회원(Patron)

특별회원(Fellow)

고객의 회비는 기금으로 적립하며, 전시품 기증으로 회원자격을 주기도 한다. 이들은 박물관 행사나 특별전시회, 강연회, 음악회 등에 초대 받으며 박물관 시설도 이용한다. 호놀룰루 미술관의 1956년도 회원은 3,500명이었으며, 500달러 이상의 회원은 300여 명이었다. 인구 70여 만 명에 비하면 매우 큰 숫자이다(당시 하와이의 전 인구는 80여만 명이다). 이 회원제도는 자원봉사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 밖에 후원자 그룹을 엮어서 사회적 지위나 명망,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는다. 미국에서는 개인·법인·단체가 박물관에 후원금을 내면, 이에 걸 맞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 박물관 가운데 59%의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후원회는 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 조직은 박물관 수입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해서도 박물관에 큰 도움을 준다.

IV. 결 론

IV. 결 론

이 연구 과업은 첫째, 이 시기에 국립 농업박물관의 건립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검토해 보고, 둘째, 농업박물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의 유사박물관 사례를 조사하며, 셋째, 국립 농업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선 국립 농업박물관의 명칭을 「한국농업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한국의 농업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농업박물관이라는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여 이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1. 한국농업박물관의 건립 필요성

한국농업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역사적 측면, 학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1) 역사적 측면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농업이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고 모든 생산, 소비활동의 중심이었는데도 현대 사회는 이를 망각하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민족문화의 바탕에는 농업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문화에 뿌리 둔 여러 문화현상이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양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때 올바른 현대 한국인의 삶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문화의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5, 60년 동안 공업화를 목표로 지속되어 온 농업 홀대 정책은 농촌 경제를 피폐하게 하였다. 또 농업문화 전반의 고사 현상을 부추여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쌓아온 슬기로운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꽃피운 품앗이, 풍물, 두레와 세련된 세시풍속 등 우리 겨레가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아름답고 행복한 문화보배들을 빨리 버려야 할 과거의 잔재쯤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화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실용성이 없다고 버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또 실용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보거나, 성급한 마음에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나 근본을 지켜줄 자기 것을 모두 내다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것은 막막한 후회일 것이다.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하여야 하는 농업문화유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다. 옛 농촌문화를 알고 있는 80대의 농민들은 후계자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급속한 농촌 고령화

추세에서 옛 농법 등 역사적 지식 보전을 위한 박물관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의 기존 농업박물관이나 농기구를 전시하는 다른 박물관에서도 농기구 등 물질문화 전시에만 한정하고 농업문화 전반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의욕보다 역량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 한국농업박물관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2) 학술적 측면

급속한 공업화로 농촌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농경문화가 많이 사라진 후에야 일부에서나마 농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전문 농업박물관과 농기구 등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대학박물관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농기구를 단순 수집하여 진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농업문화 전반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시의 수준 까지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업사 연구도 역사학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하며, 이 분야의 연구조직이나 지원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상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농업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이 농업과 농업문화의 가치를 마음대로 재단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농업박물관은 농업문화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며 한국농업사 연구의 중심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측면

오늘날 한국 농업의 현실은 제조업 등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산업에 밀려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일부 특용작물을 제외하고는 쌀농사를 비롯해 생존을 위한 주, 부식 농업조차 외국의 자본집약적 규모의 농업에 희생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근대화의 기치를 내 건 이래 공업화를 위한 희생물로 고사의 길을 걸어온 농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정책은 비농업계가 농업계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기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는 인식이 타당성을 얻는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애써온 농민들은 농업의 위상에 대한 계속된 평가 절하와, 생존수단 자체를 빼앗기는 이중고에 마음도 몸도 모두 지친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간다면 한국 농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고유 문화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말 것이다.

한국농업박물관은 한국 농업의 정체성을 살리고, 끊임없는 희생으로 민족의 젖줄을 대온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일으켜야 한다. 또 박물관과 함께 한국농업의 발전을 이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기구, 조직이 함께 들어서서 농업계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는 한·미 FTA, DDA 등 개방화로 위축되고 있는 농업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한국농업박물관을 FTA로 인한 농업계·비농업계간 갈등 해소와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적 위상과 현실적 기여, 그리고 현대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농업의 피폐와 지나친 기업화가 국토를 훼손하고 폐허화하는 큰 요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매년 4mm씩 깎여나가고 있는 우리 땅을 보존하는 방법은 농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농업과 농업문화에 대한 인식은 비 농업계뿐만 아니라 농업계 자체에서조차 충분히 높지 않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 외국 귀빈이나 관광객에게 한국농업 및 한국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한국농업박물관은 일개 박물관에 그치지 않고 민속촌 규모의 야외전시장, 첨단 농업과학 시험전시장, 그리고 관광과 연계된 시설이 들어서는 종합공원으로 조성하여 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경제 진흥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북쪽의 농업자료도 포괄하여 남북한 농업의 동질성을 밝히는 통일에 대비한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유사 사례

1)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박물관 수는 모두 223개이다. 국립박물관이 25개, 공립박물관이 31개이며, 대학박물관이 80개, 그리고 사립박물관이 87개이다. 이 중 전문 농업박물관 7곳을 포함하여 농업과 관련되거나, 농경유물을 갖춘 18개 박물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농업박물관 건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그리고 사회교육활동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한 박물관 중 전문 농업박물관 중 규모를 갖춘 농협양회 농업박물관과 영산호관광농업 박물관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전라남도가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 부설 농업과학관과 농업기계역사관, 잠사과학박물관, 그리고 동진 수리 민속박물관과 벽골제수리민속 유물 전시관을 전문 농업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몇몇 민속촌과 민속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도 산하 농업기술원이 농경문화관 및 실내외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박물관은 대개 농기구를 중심으로 일년 농사의 과정, 농촌생활의 여러 모습, 그리고 농업의 역사를 전시주제로 삼고 있으며, 실물전시와 디오라마전시 및 영상전시 및 첨단 전시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 자료나 연구기능 면에서 이 중 어느 곳도 한국 농업문화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국외사례

국외 사례 조사는 쌀농사 지역인 일본, 중국, 베트남의 박물관들과 덴마크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은 중국농업박물관을 1986년에 농무부 산하 국가급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북경민속박물관을 비롯한 24개 지역 민속박물관에서 농업관련 전시를 하고 있다. 일본은 따로 농업박물관을 세우지 않았으나 국립 민족학박물관 및 국립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자국의 농업문화를 연구, 전시하고 있으며, 각 현마다 향토사료관을 짓고 이곳에서 농업문화를 다루고 있다.

서구에서는 규모를 갖춘 농업박물관을 찾기 힘들지만 대규모 야외박물관에서 농촌 살림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다. 덴마크국립박물관도 1901년에 세운 야외박물관에서 각종 농가 살림을 보여준다.

3. 한국농업박물관의 기본 구상

1) 성 격

가. 농민문화 중심의 박물관

박물관은 기원전 고대에서부터 정복자가 권위의 상징으로 피정복지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자랑삼아 보여주려고 한데서 출발했고, 그 전통은 고급 미술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현대 박물관에서는 점차 역사의 실질적 담당자인 서민의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한국농업박물관 역시 농민문화 중심의 박물관이 되어야 하며, 농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와 그 결과의 체계적 정리·보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농촌 문화의 복원과 전통 문화의 보존, 그리고 미래를 위한 농촌 문화 건설에 바탕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농업 문화의 유입 전파 관계 등도 비교 연구하며, 자료도 교환하도록 한다.

나. 농업문화 체험의 박물관

농촌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 가옥과 마을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함경북도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평야·산간·해안 지대의 가옥을 알맞은 지형에 세우거나 옮기고 생활문화 전반을 재현한다. 이들 가옥에는 방문자들이 하루 이틀 머물면서, 과거의 농촌 및 산촌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상생활, 음식, 경작에서부터 세시풍속과 의례에 이르기 까지 농촌문화의 모든 면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한다.

다. 농업문화 교육장으로서의 박물관

오늘날에는 각 박물관이 그 기능을 사회 교육에 집중시키는 추세이다. 경쟁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성이 넘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탈바꿈 하였다. 한국농업박물관도 사회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농업 교육과 강좌 : 농업인, 농업전공 학생, 농업관계 종사자, 교사, 주말 농장 가족, 일반인, 초·중·고·대학생
- ② 내외국인을 위한 전통공예교실 : 짚풀공예,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
- ③ 세시풍속 놀이마당
- ④ 텃밭 체험(곡물의 한해살이)
- ⑤ 찾아가는 농업민속박물관 운영
- ⑥ 장애인을 위한 교육
- ⑦ 풍물, 탈춤 체험과 교육

라. 관광 명소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유물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농촌 문화를 체험하면서 즐기고, 또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서 현대의 삶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야 한다.

- ① 숙박 체험 : 너와집·귀틀집을 비롯한 대표적인 산간 가옥을 옮기거나 옛 법식대로 짓고 어린이를 비롯한 숙박객이 전기가 없는 세상을 체험하면서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먹는 체험
- ② 학생야영장 설치 : 청소년들이 천막에서 자면서, 박물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의 여름살이 체험
- ③ 명품 농산품과 공예품 생산 판매 : 법도대로 생산하여 명품으로 인정받을 상품

2) 구 성

박물관의 전시 구성을 분야와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각 분류에 대해 특징 있는 전시, 운영계획을 세우고 조성해 나간다면 새 개념의 특별한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가. 역사관
- 나. 문화관
- 다. 과학관
- 라. 농기구관

- 마. 길쌈관
- 바. 공예관
- 사. 어린이관
- 아. 체험관
- 자. 야외관
- 차. 공연관
- 카. 도서관

3) 전시 구상

한국농업박물관의 전시는 한국 농업의 역사성, 지역성 및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전시의 풀이는 몇 개 주제를 세우고, 그에 딸린 부주제를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한다.

한국농업박물관은 성격상 큰 규모의 전시실과 긴 관람동선이 필요하다. 적정 관람시간을 2시간, 1일 적정 관람객을 1만 명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전시 동선상의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주고, 곳곳에 안락한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즐거운 관람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가) 주 제

농민은 농사를 영위하는 삶의 주체이며 그 삶은 농경세시로 순환하는 삶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의례에서부터 한해를 지내는 모든 삶이 농사와 직결되어 있다. 이 과업에서는 농경세시를 통해서 한국 농민과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시를 관통하는 제1주제를 농경세시로 하고, 세부 접근이 필요한 부 주제들을 그 흐름 주변에 배치하여 전시순로를 형성하는 구상을 제시한다.

① 제1 주제 : 농경세시와 농민의 삶

조선시대의 농경세시는 농사를 영위하는 지식의 축적이자 삶의 기본 틀이었다. 왕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한해살이가 농경세시에 의거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한국 고유문화의 근저를 이루었다. 실내전시는 이러한 한해 12달의 삶을 마치 백두대간과 같은 흐름으로 풀어가며 필요한 곳에 부 주제들을 배치하여 그 전모를 조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방법은 역동적인 입체전시와 다양한 패널전시, 그리고 풍부한 실물자료 전시가 교차하며 긴장과 몰입과 편안함이 교직(交織)되도록 한다.

② 제2주제 : 한국 기층문화의 이해

한국농업박물관에서는 내외국 관람객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문화의 총체적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세시풍속 전시 속에 우리 기층문화의 여러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고, 특히 의식주, 통과의례와 신앙, 음악, 미술, 전통 의료(특히 민간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주제로 독립하여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③ 제3주제 : 한국농업사

한국 농업의 기원과 전개, 고조선시대 이래의 조세제도 등 다른 나라와 비교, 농본의 실제와 역대 왕조의 농업정책, 제도, 기술에 대해 전시하고, 고대~현대 농민의 신분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

나) 부주제

① 농경세시와 농민의 삶

- 한국농경문화의 형성과 전개
- 논농사
- 밭농사
- 산촌과 농경
- 길쌈
- 농촌의 대외교류와 경제
- 어촌과 농경
- 축산
- 농촌 수공예

② 한국 기층문화의 이해

- 의식주 : 복식, 음식, 주거
- 통과 의례와 신앙 : 기자, 돌과 관혼상제, 국가신앙, 마을신앙, 가정신앙, 무교
- 음악 : 농악, 정악, 풍류, 굿음악
- 미술 : 원시미술, 순수미술
- 놀이와 연희 : 줄다리기, 탈춤놀이, 연날리기, 씨름 외
- 전통 의료 : 한의학, 민간요법, 인삼과 약용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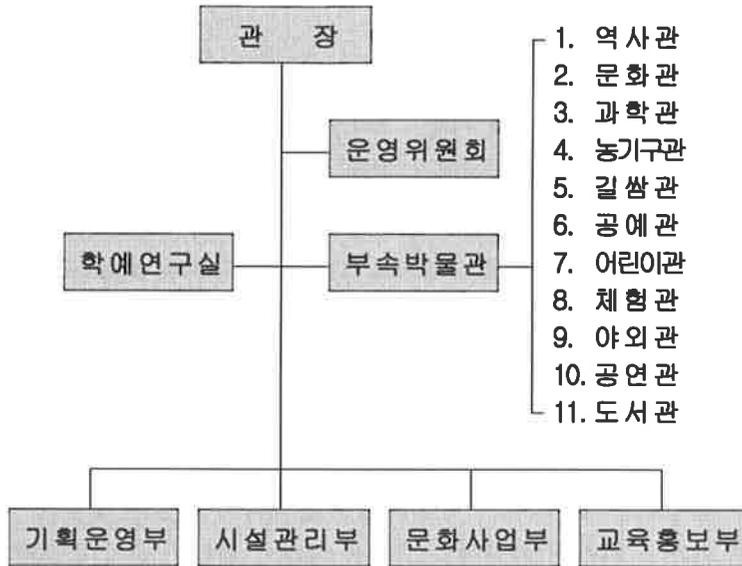
〈전시 주제와 부주제 예시〉

구 분	항 목	내 용	새김
	도입부	한국 농촌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경험하는 정경들 (서낭당, 동구나무, 논밭, 개울과 징검다리)	디오라마 가상체험
주제	농경 세시	새해맞이 광경에서 시작하여 12월까지 농촌의 각가 지 사는 모습 전개, 월령과 세시의례, 의식주살림, 통과의례	전시공간을 관 통하는 주제
	한국의 기층문화	의식주, 통과의례와 신앙, 음악, 미술, 놀이와 연희, 전통 의료	별실 전시
	한국농업사		별실 전시
부주제	한국농경문화의 형성과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과 마을생활 • 청동기시대의 농경과 고을생활, 고조선 건국 • 인류 초기의 채집 /사냥 /목축(유목) 	섬 전시
	논농사	수리 관개, 농사연장과 살림, 논농사 민속	
	밭농사	연장과 살림, 밭농사 민속	
	산촌과 농경	산중생활, 화전, 수렵, 채집, 천렵	
	길쌈	삼베(북포, 안동포), 명주, 모시, 목면	
	농촌의 대외 교류와 경제	장날, 조세, 부역 등짐장수, 애기꾼, 유랑광대, 환쟁이	
	어촌과 농경	어촌 정경(살림살이), 배와 연안어업, 어살과 채취업, 염전과 가공	
	축산	소, 말, 닭, 돼지, 개, 염소	
	농촌 수공업	짚풀, 실천, 나무, 철, 종이공업	

4) 조 직

가) 조직 구성

한국농업박물관은 정부 부속 기관이나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기능의 특수성과 학술적 배경의 중요성으로 보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그 조직의 일예를 보여준다.



이 조직도에 따른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학예연구실 : 유물 수집· 전시· 보존· 조사· 연구 등
- 기획운영부 : 행정 지원· 인사 관리· 경리 등
- 시설관리부 : 설비·조경·차량 운영 등
- 문화사업부 : 숙박·식당·매점·농산물 판매·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
- 교육홍보부 : 사회교육·홍보물 출판·신문 및 학술지발간·국제교류·후원회·자원봉사자 운용 등

나) 박물관 후원회 조성

외국 중요 박물관은 멤버십과 회비가 중요한 수입원이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은 후원회 회비로 전 예산의 15% 정도를 충당한다. 박물관 회원제도는 일반 개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박물관 사업에 동참케 하는 동시에, 재정적 도움을 받는 효과가 있다. 또 사회적 지위나 명망,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을 후원자 그룹을 엮어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박물관에 후원금을 내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후원회는 재정적 수입뿐 아니라, 자원봉사제도의 활용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4. 맺음말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농업의 역사와 기능, 그리고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국내외 농업 관련 박물관의 현황에 대해서 국내 박물관은 직접 방문하여, 그리고 외국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헌자료와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 농업은 단순한 생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밑바탕이며 국토의 훼손을 막는 합리적인 수단이기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 한국농업의 침체는 농업 자체의 가치가 저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 그 때문에 우리 농민이 어렵사리 새로운 길을 마련하더라도 번번이 새로운 장애에 가로막히곤 해 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민의 위상 자체가 심각한 훼손을 당하여 참으로 가련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길은 정책적 배려에만 의존해서는 찾기 힘들고 농업인 자신이 자긍심과 의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

한국농업박물관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농업과 농업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농업인들의 힘을 북돋고, 나아가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을 가진 대안이며,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워야 할 과업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철학회, 2001, 『박물관과 교육』, 문음사
- 구문희, 2006, 「2005년 국립민속박물관의 박물관 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II, 민속원
- 龐建春, 2003, 「중국 민속박물관의 역사와 현황」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 梅棹忠夫·祖父江孝男編, 1979, 『世界の博物館』 22, 講談社
- 오즈카 카즈요시 지음, 홍종필 옮김, 2004, 『박물관학』, 백산출판사
- 이보아, 2000,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 이난영, 2001,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 이종철, 1981, 「Smithsonian Institution의 박물관 교육」, 『고문화』 제19집
- 이종철·강무현, 1982, 「미 국립인간·자연사박물관의 동남아전시」, 『석주선 교수 고회기념 민속학논총』 II
- 이종철, 1987, 「덴마크 국립박물관 소고」, 『고문화』 30집
- 이종철, 1989, 「덴마크 문화와 박물관 150년사」, 『문화인류학논총』, 김택규 박사 회갑기념논총
- 이종철, 1990, 「민속박물관의 현재와 미래」,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안동대민속학연구소편, 형설출판사
- 이종철, 2002, 「한국박물관의 전망」, 『세계민속문화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운영실태 보고서』, 1994, 국립중앙박물관
- 전경수, 2005,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일지사
- 胡駿, 1989, 『博物館縱橫』, 中國青年出版社